ISSN 2092-6073

Trend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

NO. 20, June 2019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Number 20 (June 2019)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보고서

제 20 호 (2019년 6월)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목 차

워싱턴대학교의 한국 장서 ····· 3

이효경(Hyokyoung Yi)
워싱턴대학교 한국학 사서/동아시아 도서관 이용자서비스 부장

로마 라 사피엔자 대학교의 한국학 장서 ····· 22

파비오 스타씨(Fabio Stassi)
로마 라 사피엔자 대학교 동양학부 도서관장

안토넬라 팔레리니(Antonella Fallerini)
로마 라 사피엔자 대학교 한국학 사서

히브리대학교의 한국학 장서 ····· 37

하녹 로니저(Hanoch Roniger)
히브리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블룸필드도서관 아시아학 주제전문가 겸 기술서비스 담당사서

학술 연구 서비스의 한국적 운영 모델을 만들다: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 52

강민기(Mingi Kang)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운영과 사서

CONTENTS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Libraries … 71

Hyokyoung Yi
Korean Studies Librarian & Head of Public Services at the East Asia Library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Sapienza University of Rome ····· 93

Fabio Stassi
Director of Oriental Studies Library
The Sapienza University of Rome

Antonella Fallerini
Korean Studies Librarian
The Sapienza University of Rome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 109

Hanoch Roniger
Asian Studies Subject Specialist Librarian & Technical Services Librarian
Bloomfield Library for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The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Creating a Korean model for academic research services ····· 126

Mingi Kang
Librarian
Collection Management and Service Division
National Library of Korea

제 20 호 (2019년 6월)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보고서

워싱턴대학교의 한국 장서 / 3

로마 라 사피엔자 대학교의 한국학 장서 / 22

히브리대학교의 한국학 장서 / 37

학술 연구 서비스의 한국적 운영 모델을 만들다: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 52

워싱턴대학교의 한국 장서

이효경(Hyokyoung Yi)

한국학 사서/ 동아시아 도서관 이용자서비스 부장

워싱턴대학교

1. 워싱턴대학교 소개

워싱턴대학교는 서북미 최고 규모와 연구를 자랑하는 대학이자 전 세계에서 뛰어난 종합대학 중의 하나로 손꼽이고 있다. 1861년 개교이래 가장 혁신적인 대학으로 주목받아온 워싱턴대학교는 최근 2018년에 발표된 중국 상하이 랭킹 컨설팅사가 발표한 세계대학 학술 순위(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에서 14위를 차지했다.[1] 시애틀 캠퍼스 외에도 바텔과 타코마에 분교를 두고 있으며, 워싱턴대학의 메디칼 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매년 5만 4천명이 넘는 대규모의 학생들을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으로 인도하고 있으며, 부단한 연구와 새로운 지식의 발견을 위해 지난 150년 이상 꾸준히 성장 발전해 오고 있다.

워싱턴대학교가 위치한 시애틀 시는 워싱턴주의 중심 도시로 서북미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누리고 있다. 서쪽으로는 태평양에 맞닿은 퓨젯 사운드와 북서쪽에는 올림픽 국립공원과 서부 최대의 야생지대인 올림픽 반도가 있고, 남쪽으로는 만년설의 위상을 감상할 수 있는 워싱턴의 지붕 레이니어 산(Mt. Rainier)이 펼쳐져 있으며, 동쪽으로는 캐스캐이드 산맥이 그 위용을 한껏 자랑한다. 엄청난 크기의 워싱턴 호수와 유니언 호가 학교 주변을 감싸고 있어 에머랄드 도시라는 시애틀의 별칭이 무색하지

1) Holtz, Jackson. "Rankings: UW is No.14 in the world, third among U.S. public universities, plus on Money and Washington Monthly best-of lists." *UW News,* 27 Aug. 2018, https://www.washington.edu/news/2018/08/27/rankings-uw-is-no-14-in-the-world-third-among-public-universities-plus-on-money-and-washington-monthly-best-of-lists/

않게 주변 자연 환경이 무척 아름답다. 시애틀은 태평양을 사이로 북미와 아시아 대륙을 잇는 국제적인 무역 도시이기도 하다. 커피와 첨단 기술의 도시로 알려진 시애틀에는 스타벅스, 마이크로 소프트, 아마존, 보잉 등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모여 있다. 워싱턴대학교는 시애틀의 중심에 있어 주변 기간 산업에 필요한 젊은 인재들을 양성해 내고 있다.

[사진 1] 워싱턴대학교 인문대 쿼드 광장, Photo by Mark Stone at University of Washington Photography

2. 워싱턴대학교의 한국학

워싱턴대학교는 의치대와 간호대 및 컴퓨터 공학과 생명공학 등의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융합 분야의 학과가 유명할 뿐만 아니라, 한국학의 오랜 전통과 명성도 가히 세계적이라고 볼 수 있다. 북미에서 명실공히 가장 오래된 한국학 연구 대학의 하나로, 1944에 공식적으로 시작된 한국어 프로그램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들의 언어 실력을 돕기위한 특별 훈련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출발하였다.[2] 해롤드 선우(Harold Sunoo), 서두수(Doo Soo Suh), 프레드 룩코프(Fred Lukoff), 제임스 팔레(James Palais) 교수님으로 이어지는 워싱턴대학교의 초기 한국학 프로그램은 한국전쟁 이후 장대한 발전을 이루었다. 조선 역사를 연구하신 제임스 팔레 교수님이 1968년부터 2001년 은퇴하시기까지 워싱턴대학에서 한국사를 가르치시면서 수많은 석학들을 배출해 낸 것은 해외 한국학 역사에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는 시카고대학에 계신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 교수님과 함께 한국 역사를 가르치셨던 70년대 말에서 80-90년대는 그야말로 워싱턴대학교의 한국학 최고 전성기라 칭할 수 있다. 팔레 교수님 은퇴 후에도 한국학의 발전은 꾸준히 이어졌고, 현재는 한국 역사와 언어 뿐만 아니라, 문학, 정치,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을 연구하며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다.

3. 워싱턴대학교 도서관

워싱턴대학 도서관은 시애틀, 바텔, 타코마 및 프라이데이 하버에 위치한 총 16개의 분관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5백6천만 이용자가 도서관을 방문하고 있으며, 9백만권이 넘는 방대한 장서에 백만권 이상의 전자책과 18만 종 이상의 전자저널을 소장하는 대규모의 연구도서관이다.[3]

중앙 도서관인 수잘로 알렌 도서관(Suzzallo and Allen Libraries)은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학 도서관으로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호그와트를 닮아서 학생들 사이에는 일명 “해리포터 도서관”으로도 유명하다. 1926년에 처음 개장한 수잘로 도서관은 워싱턴대학의 15번째 총장 헨리 수잘로의 이름을 따 왔다. 65피트의 높이와 250피트의 길이에 52피트

---

2) Kim, Soohee “The Korean Language Program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Celebrating its First Seventy Years” IN Wang, Hye-Sook. Rise of Korean Language Programs in U.S.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a Narrative History. Korea University Press, 2015.

3) “Libraries Fact Sheet 2019” University Libraries. University of Washington, 2019. http://www.lib.washington.edu/assessment/statistics/facts

넓이의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수잘로 도서관에는 아치형 천장과 채색 유리창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열람실이 있다.[4] 열람실내의 벽을 둘러싼 오크나무 책장과 면학 분위기에 걸맞은 책상과 의자는 탁상 조명과 함께 조용히 앉아 독서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공간이다. 1층 도서관 입구에서 3층 열람실로 향하는 나선형의 큰 계단은 결혼 기념사진을 찍으러 오는 신랑 신부들과 관람객들로 늘 붐비는 곳이기도 하다.

수잘로 도서관은 1990년에 알렌 도서관을 증축해서 서고와 열람실 공간을 최대한 확장했고, 현재는 수잘로 알렌 도서관으로 불린다. 2천 5백만 권의 장서를 소장할 수 있는 공간에 리서치 커먼스, 스페셜 컬렉션, 보존처리실 및 도서관 행정 부서와 직원들 오피스가 이 곳에 함께 위치해 있다.

[사진 2] 비내린 수잘로 도서관의 전경, Photo by Katherine B. Turner/ UW Marketing

4) "About Suzzallo and Allen Libraries" University Libraries, University of Washington, 2019 https://www.lib.washington.edu/suzzallo/visit/about

[사진 3] 수잘로 도서관 열람실,
Photo by 2017 Jonathan M. Steinberg Photography

수잘로 알렌 도서관 다음으로 규모가 큰 분관 도서관인 오데가드 도서관(Odegaard Undergraduate Library)은 주로 학부생들을 위한 곳으로서 일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하루 24시간 오픈한다. 학부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컴퓨터 센터와 글쓰기 센터 및 적극적인 교습법을 실행하기 위한 강의실도 있어서 학생들의 편리를 돕고 있다. 이 외 다른 분관 도서관에는 동아시아 도서관, 포스터 경영 도서관, 공대 도서관 및 의대 도서관 등이 있다.

도서관은 대학의 연구 핵심기관으로 70명 이상의 주제전문사서가 학생들과 교수진에게 이용 정보서비스 교육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며, 학업과 연구 성과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매년 학부생들을 위한 연구 장려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디지털 연구를 독려하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다. 논문 출판과 관련된 교수님들의 오픈 액세스 증진을 다각도로 도모하고, 학생들 수업 교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픈 텍스트북을 적극 권장하고 알리는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도서관 문화 행사 등을 꾸준히 마련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리더로 대학도서관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워싱턴대학 출판부가 도서관으로 통합돼, 두 부서의 공통분모인 학술 지식의 보존과 유통의 시너지를 높이고, 전자출판과 오픈액세스를 위한 앞으로의 발전적 방향에 더욱 큰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1 워싱턴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5)]

동아시아 도서관은 워싱턴대학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인문대 캠퍼스 네 개의 건물 중 하나인 고웬 홀(Gowen Hall) 3층에 위치하고 있다. 북미에서 동아시아도서관으로는 10대 도서관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6)] 대학 내 아시아 언어 문학과와 잭슨 국제 대학의 중국, 일본, 한국학 프로그램의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를 돕기 위해 존재한다.

동아시아 도서관의 역사는 1937년 록펠러 재단으로부터 소액의 중국 장서 기금을 받은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0년대에 이르러서는 다른 대학으로부터의 기증도서 및 록펠러 재단의 지속된 도움으로 2만 권 이상의 장서를 모으게 된다. 얼마 되지 않는 이 장서는 수잘로 중앙도서관 "오리엔탈 세미나실"에 비치되어 학생들과 교수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가까스로 이용되었다.

1946년에 극동연구소가 대학 내 설치됨과 함께 오리엔탈 세미나실의 장서는 극동 도서관(Far Eastern Library)으로 불렸다. 극동 도서관의 첫 사서이자 큐레이터로 루스 크레이터(Dr. Ruth Krader) 박사가 1947년에 임명되었다. 1948년에는 일본 장서의 기반이 된 조지 커(George Kerr) 컬렉션을 입수하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 중 소량의 한국책들이 미국 육군 부대 언어 교육을 위해 수집되기 시작했다. 1950년 극동 도서관은 수잘로 도서관을 떠나 극동연구소가 위치한 톰슨 홀 건물의 지하로 이동을 하게 된다. 1951년에 록펠러 재단의 기금으로 중국 관련한 일본 도서를 구입하기도 했다. 이 당시 조셉 락(Joseph Rock)과 허버트 고웬(Herbert H. Gowen) 컬렉션의 입수는 도서관의 중국과 내륙아시아 지역 관련 자료를 한층 강화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60년대는 중국 고전자료로 이뤄진 헬뭇 윌헴(Helmut Wilhelm) 컬렉션과 일본 예술 자료인 로버트 페인(Robert Paine) 컬렉션이 추가로 입수되었다. 1976년에는 도서관이

---

5) Mostly from "About East Asia Library", East Asia Library, University of Washington, 2019 http://www.lib.washington.edu/east-asia/about

6)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Welcome to the CEAL Statistics Database,* https://ceal.ku.edu/

있는 현재 건물인 고웬 홀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극동도서관에서 동아시아 도서관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80년대에도 장서가 지속적으로 발전했고, 도서관 전산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90년대에 와서는 한중일 장서 골고루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으며, 온라인과 CD-ROM을 통한 전자자료 구입도 상당 수 갖추게 되었다. 중국을 제외한 해외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25 왕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하기도 했으며, 일본의 과학정보시스템 국립센터의 정보검색 시스템과 연계를 시작하기도 했다.

90년대 중반에는 한국국제교류 재단의 도움으로 미국 내 6개 대학 도서관이 모여 한국학 장서 컨소시엄을 발족시켰고, 이후 수 십년간 꾸준히 컨소시엄의 한국 특화 분야 장서개발을 이루어 왔다.[7]

200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늘어난 장서에 비해 서고가 탁없이 부족해 도서관 옆 건물인 케인 홀과 스미스 홀 및 고웬 홀 지하 층에 장서들을 이전시켜 지금껏 잘 관리해 오고 있다. 한중일 자료 외에도 티베트 언어로 된 자료 및 만주어와 몽골어로 된 자료까지 포함해 2018년 6월 동아시아협의회 통계 기준 총 72만권의 장서로 전자자료를 포함하면 총 80만권에 육박한 장서에 이른다.[8]

동아시아 도서관은 주로 인문 사회과학 주제와 관련한 한중일 언어로 된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한다. 수잘로 알렌 중앙도서관에서는 각 주제 분야에 따른 영어자료와 서유럽 언어로 된 자료들을 수집하며, 갈라허 법률 도서관(Gallahur Law Library)에서는 동아시아 법률관계 자료를 언어와 상관없이 전부 모으고 있다.

동아시아 도서관의 스페셜 컬렉션은 약 6천 종 이상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300권 정도의 1796년 이전의 중국 고서, 중국 남서지방 정부 관보를 중심으로 한 조세프 에프 롹(Joseph F. Rock) 컬렉션과 중국 공화국 시기의 컬렉션이 대표적이다. 일본 관련 고서로는 메이지 이전 시대의 부칸(Bukan) 컬렉션과 순수 일본 예술의 페인(Paine) 컬렉션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만들어진 군대용 지도가 대표적이며, 한국자료로는 해방공간시기(1945-1950)에 출판된 도서들과 제임스 팔레(James Palais) 페이퍼 컬렉션 및 만화 컬렉션이 유명하다.

---

7)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Annual Meeting Minutes, https://kccna.libguides.com/home

8)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Welcome to the CEAL Statistics Database, https://ceal.ku.edu/

[사진 4] 동아시아 도서관 열람실, Photo by 2019 Taewoong Kang, University of Washington

3.2 동아시아 도서관 한국 장서의 역사

워싱턴대학교의 한국 장서는 1940년대 초에 유학생들이 기증한 소수의 책들을 시작으로 1944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 점차 발전해 왔다. 1969년에 이르러서는 제1세대 사서라고 지칭할 수 있는 최윤환 사서를 한국 전문 사서로 고용했다. 최사서의 32년간 노고로 인해 한국학 장서는 무궁한 발전을 이뤘다.[9] 8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된 도서관 목록의 전산화 과정은 이용자들의 한국 자료 검색을 원활하게 했다. 90년대에는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장서 보조 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1994년에 미국 내 6개 도서관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매년 2만불의 한국 장서 기금을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았다.[10] 컨소시엄 사업은 현재 2019년에 14개의

9) 이효경 "사람이 있어 더 아름다운 도서관: 워싱턴대학교 한국학도서관" *출판저널*, no.444, 2013, pp.34-41

대학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고, 해외 한국학을 위한 장서의 종합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북미 한국학 장서 컨소시엄은 각 학교마다 특화 주제 분야를 나누어서 25년간 체계적인 장서개발을 해 온 성공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사업으로 아직까지도 각광받고 있다. 워싱턴대학이 특화 주제로 그간 구축해온 자료들에는 여성학, 현대 시, 경상남북도 지역 자료, 관광 및 아동도서등이 있다. 특히 여성학 관련 자료는 남성과 성소수자 등을 포함한 가족/젠더학으로 확장해 수집해 오고 있으며, 경상남북도 자료 중에서는 독도 관련 자료에 중점을 두어 수집하고 있다.

2000년대 와서는 작고한 제임스 팔레 교수님의 1만권이 넘는 개인 장서를 기증받았고, 서울대 음대의 만당 이해구 선생님의 음악 자료 및 한국만화 컬렉션을 대량으로 입수하게 되어 워싱턴대학의 한국학 장서가 북미 대학도서관으로 두 번째로 방대한 장서가 되었다는 명예를 얻었다. 하지만, 2019년도에 이르러 수십 년간 지켜왔던 영예의 자리를 처음으로 타 대학으로 넘기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담당 한국사서로서 매우 애석하지 않을 수 없다[11].

여느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종이책 자료와 더불어 한국 전자저널과 전자책 등의 전자자료 또한 체계적으로 수집해 오고 있다. 이용자들의 전자자료 수요가 급증한 반면, 자료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학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재 도서관이 당면한 가장 큰 이슈라 할 수 있다. 대학 내외의 기금을 다방면으로 신청해 부족한 예산을 메꾸어 나가는 것을 현실적인 방편으로 삼고 있지만, 자료의 오픈액세스를 통한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를 이루지 않고는 지속하기 힘든 예산의 현실은 모든 도서관의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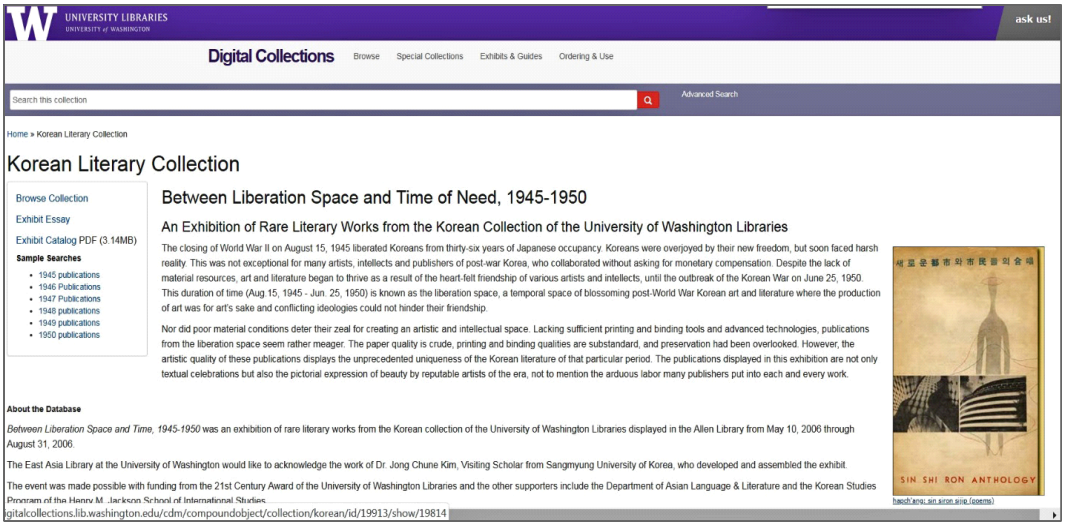
3.3 한국 스페셜 컬렉션

3.3.1 해방공간 도서

가장 먼저, 워싱턴대학 도서관의 한국 장서 중에 귀중도서로 취급할 자료는 해방 직후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바로 직전에 출판된 해방공간 도서 컬렉션이다. 광복

10) 대부분 2만불 지원금을 받았지만 액수가 다른 해도 더러 있었음.
11)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Welcome to the CEAL Statistics Database,* https://ceal.ku.edu/

직후인 1945년 10월 31일 계림 인서관에서 출판된 어린이 도서 <해와 달: 조선동화집>을 시작으로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이전 6월 10일에 을유문화사에서 출판한 박종화 소설가의 <다정불심> 소설책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 안에 출판된 104종의 한국 근대문학 도서들이 대표적이다. 이 컬렉션에는 시, 소설, 에세이, 문학사와 비평, 독본, 아동도서 등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쟁으로 인한 손실과 훼손을 피해 잘 보존되어 있다. 종이 질도 좋지 않고 대부분 작고 조악해 보이는 책들이지만, 해방을 맞이한 기쁨과 감격을 당대의 문학인과 지성인들이 우리의 언어로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들이라서 그 의미는 더 크다고 본다. 이 컬렉션이 처음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된 것은 2005년도에 워싱턴대학교로 연구년을 오셨던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 서지학 전공 교수로 역임하셨던 김종천 선생님의 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분의 도움을 받아 2006년에는 <Between Liberation Space and Time of Need: 1945-1950>의 전시를 수잘로 알렌 중앙도서관 로비에서 성대하게 개최했으며, 리셉션을 통해 교내외로 한국책을 널리 홍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기도 했다. 이 컬렉션의 자료는 모두 전자책으로 만들어 영구 보존은 물론, 학생들과 학자들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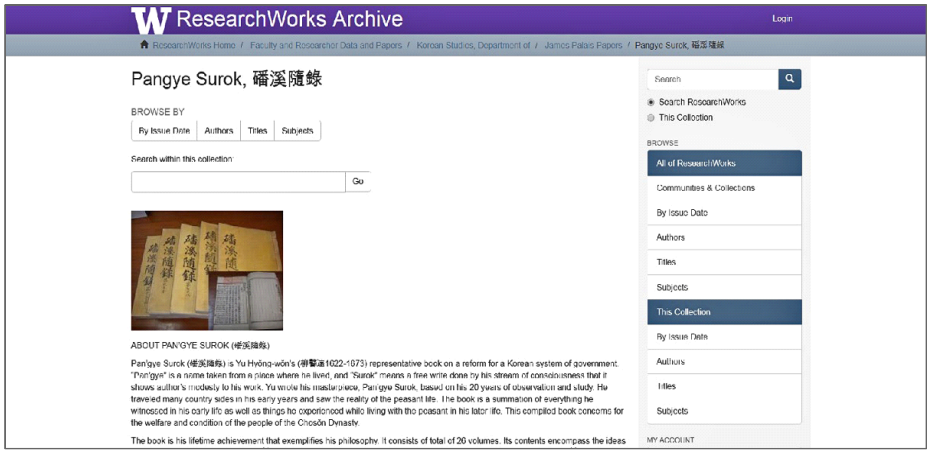


[그림 1] http://content.lib.washington.edu/koreanwe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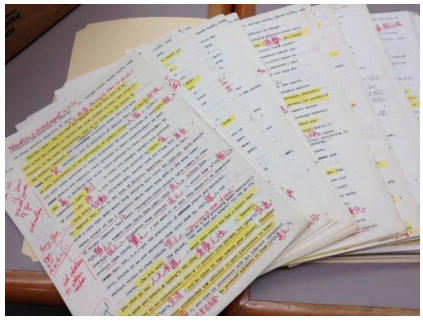
3.3.2 제임스 팔레 페이퍼 컬렉션

두 번째 스페셜 컬렉션으로는 작고하신 제임스 팔레 교수님의 개인 문고와 페이퍼들을 손꼽을 수 있다. 도서관에서는 제임스 팔레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계셨던 1만권이 넘는 책을 전부 입수하게 되었다. 자료는 언어로 구분했을 때 영어자료와 한국어 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국과 일본어 자료도 소수 포함되어 있었다. 복본 조사를 통해 도서관에서 소장하지 않았던 자료 약 1천 여 권을 골라 목록을 작성했고, 나머지 한국 언어로 된 복본 자료는 그 당시 한국 장서를 처음으로 모으기 시작했던 스탠포드 대학에 기증했다. 복본 자료 중 영어자료는 팔레 교수님이 생전에 동아시아 학술원장을 지내셨던 성균관대학 도서관에 일부 기증하였다. 도서 장서 외에도 팔레 교수님의 페이퍼 컬렉션에는 다양한 종류의 문서들이 있는데, 박스별로 정리해 수잘로 앨렌 중앙도서관의 스페셜 컬렉션에서 현재 보관 중에 있다. 이 중에는 팔레 교수님이 직접 영어로 번역한 조선시대 유형원의 <반계수록> 원고가 2천장 넘게 들어 있다. 이 자료는 팔레 교수님의 연구 업적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자료로서, 조선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위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대량의 원고는 모두 스캐닝을 해서 디지털 작업을 끝낸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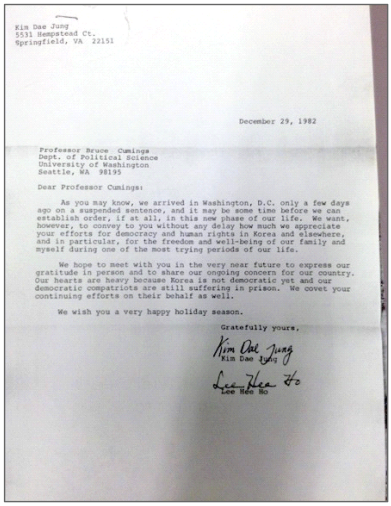
팔레 교수님은 한국의 인권 운동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 주셨는데, 그 흔적이 남은 문서들도 페이퍼 컬렉션에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과 1983년도에 나누었던 여러 차례의 서신은 눈여겨 볼 만 하다. 이 서신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사건으로 1982년 12월 미국으로 2차 망명해 워싱턴 D.C.에 도착하자마자 그 당시 워싱턴대학에 재직 중이던 브루스 커밍스 교수에게 서신을 보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서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신의 망명 상황과 함께 한국의 비민주적인 독재정치 및 인권 문제를 전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듬해 1983년도에는 팔레 교수님의 초청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워싱턴대학에서 1983년 4월 29일과 30일 양 일간에 걸쳐 강연 행사를 가진 것도 확인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비롯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 투쟁을 서신에서 언급하며, 미국 정부가 한국 독재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달라는 부탁의 메시지를 팔레 교수님께 전하고 있었다.



[그림 2] https://digital.lib.washington.edu/researchworks/handle/1773/23883



[사진 5] 팔레교수님의 반계수록 번역 원고



Kim Dae Jung
5531 Hempstead Ct.
Springfield, VA 22151

December 29, 1982

Professor Bruce Cumings
Dept.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WA 98195

Dear Professor Cumings:

As you may know, we arrived in Washington, D.C. only a few days ago on a suspended sentence, and it may be some time before we can establish order, if at all, in this new phase of our life. We want, however, to convey to you without any delay how much we appreciate your efforts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Korea and elsewhere, and in particular, for the freedom and well-being of our family and myself during one of the most trying periods of our life.

We hope to meet with you in the very near future to express our gratitude in person and to share our ongoing concern for our country. Our hearts are heavy because Korea is not democratic yet and our democratic compatriots are still suffering in prison. We covet your continuing efforts on their behalf as w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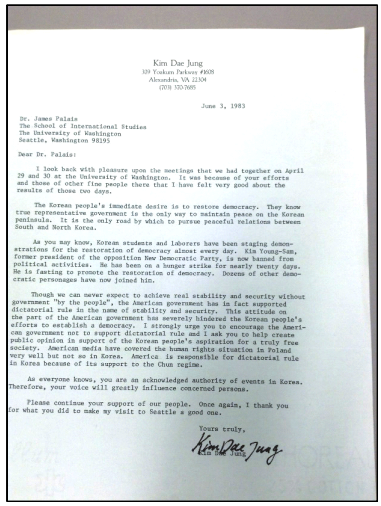
We wish you a very happy holiday season.

Gratefully yours,

Kim Dae Jung
Kim Dae Jung

Lee Hee Ho
Lee Hee Ho

[사진 6] 브루스 커밍스와 김대중 관련 서신(왼쪽)



Kim Dae Jung
339 Yoakum Parkway #1608
Alexandria, VA 22304
(703) 370-7695

June 3, 1983

Dr. James Palais
Th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Washington 98195

Dear Dr. Palais:

I look back with pleasure upon the meetings that we had together on April 29 and 30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It was because of your efforts and those of other fine people there that I have felt very good about the results of those two days.

The Korean people's immediate desire is to restore democracy. They know true representative government is the only way to maintai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the only road by which to pursue peaceful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you may know, Korean students and laborers have been staging demonstrations for the restoration of democracy almost every day. Kim Young-Sam, former president of the opposition New Democratic Party, is now banned from political activities. He has been on a hunger strike for nearly twenty days. He is fasting to promote the restoration of democracy. Dozens of other democratic personages have now joined him.

Though we can never expect to achieve real stability and security without government "by the people", the American government has in fact supported dictatorial rule in the name of stability and security. This attitude on the part of the American government has severely hindered the Korean people's efforts to establish a democracy. I strongly urge you to encourage the American government not to support dictatorial rule and I ask you to help create public opinion in support of the Korean people's aspiration for a truly free society. American media have covered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Poland very well but not so in Korea. America is responsible for dictatorial rule in Korea because of its support to the Chun regime.

As everyone knows, you are an acknowledged authority of events in Korea. Therefore, your voice will greatly influence concerned persons.

Please continue your support of our people. Once again, I thank you for what you did to make my visit to Seattle a good 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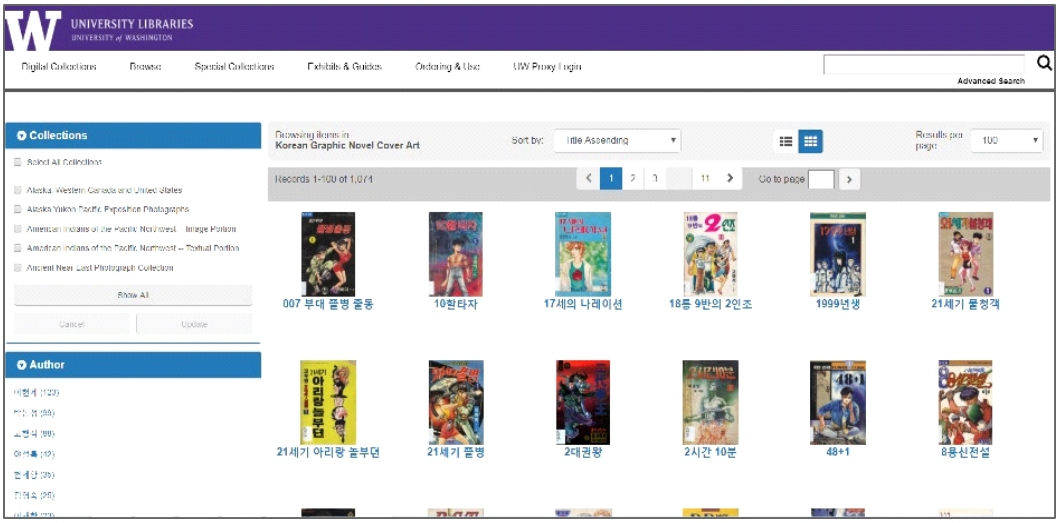
Yours truly,

Kim Dae Jung
Kim Dae Jung

[사진 7] 팔레교수님과 김대중 관련 서신(오른쪽)

3.3.3 한국만화 컬렉션

워싱턴대학교에서 세 번째로 귀중한 도서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에 한국 만화컬렉션을 꼽을 수 있다. 앤티크상을 운영하는 한 워싱턴 주민으로부터 만 오천 권 이상의 자료를 기증받았다. 종이 만화책이 왕성하게 출판되었던 1980년대부터 2000초까지의 만화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 만화 컬렉션은 허영만, 이현세, 고행석, 박봉성, 한승원, 황미나, 이상무 등의 유명 만화가의 책들로 이루어져 있다. 만화책에 대한 대학도서관의 편견 때문에 처음에는 대량의 만화책을 도서관으로 입수해 오는데 있어 어려움이 적지 않았지만, 현재는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유용한 자료로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웹툰으로 인한 종이 만화책의 출판이 2000년대 이후로 급격히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자료의 보존 차원에서도 한국 만화컬렉션은 그 소장 가치가 크다고 본다. 컬렉션의 이용을 위해 각 책에 따른 개개의 목록을 모두 완성했고, 책 표지 이미지 1000종 이상을 디지털로 스캔해 두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도서관 사이트에서 만화 표지를 검색할 수 있게 해 두었다.



[그림 3] https://cdm16786.contentdm.oclc.org/digital/collection/p16786coll5

3.4 한국 장서 홍보

3.4.1 도서 전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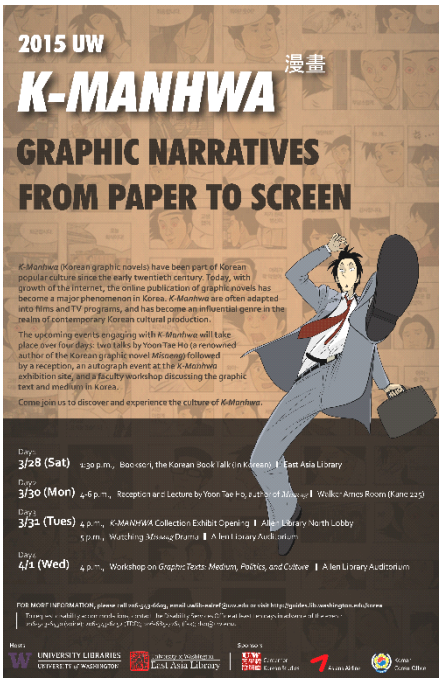
워싱턴대학교의 귀중한 한국 자료의 활용을 높이고 자료에 대한 인식을 되살리기 위해 동아시아 도서관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06년에는 해방공간 시기에 출판된 근대문학 자료들을 중심으로 전시회를 열어, 대학 내 교수와 학생들 뿐만아니라 시애틀 한인 커뮤니티에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 <해와 달: 조선동화집>과 <해방기념시집>을 필두로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이태준의 <상허문학독본>, 오장환의 <성벽>, 안회남의 <불>, 김동리의 <무녀도>, 임학수의 <팔도풍물시집>, 정비석의 <제신제>,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었다>, 염상섭 외 <해방문학선집>, 김경린 외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등 반 세기 이상 빛을 보지 못하고 서고에만 갇혀 있던 책들이 전부 세상 밖으로 나와 주목을 받았다. 외국인들의 한국 자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영어로 전시 목록을 만들었고, 자료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04점의 전시에 사용했던 자료를 도서관 자체 내에서 전자책으로 만들어 두었다. 전자책은 교내뿐만 아니라 타 대학의 한국문학 수업과 연구를 위해 활발히 사용되기도 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2008년에는 해방공간문학의 학회가 워싱턴대학에서 최초로 열리게 되었다. 학회를 위해 104점의 자료들을 가지고, 도서관내 중앙도서관 로비에서 전시회를 다시 가지게 될 정도로 이 컬렉션은 유명한 한국 장서로 자리매김했다. 도서관 자료의 새로운 발견을 통해 해방 시기의 한국 문학 연구에 활기를 띄게 만든 특별한 행사가 된 셈이다.

[그림 4] 2006년 해방공간 도서 전시도록 (표지 앞과 뒤)

3.4.2 '북 : 소리' 북토크 프로그램

2013년 6월부터 질 좋은 한국 도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북 : 소리'라는 북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매달 한 번 토요일 오후에 강사를 초청해 한국책을 주제로 흥미로운 강연이 열린다. '북 : 소리'는 교내 학생들과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시애틀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현재까지 한 달도 쉬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다. 2015년에는 <미생>의 윤태호 만화가를 초대해서 북:소리 강연과 함께 K-Manhwa 페스티벌을 열었다. 총 4일 간에 걸친 페스티벌에서 만화방 전시 및 워크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국 만화를 대내외적으로 크게 홍보했다. 2017년 7월에는 북 : 소리 50회 특별 프로그램으로 소설가 김탁환 작가를 모셨고, 2018년에 8월 63회에는 <사월의 미, 칠월의 솔>의 김연수 소설가를 모시는 등 한국 책을 통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켰다. 워싱턴대학교의 북 : 소리는

한국의 유명 작가뿐만 아니라, 시애틀 지역의 문화계 인사들, 워싱턴대학의 한인 교수들과 한국에서 방문학자로 온 교수들, 시애틀 각지에서 차세대 한인 지도자로 활약하는 교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주제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 종교 예술을 논하는 프로그램으로 굳게 자리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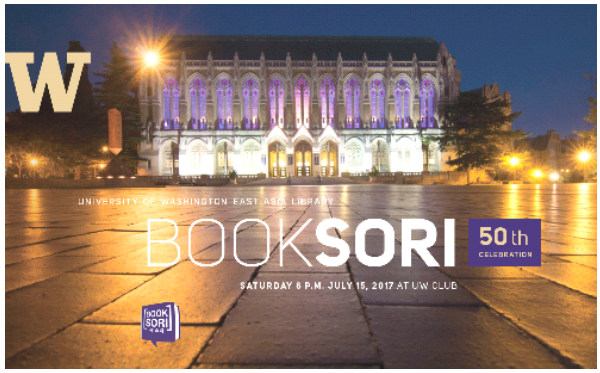


[그림 5] 2015년 K-Manhwa만화 페스티벌 포스터

[사진 8] 유답 만화방 모형 전시

[사진 9] 유답 만화방 벽에 만화를 그린 윤태호 만화가

[사진 10] 유답 만화방을 만든 한국학생들과 이효경 사서



[그림 6] '북:소리' 50회 김탁환 소설가 포스터　[그림 7] '북:소리' 50회 기념 프로그램책자 표지

3.4.3 한국 목록 기금 마련 행사

2002년 필자가 워싱턴대학교 도서관에 처음 부임했을 때, 서고의 한쪽 구석에는 목록이 되지 않은 오랜된 책들이 정리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며 쌓여있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미처 책 목록을 완성하지 못하고 수십 년간 미뤄 둔 책들이었다. 총 5천 종 이상이나 되는 한국책들은 서명과 저자 출판사항 정도의 간략한 책 정보만을 가지고, 이용자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 이용만 가능토록 해 둔 열악한 상태였다.

2015년 말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이 비목록화된 자료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목록 작업이 시작되었다. 목록 사업을 수십 년만에 시작할 수 있게 된 계기에는 워싱턴대학의 한국 목록사서로 근무하고 계신 유혜자 사서의 도움이 무엇보다도 컸다. 유 사서는 개인 자금을 털어 도서관에 기증함으로써 한국책 특별 목록 기금에 든든한 기반을 세웠기 때문이다. 총 목록 비용의 절반을 기부했고, 2016년과 2017년 두 해에 걸쳐 목록 기금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금의 목적 달성을 수월하게 끝마칠 수 있었다. 실질적인 목록 작업은 2018년 여름에 모두 완성했다. 이 일을 위해 시애틀 한인 커뮤니티의 도움을 대거 받았으며, 동시에 워싱턴대학교의 한국장서에 대해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

무엇보다도 목록 프로젝트의 가장 큰 의의는 새롭게 발견하게 된 귀중 도서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와 처음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이라 하겠다. 5천 종의 책 중에서 약 2천 종의 책이 워싱턴대학에서만 소장하고 있는 자료였고, 이 자료들은 목록을 통해 처음으로 OCLC에 등록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연도 별로 살펴보면 약 550종 정도는 1900이전부터 1950년 사이에 출판된 자료들로 귀중서들이 많다. 주제별로 보면 문학관련 자료가 가장 많고, 역사 철학 등의 자료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1950년 이전에 출판된 한국 근대문학 자료 중 200종 정도는 소장가치가 높은 중요한 책들이다.

외국의 작품을 번역한 책도 다수 눈에 뜨인다. 1907년에 출판된 <월남망국사>, 1914년 하와이 국민보사에서 출판한 <아메리카 혁명>, 투르게네프의 원작을 번역한 홍난파의 <첫사랑>, 아서 고난 도일의 번역 본 <붉은 실>, 영국 시인 바이런의 <바이론 시집>, 소설가 박태원이 번역한 <수호전>, 타고르의 시집을 번역한 김억의 <키탄자리: 들이는 노래>,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초창기에 출간한 잔다르크 전기인 <여걸 쟌닥크= Jean D. Arc>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1908년 출판된 이인직의 신소설 <은세계>, 정지용의 첫 시집인 1935년도 <정지용 시집>, 최남선의 <시문독본>, 임화가 편집한 <현대조선시인 선집>, 현진건의 <적도>, 한설야의 <황혼> 및 <한설야단편선>, 이태준의 <서간문 강화>, 김탁운의 <김탁운의 야담집>, 안회남의 <탁류를 헤치고>, 김동인의 <아기네>, 김상덕의 <안해의 결심>, 김내성의 <태풍>등 1930-40년대의 다양한 문학 작품들이 있다.

새로 발견하게 된 이 귀중서들은 목록 정리후 보존을 위해 워싱턴대학 동아시아 도서관의 스페셜컬렉션에 따로 보관중이다.

4. 향후 비젼과 계획

가까운 미래에 워싱턴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 근대문학 관련 스페셜 컬렉션을 종합 정리한 책을 출판해, 미처 알려지지 못한 자료들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책으로 엮음으로서 해외에 소장된 한국 장서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어 혹시라도 몇 십 년 후에 없어질지 모를 한국의 책 유산을 또 다시 책의 기록으로나마 보존하고자 한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연계해서 아직 미처 정리되지 못한 1900년대 이전의 한국 고서들도 목록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해외사서워크샵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립중앙도서관과 간단히나마 논의를 했고, 수 년 안에 워싱턴대학에 한국 고서 자료 조사단이 파견되어 프로젝트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무려 75년 넘게 체계적으로 잘 구축해 온 장서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한국학의 디지털 스칼라십 발전을 위해 연구자들이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책과 논문 중심의 장서 개발은 물론, 디지털 포맷으로 생성된 자료 및 연구 데이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수집에 나설 계획이다. 기존의 수집 대상에서 벗어났던 뉴 미디어 자료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수집 대상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방대해져 가는 시점이지만, 대학 연구 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인 한국학의 발전이라는 동일한 목표 의식을 갖고 계속해서 연구자를 위해 서비스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로마 라 사피엔자 대학교의 한국학 장서

파비오 스타씨(Fabio Stassi)

동양학부 도서관장
로마 라 사피엔자 대학교

안토넬라 팔레리니(Antonella Fallerini)

한국학 사서
로마 라 사피엔자 대학교

1. 로마 라 사피엔자 대학교

사피엔자(Sapienza)는 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큰 대학교 중 하나로 현재 112,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교수, 직원, 기술 전문가 등 8,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90년대 말에 진행된 조직 재정비에 따라 학위 프로그램의 수와 인프라가 증대되었다. 2010년에 우리 대학은 합리화 및 학업 중심 원칙에 따라 새로운 정관을 채택했다. 11개 학부는 학사를 조율하며 감독하고, 59개 학과가 교육과 연구 활동을 맡았다.

2019년 2월 27일에 발표된 QS 세계대학 학과별 순위(QS Ranking by Subject 2019)에서 사피엔자는 고전 및 고대사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탈리아의 대학 중에서 이와 같은 세계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곳은 사피엔자가 유일하다. 우리 대학은 또 고고학 11위, 물리학 및 천문학 34위, 도서관정보관리학 43위를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우리 대학은 21개 학과가 상위 100위 안에 올랐는데, 이는 2018년 16개 학과에서 증가한 것이다. 상위 50위에 4개 학과가 포함된 것에 더하여, 화학공학, 지리학, 의학, 통계학·오퍼레이션리서치, 해부생리학, 인류학, 컴퓨터·정보시스템학, 개발학, 토목구조공학, 기계공학·항공학·제조공학, 전기전자공학, 역사학, 법학, 수학,

현대언어학, 약학, 신학·종교학이 처음으로 포함되는 등 17개 학과가 100위 안에 올랐다.

사피엔자의 55개 도서관은 상호대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관 장서는 약 2,600,000권의 고서 및 현대 도서와, 연속간행물, 데이터베이스, 전자 및 멀티미디어 자료로 구성되며, 사피엔자 도서관시스템(SBS, Sapienza Library System)으로 관리된다.

2. 대학의 역사

2.1 로마 라 사피엔자 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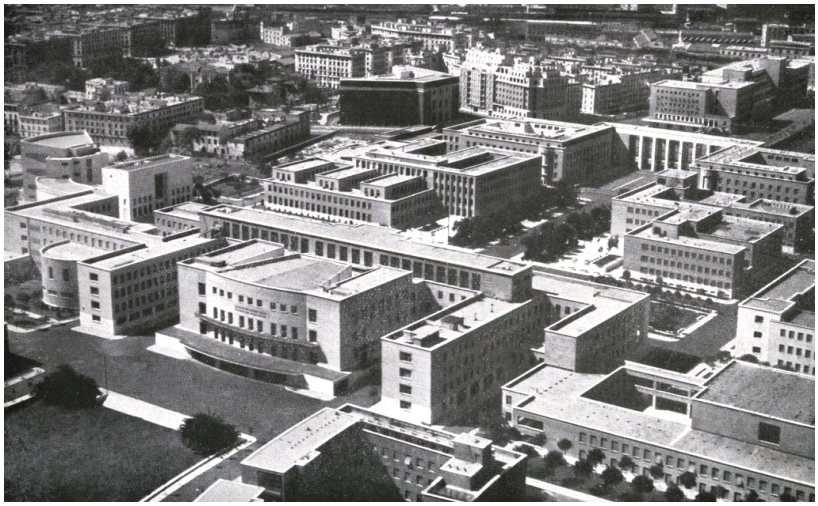
1303년에 교황 보니파시오 8세(Pope Boniface VIII)가 교황의 공인서(*In suprema praeminentia dignitatis*)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로마 최초의 대학인 스투디움 오르비스(Studium Urbis, 도시의 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대학교는 성직자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전 세계로부터 이 학교에 온 여러 학자들과 로마 시의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바티칸 외부에 세워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투디움 오르비스는 점차 명성을 쌓아갔다. 1363년부터는 로마 시에서 상설 보조금을 받기 시작했고, 트라스테베레 지역에 자리한 캠퍼스가 비좁아질 정도로 성장했다. 1431년에 교황 유진 4세는 대학을 정비하고 오늘날 로마의 중심가인 판테온과 피아자 나보나 사이에 있는 리오네 산테우스타치오의 건물들을 매입했다.

스투디움 오르비스는 1660년에 코르소 리나시멘토에 있는 새 건물로 자리를 옮겼고, 그 건물의 정문 위에 새겨진 글귀(*Initium Sapientiae timor Domini; 지혜(Sapientiae)의 시작은 신에 대한 두려움이다*)를 따서 사피엔자로 불리게 되었다.

[사진 1] 산티보 알라 사피엔자(Sant'Ivo alla Sapienza)

1667년에 교황 알렉산더 7세가 알레산드리나 도서관(Alessandrina Library)을 설립했다. 이 도서관은 아직까지 대학 캠퍼스 내에 있으나 정부의 문화유산부(Ministry of Cultural Heritage)에서 관할한다. 1차 세계대전 후 사회적 갈등으로 이탈리아에는 파시즘 독재 정부가 들어섰다. 대학교와 각급 학교를 선전 선동의 도구로 간주한 파시즘 정부는 1931년에 대학의 모든 학장들을 소집하여 무솔리니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하게 했다. 이를 거부한 사람들은 해고되었다. 1,200명 중 단 12명의 교수만이 용감하게 독재 정권에 맞섰다. 이 중에는 네 명의 사피엔자 교수들이 포함되었는데, 이들은 에르네스토 부오나이티(Ernesto Buonaiuti) 기독교사 교수, 조르지오 레비 델라 비다(Giorgio Levi della Vida) 동양학 교수, 비토 볼테라(Vito Volterra) 수학 및 물리학 교수, 가에타노 드 산크티스(Gaetano De Sanctis) 고대사 교수였다. 다른 몇몇 교수들은 정부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조기 퇴직했다. 이 기간 동안 '시타 유니베르시타리아(*Città universitaria,* 대학교 도시)'라 불리는 새로운 대학 캠퍼스가 건설되었다. 마르첼로 피아치니니(Marcello Piacentini, 1881-1960)가 설계하여 1935년에 문을 연 이 캠퍼스는 현재 사피엔자의 본 캠퍼스로 이용되고 있다.



[사진 2] 시타 유니베르시타리아

20세기 후반에는 일부 학과가 캠퍼스 밖의 유서 깊은 건물이나 복원 건물에 둥지를 틀었다.

우리 학과도 그 중 하나인데, 동양학과(Institute of Oriental studies)가 있는 건물은 26,500평방미터에 달하는 구 우체국 창고 건물을 개조한 것으로 현재 “마르코 폴로”라고 불린다.

[사진 3] 동양학 도서관(The Oriental Studies Library)

2.2 오리엔탈 스쿨(The Oriental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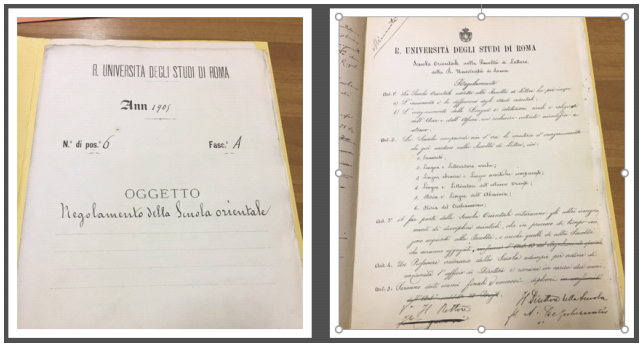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 된 대학 중 한 곳으로, 동양어 교육의 유서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다. 16세기와 17세기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에 더해 히브리어와 아랍어, 시리아어 등 셈족 언어를 특히 중시했다. 극동어 교육의 증거는 1879년에 처음 등장하는데, 일본어 전공자인 카를로 발렌지아니(Carlo Valenziani, 1879-1896)가 교수직에 임명된 것이다. 그의 뒤를 이은 로도비코 노센티니(Lodovico Nocentini) 교수는 오리엔탈 스쿨의 창립 멤버로 중국어를 전공했다.

19세기 초는 이탈리아에서 동양학 발전의 전환점이 된 시기였다. 1903년에 안젤로 데 구베르나티스(Angelo De Gubernatis, 1840-1913) 산스크리트어 교수, 셀레스티노 스키아파렐리(Celestino Schiaparelli, 1841-1919) 아랍어 교수, 이그나시오 귀디(Ignazio Guidi, 1844-1935) 히브리 및 셈족 언어 교수, 로도비코 노센티니(1849-1910) 중국어 교수, 발다사레 라반카(Baldassare Labanca, 1829-1913) 기독교사 교수들에 의해 로마에 오리엔탈 스쿨이 설립되었다.

이 스쿨의 운영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과목들이 제공되었다.

1. 산스크리트어
2. 아랍어 및 문학
3. 히브리어 및 비교 셈어
4. 극동어 및 문학
5. 아비시니아 역사와 언어
6. 기독교사

오리엔탈 스쿨의 첫 학장은 안젤로 데 구베르나티스 교수가 맡았다.


R. UNIVERSITÀ DEGLI STUDI DI ROMA

Anno 1905

N.° di pos.° 6 Fasc.° 4

OGGETTO

Regolamento della Scuola orientale

R. UNIVERSITÀ DEGLI STUDI DI ROMA

[사진 4] 오리엔탈 스쿨의 운영 규정

오리엔탈 스쿨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도서관 운영이었다. 처음에는 도서관 장서가 대부분 아랍어와 문학, 이슬람 기관들의 역사에 관한 자료들로 구성되었다. 도서관 설립 이후 교수들이 책을 기증하거나 도서관이 그 후손들로부터 구입하면서 교수들의 개인 장서가 도서관 장서의 기반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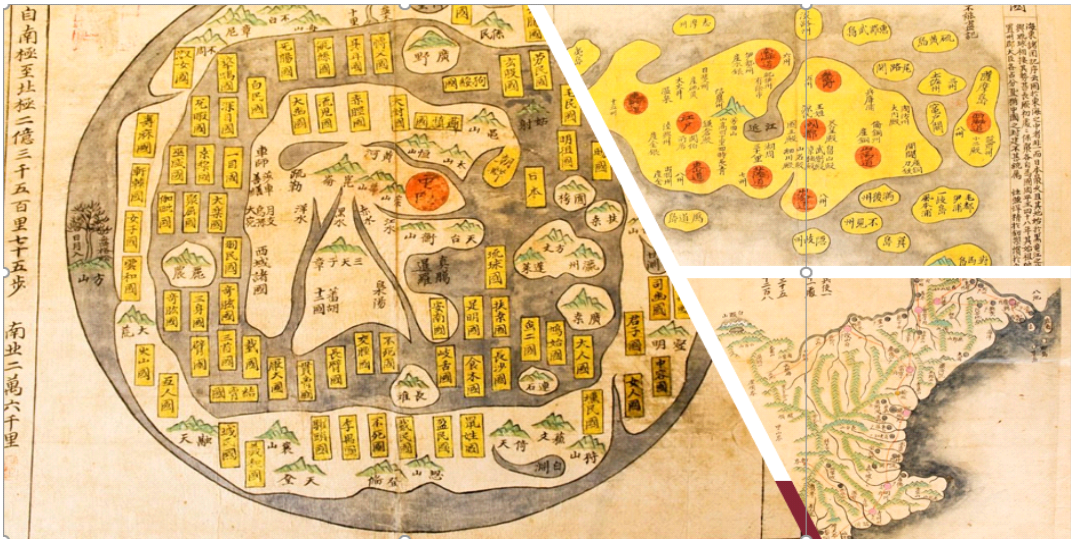
오리엔탈 스쿨의 또 다른 업무는 1907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활발하게 발행되고 있는 오리엔탈 스쿨의 잡지인 Rivista degli Studi Orientali를 발간하는 것이다(최신호 XCI 2018).

1960년에는 이곳의 학제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이 그룹들이 각각 고대극동학과(Institute of Ancient Near East), 이슬람학과(Institute of Islamic studies), 인도·동아시아학과(Institute of India and East Asia studies)가 되었다. 당시 오리엔탈 스쿨은 이 세 학과를 운영하면서 저널 편집 및 도서관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1982년에는 이 세 기관이 다시 동양학과로 통합되었다가 2001년에 동양학부(Faculty of Oriental Studies)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동양에 대한 지식 수요가 확산되고 당시 3년제와 석사학위 과정으로 제공되었던 동양어와 문명(Oriental Languages and Civilisations)에 등록하는 학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 학부는 40개 학제를 언어, 철학, 고고학, 역사·미학, 철학·종교 및 역사학의 다섯 분야로 나눈 후, 각 분야를 다시 고대근동, 이슬람, 남아시아 및 남동아시아, 극동의 지리문화적 구분에 따라 세분했다. 2010년에 동양학부는 다시 학과 단위인 이탈리아 동양학과(The Italian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로 변경되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2.3 학과 도서관

이탈리아 동양학과 도서관(Library of the Department Italian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은 현재 마르코 폴로관 2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아랍어에서부터 페르시아어, 히브리어, 시리아어, 산스크리트어, 타밀어, 우르두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에티오피아어, 몽골어, 터키어, 티그리냐어, 콥트어, 아르메니아어, 조지아어, 힌두어, 벵갈어, 티베트어, 베트남어 등 30여 개 동양어로 된 자료 130,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또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주로 아랍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된 고문서 및 필사본과 15세기 중국과 한국지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도들이 있다.



[사진 5] 15세기 한국 지도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희귀본 중에는 1593년에 인쇄된 아비켄나(Avicenna)의 의학 논문, 1618년에 브라가딘(Bragadin) 출판사에 의해 베니스에서 인쇄된 히브리어 성경(총 4권), 다양한 중국의 이야기책들(1590년, 1670년, 1777년),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상트페테르부르그의 코란 희귀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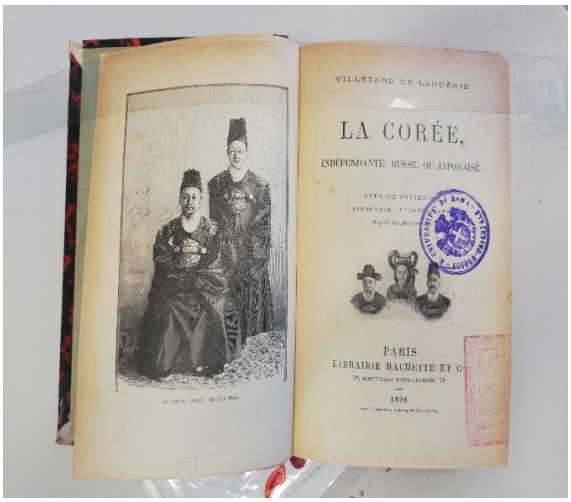
우리 도서관의 장서는 매우 다양하여, 고대 근동과 이집트에서부터 동아시아까지 걸쳐 있으며, 아랍어와 이슬람어에 특화되어 있으며, 이탈리아의 저명한 학자인 줄리아노 베르 투치올리(Giuliano Bertuccioli, 1923-2001)의 개인 장서를 취득한 이후로는 중국어 자료에도 특화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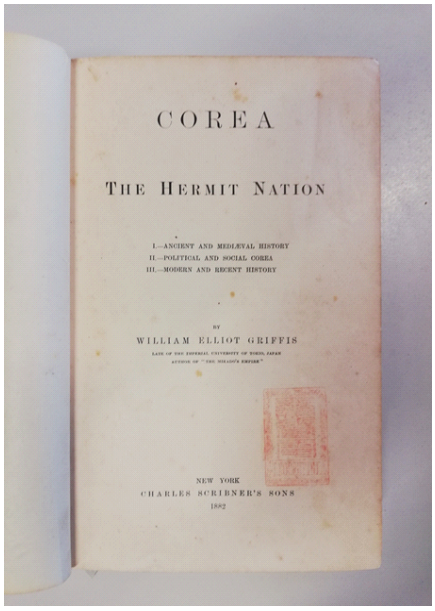
또 미켈란젤로 귀디(Michelangelo Guidi), 셀레스티노 스키아파렐리(Celestino Schiaparelli), 줄리오 체사레 텔로니(Giulio Cesare Teloni), 루치아노 피터(Luciano Petech), 파올로 다피나(Paolo Daffinà) 등의 개인 장서들도 우리 도서관의 중요한 장서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유산은 이 도서관이 사피엔자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이며, 전세계의 모든 동양학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학의 경우, 앞서 언급한 지도를 제외하고 한국어 섹션에서 가장 오래된 서적들은 1883년부터 1888년까지 상하이에서 통역사로 일했던 로도비코 노센티니(Lodovico Nocentini)의 것이다. 노센티니는 극동에 관한 책을 다수 구입했는데 대부분이 중국에

관한 책이었으나 일본과 한국에 관한 책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1920년대에 오리엔탈 스쿨이 구입한 이 책들에는 노첸티니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사진 6] 노첸티니의 붉은색 장서표가 날인되어 있는 책 2권

현재 한국에 관한 도서는 도서관 내의 COR(이탈리아어 *Coreano(한국)*의 약어) 섹션과 "한국자료실"을 의미하는 WOK 섹션에서 찾을 수 있다. WOK 섹션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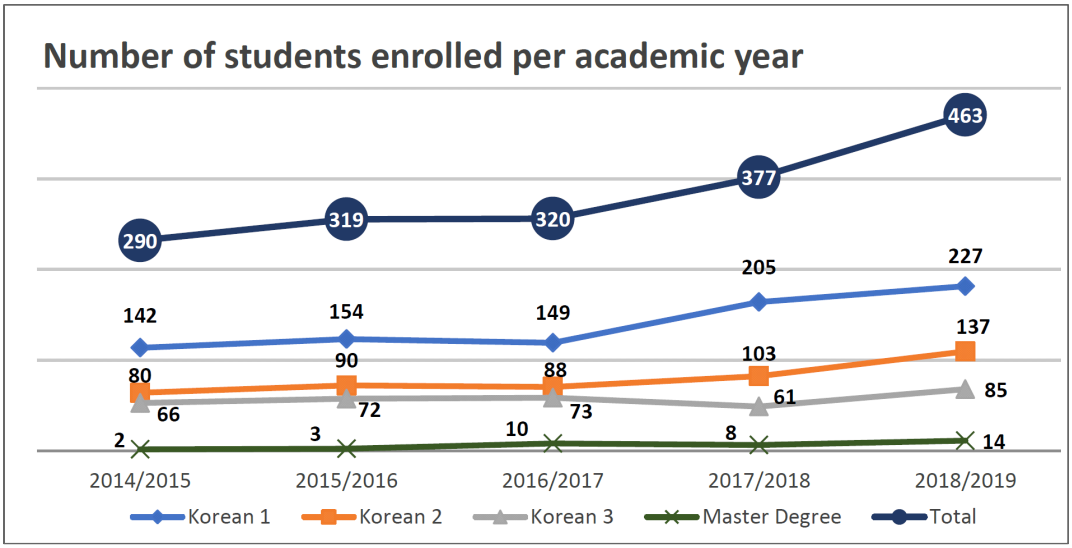
3. 한국학

3.1 교육과정

동양학부를 수립하면서 교육을 확대하고자 2001년에 한국 언어와 문학 과장직(Chair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첫 한국어 강의가 동양학부 학생들에게 제공되었다.

현재는 학과 소속 교수 1명과 연구자 1명 그리고 한국어 강사 2명이 3년제 및 석사 학위 과정에서 연 평균 7개의 강의(한국 언어와 문학, 근현대 한국의 정치사회사, 한국 문명사)를 제공하고 있다.

아래 도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난 5년간 한국어 강의의 수강생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1] 연도별 한국어 강의 수강생 수

서울에 소재한 한양대학교와의 협정을 통해 석사과정 수업에 등록한 학생들은 석사 2년차에 한양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복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3.2 한국학 장서

우리 도서관의 한국학 장서는 도서관 직원 구성이 바뀌고, 이탈리아의 국가 카탈로그 SBN와 연결된 전자카탈로그를 통해 목록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지속적으로 도서를 지원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은 2010년에 한국학 자료 보급사업에 참여하여 매년 한국어와 서양어(주로 영어)로 된 자료들을 제공받고 있다.

2018년에는 우리 학과가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자료실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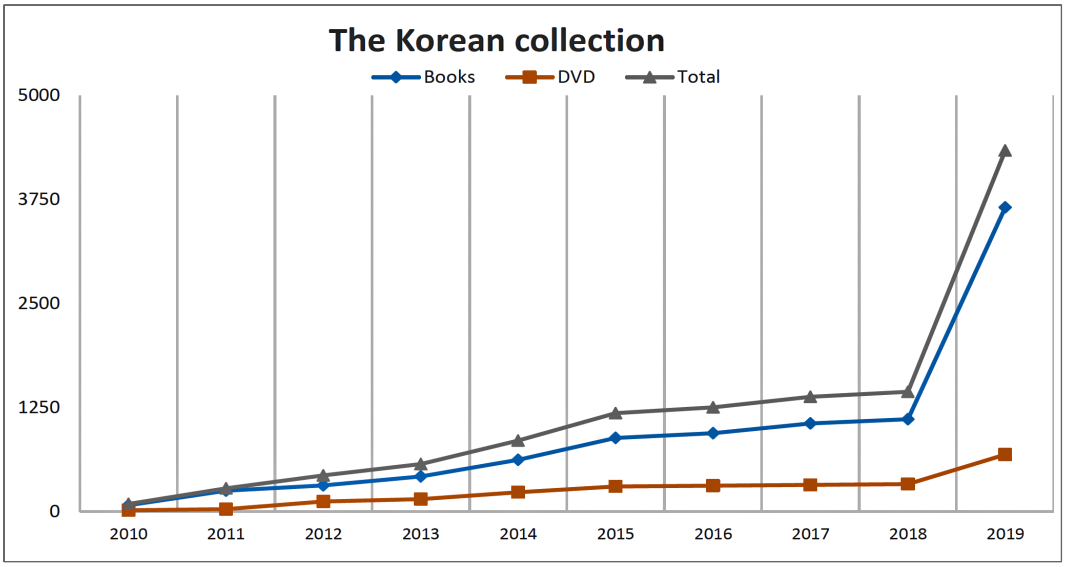
이 사업을 통해 우리 도서관은 책과 DVD 등의 자료와 함께 한국자료실 설치에 필요한 가구와 책장을 지원받았다. 개실행사에는 한국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했다.

2018년 8월에 우리 도서관은 한국어와 기타 언어로 된 도서 2,485권과 DVD 354점이 담긴 상자 89개를 기증받았다. 이로써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서 기증받은 한국 영화와 다큐멘터리 330점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 장서가 더욱 확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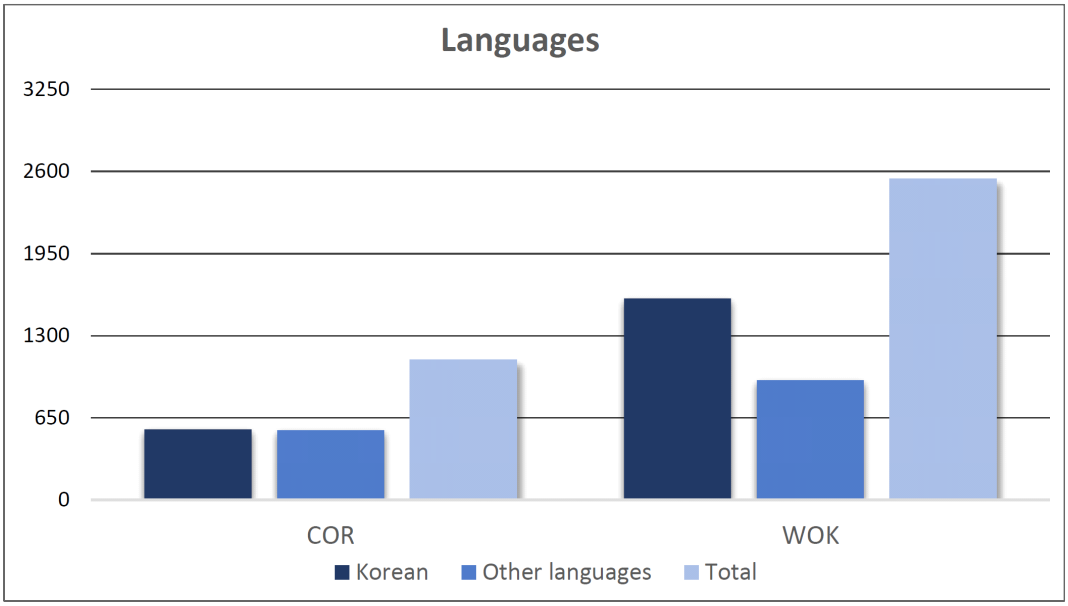
현재는 모든 책들이 목록화되어 이탈리아의 국가 OPAC와 사피엔자 OPAC에서 서지 레코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 7]과 [사진 8] 한국자료실의 모습

아래 도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탈리아 동양학과 도서관의 도서와 비도서 자료의 증가 현황을 보여준다.



[그림 2] 동양학도서관 도서량의 증가 현황.
한국자료실 사업으로 2019년에 자료 수가 크게 증가했다.



[그림 3] 도서관 내 한국학 서적이 보관되어 있는 두 섹션의 언어별 자료 분포
(한국어와 기타 언어)

4. 한국자료실

한국자료실은 개가식 서가의 개념을 적용하였고,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주제별로 서가의 표시인 “WOK”에 A부터 H까지의 알파벳을 붙였다.

A: 한국어(문법, 안내서, 교과서)

B: 문학, 하위 범주로 나뉨

B 1: 한국 문학, 한국어

B 2: 한국 문학, 기타 언어

C: 과학

D: 역사 및 지리(정치와 경제 포함), 하위 범주로 나뉨

D 1: 역사 및 지리, 한국어

D 2: 역사 및 지리, 기타 언어

E: 철학과 종교, 하위 범주로 나뉨

E 1: 철학과 종교, 한국어

E 2: 철학과 종교, 기타 언어

F: 문화와 사회(음악, 연극, 영화 포함), 하위 범주로 나뉨

F 1: 문화와 사회, 한국어

F 2: 문화와 사회, 기타 언어

G: 미술, 하위 범주로 나뉨

G 1: 미술, 한국어

G 2: 미술, 기타 언어

H: 아동 도서.

볼로냐 아동도서전(Bologna Children’s Book Fair)에서 기증받은 한국어로 된 아동도서도 이 섹션에 포함되어 있다. 볼로냐 아동도서전은 2018년에 대구 문화방송과 협력하여 한국의 아동도서 삽화가 77명의 작품을 보여주는 전시회를 개최했다. 도서전이 끝난 후에는 한국 도서들을 우리 도서관에 기증하여 WOK에 포함되도록 했다.

DVD와 CD는 별도의 전용서가에 보관되어 있다.

우리는 2019년도 한국학 자료 보급사업을 통해 200여 점을 주문했는데, 이번에는 음악 CD(K팝)과 영화, 아동도서, 청소년 도서에 초점을 맞추었다.

5. DREAM 프로젝트

이탈리아의 국가 카탈로그에는 라틴어 외의 언어로 된 스크립트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스크립트의 서지기술 요소들은 삽입될 수가 없다.

2019년 2월에 우리 학과는 대학 당국으로부터 DREAM(Data Recording Entry Alternative Multi-script, 데이터 기록 입력 대체 다중스크립트) 프로젝트를 위한 연구직(12개월) 예산과 함께 26,000유로를 지원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학과의 사서 및 교수들과 사피엔자 도서관 시스템 및 학과를 포함해 사피엔자 내 다수의 학술 단위들이 협력하여 기획하고, 교수진과 기술 전문가들의 연구 능력과 기술 능력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한 것이다.

DREAM 프로젝트의 목적은 비라틴어 스크립트(아랍어, 중국어, 히브리어, 힌두어, 일본어, 한국어, 페르시아어, 러시아어, 산스크리트어)로 된 서지 자료들을 목록화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수십 년 동안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의 발전 상황에 이탈리아가 발맞추어 나가고, 국내외의 연구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그동안 표준을 따르지 않아 단지 번자를 통해 엿볼 수 밖에 없었던 귀중한 유산을 전세계인들이 보다 잘 향유할 수 있도록 그 가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이 프로젝트는 비라틴어 스크립트를 위한 연구 도구(메타-OPAC)를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도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수의 국가기관들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목록화 시스템은 국제표준을 따름으로써 비슷한 요건과 필요를 공유하는 국내외 기관들의 서지 기술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사피엔자의 온라인 카탈로그를 갱신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원본 스크립트로 된 데이터를 국가 SBN(국가서지시스템) 종합카탈로그로 이동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잠재성을 갖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는 오픈액세스 데이터로 공유될 것이다.

도서관 직원들은 한국자료실의 한국 서적들을 목록화하면서(2018년 9월-2019년 3월) 그것을 이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도록 원본 스크립트로 된 표제명과 저자명을 로컬 카탈로그에 이미 포함시키고 있었다. 이 서적들은 현재 사피엔자 OPAC에서 검색 가능하다.

한국자료실 개실 행사 동양학부 도서관장 축사

2018년 10월 16일

한국 정부와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로마대학교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표단과 귀빈 여러분,

이탈리아의 최남단에 있는 람페두사섬으로 여행을 갔을 때 그곳에서 저는 몇몇 아이들에게 책이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책이 찻주전자와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아주 놀랐고, 그 아이에게 아주 아시아적인 대답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이 항구에서 뜨거운 차를 대접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온 여성과 아이들을 환영하는 자원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책은 이 아이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의 것이었지요.
두 번째 아이는 책이 섬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가하고 물었더니 아이는 (제게 직접 보여주면서) 책을 옆에서 보면 절벽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책은 시칠리아나 람페두사와 같은 섬이나 한국과 같은 반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또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책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껴안는 것처럼 열려요.'라고 하더군요.
생각해 보시면 정말 맞는 말이지요! 책을 읽으려면 껴안는 것처럼 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있는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과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 동양학과 도서관 간의 협정은 양국 간의 작지만 중요한 껴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한국의 언어와 문학, 철학, 종교, 예술과 사회를 보다 많이 접하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문화 교류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이 한국자료실이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국립중앙도서관 관장님,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원장님,

동양학부 스테파노 아스페르티 학장님, 알레산드라 브레찌 학과장님,

이 프로젝트를 제안해주신 안토네타 브루노 교수님, 그리고 브루노 교수님의 언어 도우미로 우리에게 한글을 가르쳐주시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정말 수고해주신 김은정님, 감사합니다.

저는 또 특히 우리 도서관의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서관 직원들은 지난 두 달간 이 자료실에 있는 모든 책들을 이제 곧 완성될 국립도서관시스템 카탈로그(Catalogue of the National Library System)에 목록화하고 정리하시느라 애써주셨습니다.
MARC 파일을 전송(원어로 표제명을 넣는 작업을 포함해)하는 것과 같은 여러 프로젝트에서 인내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와 협력해주시는 대학도서관 시스템(University Library System) 직원들께도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일의 주요한 대상인 모든 학생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이 탄생하거나, 이곳과 같은 자료실이 생겨날 때마다 작은 거북 알이 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테이블에 놓았던 것과 같은 큰 지도에 작은 점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평화와 학습의 장소들이 이 지도에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시민의식과 정체성을 복원할 수 있는 장소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파비오 스타씨 동양학부 도서관장

[사진 9] 한국자료실 개실 행사

히브리대학교의 한국학 장서

하녹 로니저(Hanoch Roniger)

아시아학 주제전문가 겸 기술서비스 담당사서
히브리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블룸필드도서관
hanochr@savion.huji.ac.il

초록

이 글에서는 히브리대학교(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의 한국학 발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블룸필드도서관(Bloomfield Library)의 한국학 장서를 살펴볼 것이다. 한국학 장서는 히브리대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 특히 인문대학 아시아학과 교수 및 학생들에게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히브리대학교와 아시아학의 발전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한국학의 현황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그런 다음, 인문사회과학대학 블룸필드도서관의 구조와 아시아 자료 전반, 특히 한국학 자료를 분석할 것이다. 또 아시아학과, 한국국제교류재단, 최근에 시작된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히브리대학교 한국학 장서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이 글을 마칠 것이다.

1. 히브리대학교

1.1 개요

1918년 설립되어 1925년에 문을 연 이스라엘 히브리대학교는 이스라엘의 선도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 자리잡았으며, 상하이 대학랭킹에서 100대 우수대학에 선정되었다(2018년 현재 95위). 예루살렘에 마운트스코퍼스(Mt. Scopus), 기밧트 람(Givat Ram),

아인 카렘(Ein Karem)의 3개 캠퍼스가 있고(아인 카렘은 하다사병원(Hadassah Hospital)과 연계되어 있음), 레호보트(Rehovot)에 1개의 캠퍼스가 있다. 현재, 7개 단과대학과 14개 학부, 200여 개의 전공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973명의 연구원과 23,500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다.

우수한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는 우리 대학의 교수들은 노벨상 8개, 울프상(Wolf Prize) 14개, 에메트상(EMET Prize) 46개, 로스차일드상(Rothschild Prize) 100개, 이스라엘상(Israel Prize) 294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홀버그상(Holberg Prize) 1개, 수학 분야의 필즈상(Fields Medal) 1개, 컴퓨터과학 분야의 튜링상(Turing Award) 1개, 캐나다 가드너 국제상(Canada Gairdner International Award) 1개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국제화를 목표로 24개국 95개 학술기관과 200여 개가 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44개국과 300여 개의 학술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현재 26개국에서 온 수백 명의 박사 후 과정 연구원과 로스버그 인터내셔널스쿨(Rothberg International School)에 90여 개국에서 온 2천여 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다.

1.2 히브리대학교의 아시아학

1926년에 설립된 아시아아프리카학연구소(Institute of Asian and African Studies)는 우리 대학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기관 중 하나이다. 초기에는 고대 이슬람 문명과 고전 아랍어의 연구 및 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나 차츰 다른 아시아 문명과 언어로 확장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학 연구는 현대 중동학, 인도학, 아르메니아학 및 아프리카학과 발맞추어 발전했다.

동아시아학은 1950년대 말에 우리 대학에서 처음 제공되었는데 당시에는 중국 역사와 문명을 중심으로 하였다. 1968년에는 중국학 강의를 이끈 해롤드 즈비 쉬프린(Harold Zvi Schiffrin) 교수와 미국에서 온 일본학을 주도한 고(故) 에이브라함 (앨버트) 알트만(Avraham (Albert) Altman) 교수가 함께 중국일본학과(Department of Chinese and Japanese Studies)를 설립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학과는 그 사명을 점차 확장하여 동아시아학과(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로 이름을 바꾸었고, 2011년에 다시 아시아학과(Department of Asian Studies)로 개명했다. 거시적인 사명의 차원에서 우리 대학은 한국학을 아시아 연구와 아시아학 커리큘럼의 중요한 부분으로 통합시켰다.

1.3 히브리대학교의 한국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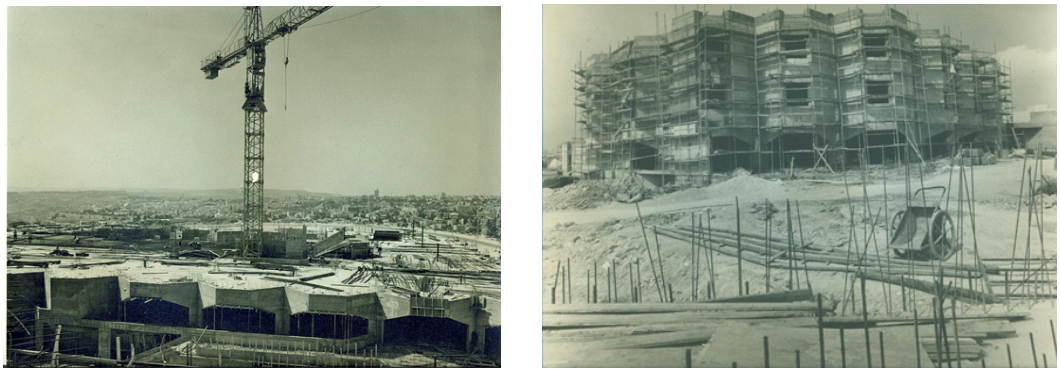
한국학은 1992년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설치되었다. 처음에는 아시아학과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초급자를 위한 한국어 강의를 2개 개설했다. 한국어 강의는 학부 2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과목으로 제공되었다. 2008년에 아시아학과는 학부 부전공으로 한국학을 개설했으며, 2016년부터 학부 전공이 개설되었다.

2019년에는 식민지 시대 한국문학을 전공한 이주연 박사가 한국학 연구자로서는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종신재직권을 받았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한국학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히브리대학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2. 인문사회과학대학 블룸필드도서관

2.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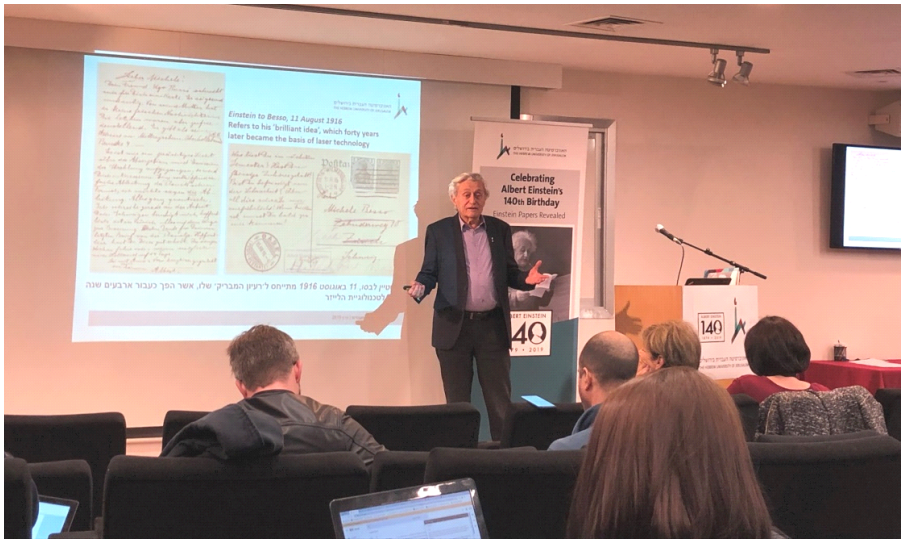
인문사회과학대학 블룸필드도서관은 히브리대학교 도서관에 속해 있다. 이 도서관은 1981년에 에드몬드 J. 사프라 캠퍼스(기바트 람)의 학과 도서관 24개를 예루살렘 마운트 스코퍼스 캠퍼스에 있는 한 건물로 통합시키면서 탄생했다.



[사진 1] 마운트 스코퍼스 캠퍼스에서 도서관 건물을 신축하는 모습

우리 대학은 같은 기간에 여러 도서관의 장서를 통합하고 모든 도서관의 장서에 적합한 통합된 카탈로그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ALEPH라 불리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후에 매각되었으며, 히브리대학교 도서관을 비롯해 전 세계 1,000여개 기관에서 사용하는 '알마(Alma)' 통합 도서관 시스템으로 발전하여 결과적으로 엑스-리브리스(Ex-Libris) 회사의 뼈대가 되었다(Ex-Libris Group,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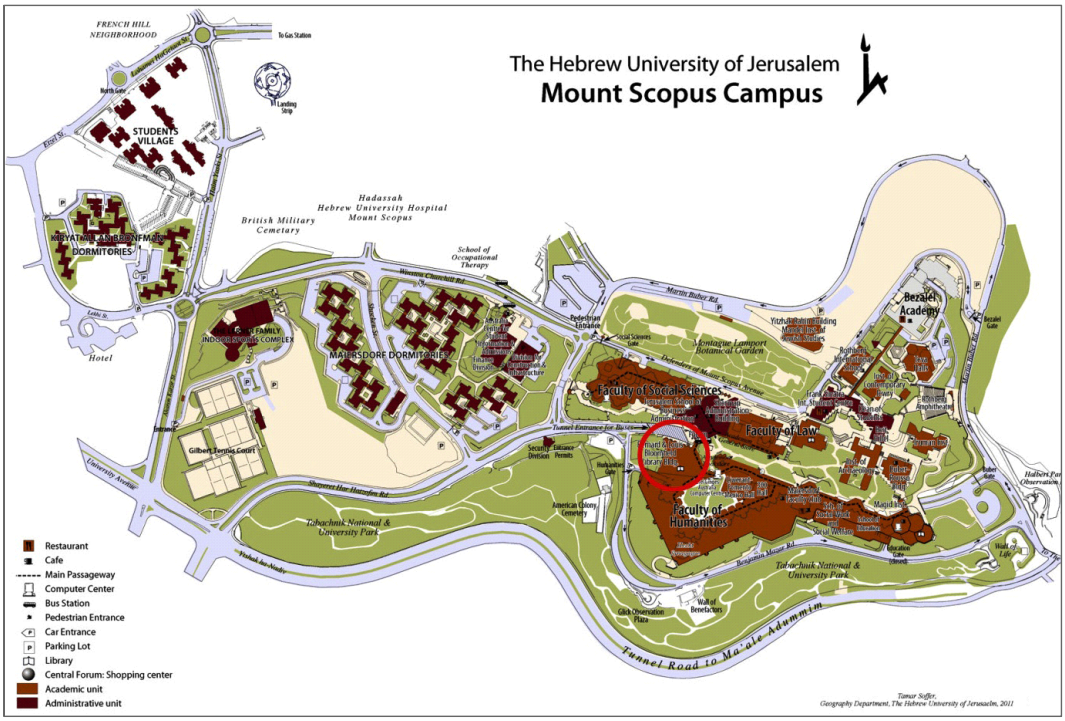
2002년에는 4개 캠퍼스에 걸쳐 있는 히브리대학교 도서관들을 관리하기 위해 도서관사무국(Library Authority)이 설립되었다. 마운트 스코퍼스 캠퍼스에는 인문사회과학대학 블룸필드 도서관과 함께 교육사회복지 도서관(Education and Social Work Library), 법학도서관(Law Library), 고고학도서관(Archaeology Library)이 있다. 에드몬드 J. 사프라 캠퍼스에는 하먼과학도서관(Harman Science Library), 수학컴퓨터과학도서관(Mathematics and Computer Science Library), 앨버트아인슈타인아카이브(Albert Einstein Archives)가 있다. 뮤리엘필립버만의학도서관(Muriel and Philip Berman Medical Library)은 아인 카렘 캠퍼스에 있다. 레호보트 캠퍼스에는 농업식품환경도서관(Library of Agriculture, Food and Environment)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 2] 앨버트아인슈타인 아카이브의 학술부장인 하녹 굿프렌드(Hanoch Gutfreund) 교수가 앨버트 아인슈타인 탄생 140주년을 기념한 기자회견에서 신착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다. 2019년 3월 6일 (사진: 차야 베커(Chaya Becker))

마운트 스코퍼스 캠퍼스에는 또 몇 개의 다른 도서관이 있는데, 이들은 도서관사무국 소속은 아니지만 통합된 온라인 카탈로그를 공유한다. 여기에는 시각장애인학습센터(Learning Center for the Blind Library), 이마재단 유네스소라야 프리아카데미 도서관(Younes & Soraya Nazarian Pre-Academic Library of the Ima Foundation), 로스버그 인터내셔널스쿨도서관(Rothberg International School Library), 해리 S. 트루먼 평화연구소(Harry S. Truman Research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Peace)의 로베르타스 탠리보겐 도서관 및 자료센터(Roberta and Stanley Bogen Library and Documentation Center)가 있다. 그 외에도 마운트 스코퍼스 캠퍼스에는 히브리대학교 중앙아카이브(Central Archive of the Hebrew University), 스티븐 스필버그 유대인영화아카이브(Steven Spielberg Jewish Film Archive), 이스라엘 구어 씨어터 아카이브 및 박물관(Israel Goor Theatre Archives and Museum)이 자리하고 있다.

인문사회과학대학 블룸필드도서관은 캠퍼스 중앙에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 사이에 위치한다.



[그림 1] 마운트 스코퍼스 캠퍼스 지도.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이 블룸필드도서관

야코프 레흐터(Yaakov Rechter)가 설계한 이 도서관은 5층 규모로, 건평이 15,000 평방미터에 달한다. 3층에는 넓은 로비와 함께 대출데스크, 참고데스크, 지정도서 서가, 정기간행물 열람실이 있고, 또 공식 및 비공식적인 개인/그룹 학습 공간이 있다. 1층에는 도서관 창고가 있다. 2층은 개가식으로 된 사회과학 장서와 미디어부(Media Department)가 있다. 4층과 5층은 개가식 인문학 서가가 있다. 이 도서관은 또 사회과학대학에 있는 지도도서관(Map Library)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도도서관은 현재 본관 건물로 통합되는 단계에 있다. 개인 학습 공간이나 토론실이 필요한 교수와 학생들은 도서관에 있는 학습실을 이용할 수 있다.

[사진 3] 출입층인 3층에 자리한 블룸필드도서관 로비

이 도서관은 인문사회과학 분야, 경영학 분야의 강사와 연구자,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체 대학 구성원뿐 아니라 외국인 방문객과 일반이용자들에게도 열려 있다. 또 대학 정문을 통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서관에 들어올 수 있으며 개가식 서가를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자 중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수백 명의 한국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루에 약 5,000여 명이 도서관을 방문하며 대출데스크는 1일 약 550건의 대출과 450건의 반납을 처리한다.

이스라엘의 관련 법률에 따라 도서관은 접근성을 크게 중시하고 있다. 헤드폰, 큰 키가 장착된 키보드, 장애인용 마우스와 기타 부속품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도록 돕는다. 마찬가지로, 정기간행물부(Periodicals Department)에 있는 단말기들은 시각 장애인용 모니터를 장착하고 있다. 도서관은 또 기부를 통해 장애인용 단말기를 갖추었는데, 이러한 단말기는 2개 층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들 단말기에는 휠체어 이용자나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전자식으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책상이 있고, 시각장애인들이 스크롤링을 많이 하지 않고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대형 모니터가 장착된 PC가 있다.

도서관 자료는 대부분 대출이 가능하다. 이용자들은 한 번에 100권까지 대출할 수 있고, 노트북이나 셀룰러 모뎀, 전자사전, 다양한 언어로 된 키보드, 마우스 등을 빌릴 수 있다. 도서관은 또 책, 논문, 음악, 영화 등 인쇄 자료와 전자 자료의 지정자료 서가를 운영한다. 블룸필드도서관은 서비스를 중시하는 비전에 따라 다른 대학들과 함께 도서관상호대차 서비스와 자료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를 통해 외국 기관들에도 자료를 보낸다. 2018년 11월부터는 무료로 도서관상호대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의 참고서비스부(Reference Department)에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사서가 대면 교육, 전자우편, 전화를 통해 여러 언어로 개인과 집단에 교육을 제공한다. 도서관 자원에 대한 온라인 교육은 MOODLE 학습관리시스템 환경에서 제공된다. 인문학부, 사회과학부, 경영학부에 등록한 재학생들은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2.2 장서

블룸필드도서관의 장서는 인쇄서적 약 600,000권, 전자책 350,000권(여기에는 엡스코 Ebook 컬렉션(Ebsco Ebook Collection), APA PsycBooks, 드 그루이터(De Gruyter), 브릴(Brill), 코그넷(Cognet)과 함께 다른 전자장서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서적, 주제를 불문한 모든 무료 자료들이 포함된다), 인쇄 및 전자 저널 약120,000점(개별 구독지, 패키지, 애그리게이터, 데이터베이스, 무료 전자저널 포함), DVD와 비디오카세트 9,200점,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온라인 영화들, 음향기록과 음악 CD 약 35,000점, 일반 및 주제별 데이터베이스와 전자저널 패키지 230점, 히브리대학교의 관련 학과에

제출된 석사논문 약 5,900편(인쇄본 및 전자본 포함), 히브리대학교의 관련 학과에 제출된 박사논문 약 4,400편(인쇄본 및 전자본 포함), 지도 약 70,000점, 작업치료학 전공자들을 위한 키트 약 20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 평균 약 10,000-15,000 책이 도서관 카탈로그에 추가된다. 여기에는 신착 자료, 기증 자료가 포함된다. 도서관은 신착 자료의 처리와 함께, 우수한 장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일부 장서는 폐기한다. 구독은 이스라엘 국립컨소시엄인 말마드(Malmad)를 통해서 그리고 히브리대학교의 다른 도서관들과 협력 하에 이루어진다. 신규 데이터베이스의 구독은 테스트 기간 동안 사서와 교수들의 평가를 거쳐 승인된다.

장서 개발은 사서와 교수들 간의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주제 전문 사서들은 도서관과 교수들 간의 소통을 조율한다. 도서관은 히브리어, 영어, 아랍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러시아어 등 100여 개 언어로 된 단행본을 소장하고 있다. 또 동아시아어 장서가 모든 주제 영역과 학제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각 학문 영역을 담당하는 주제 전문가가 있다. 교과과정과 연구 목적의 주문 요청은 중요도에 따라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과목별 참고도서 목록, 교수들의 추천자료, 출판사 카탈로그, 전문 간행물, 온라인 정보원에서 자료를 선정한다(Alshech, 2018).

블룸필드도서관은 또 에이브라함 카하나의 유대 문헌 개인서재(Abraham Kahana's personal library of Judaica books), 몬테피오레 장서(Montefiore Book Collection), 월레가-멀더 캔터 장서(Wallega-Mulder Canter Collection), 우빌러 유대문물 장서(Uveeler collection of Judaica artifacts), 희귀본 장서, 아시아어 장서, 만화 장서 등 다수의 특별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사진 4] 블룸필드도서관에 있는 우빌러 유대문물 장서

2.3 도서관의 아시아학 장서

우리 도서관에는 아시아학과 관련된 장서가 2개 있다. 하나는 서구 언어로 된 아시아학 관련 자료 약 36,500종으로 구성된 일반 장서이고, 다른 하나는 2007년에 유리 파인스(Yuri Pines) 교수가 아시아어 인쇄본 저작물로 구축한 장서이다. 이 장서의 목적은 아시아어학과의 상급 학생들을 위해 아시아어로 쓰인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을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 이 장서에는 단행본 10,250책(일부는 여러 권으로 구성됨), 연속간행물 67종, 만화 약 300종이 있다. 도서관은 또 아시아학과 관련하여 12,000여 점의 전자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갖고 있다.

[사진 5] 블룸필드도서관의 아시아어 장서

2.4 목록

목록은 알마통합도서관시스템(Alma unified library system)으로 관리하며, MARC 목록화 표준을 이용하여 목록화하고 미의회도서관 분류표(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Schedule)에 따라 분류한다. 목록은 다중 언어로 되어 있으며, 각 레코드는 해당 자료의 원어와 번자를 포함하여 자료의 스크립트에 따라 히브리어, 아랍어, 영어 또는 러시아어로 목록화된다. 도서관에는 10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된 자료가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번자만이 아니라 원어도 목록에 함께 포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3. 협력

히브리대학교의 아시아학과 아시아 장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서관과 교수진, 외부 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이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연구와 교육, 행사 조직에 필요한 새로운 자원과 자료를 찾기 위해 그러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비전의 일환으로 우리는 히브리대학교의 학생들과 마운트 스코퍼스 캠퍼스를 방문하는 일반인들에게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개발했다.

3.1 아시아학과와의 협력

장서 개발은 교수들의 요청이나 필요와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수들과 상시적으로 의견을 교환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은 한국의 문화와 사회, 역사에 관한 여러 행사를 조직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서예작품 전시, 탈북민 그림 전시, 한국의 소주와 맥주 시음회를 개최했다.

[사진 6] 서예가 “바다” 한동조 씨의 서예작품 전시회, 2016년
(사진: 제이 로즈만-킴(Jey Rosman-Kim))

[사진 7] 탈북민 그림 전시회, 2017년

3.2 한국국제교류재단과의 협력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993년부터 히브리대학교에 한국학 강의 개설을 위한 기금을 제공해왔다. 이 기금은 한국학 강의를 개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스라엘 학생과 일반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몇 년에 걸쳐 수백 종에 이르는 한국 관련 자료를 기증받았다.

3.3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2016년에 우리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사업에 참여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도서관에 한국자료실이 마련될 수 있었고 우리 도서관 장서에 한국에 관한 다수의 중요한 자료들이 추가되었다. 한국자료실은 2018년에 완공되었으며 우리 도서관은 그 해 5월에 개실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김상욱 부장과 김혜린 사서가 참석했다.

[사진 8] 블룸필드도서관 한국자료실 개실 행사에서 발언하는 김상욱 부장
(사진: 금단제(Kumdanje))

[사진 9] 명판 공개식. 왼쪽부터 이스라엘 주재 한국대사관의 최용환 대사, 히브리대학교 애셔 코헨 총장, 국립중앙도서관 김상욱 부장.
(사진: 금단제)

개실 행사에서는 한국 공연단이 참석하여 한국의 전통춤으로 개실을 축하하였다.

[사진 10] 한국자료실 개실을 축하하는 전통춤 공연
(사진: 금단제)

한국자료실 사업으로 우리 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관련 자료의 유형과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는 한국 관련 장서가 단행본 약 300종, 비도서 자료 50점, 연속간행물 22종에 불과했다. 이 사업을 통해 두 차례 자료를 받고 또 구매나 기부, 고인이 되신 교수들의 유품 기증 등을 통해 단행본 4,000여 종, 비도서 자료 180점, 연속간행물 70종으로 한국 장서가 크게 증가했다.

[사진 11] 국립중앙도서관이 후원한 한국자료실

4. 향후 전망

한국학 장서의 개발 초창기부터 인문사회과학 블룸필드도서관은 한국의 문화와 사회, 역사를 증진하는 중요한 구심점으로써 우리 대학의 교수들을 지원하고 주요 자료들을 수집하여 지속적으로 한국학 장서를 발전시켜왔다. 우리 도서관은 도서관이 포괄하는 모든 주제 영역에서 한국 사회와 역사, 문화에 관련된 자료와 정보원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저작권법의 한도 내에서 다양한 포맷으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다른 연구 영역 및 학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다 선진화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며, 컴퓨터 장비에서부터 커뮤니케이션, 정보 접근성에 이르는 충분한 기술 인프라를 통해 폭넓은 접근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용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외 다른 도서관, 학술기관 및 재단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한국과의 협력은 우리가 앞으로 성공적인 발전을 거두는 데 핵심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Alshech, Naomi (2018). *2018 Report to Malmad.*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Bloomfield Library (2016). *2016 library newsletter.* https://mslib.huji.ac.il/sites/default/files/mslib/files/newsletter_2016pdf.pdf

Bloomfield Library (2017). *2017 library newsletter.* https://mslib.huji.ac.il/sites/default/files/mslib/files/newsletter-_2017.pdf

Bloomfield Library (2019). *Special collections.* https://openscholar.huji.ac.il/library/מיוחדים-אוספים

British Friends of the Hebrew University (2018). *Future.* https://www.bfhu.org/wp-content/uploads/2018/10/Future-2018-19-Website-version5.pdf

Ex-Libris group (2018). *Our story.* https://www.exlibrisgroup.com/about-us/our-story-about-ex-libris/

Korea Foundation (1994). *Correspondence with the Hebrew University.* retrieved from the Central Archive of the Hebrew University.

Korea Foundation (1997). *Correspondence with the Hebrew University.* retrieved from the Central Archive of the Hebrew University.

האוניברסיטה העברית בירושלים (1939). האוניברסיטה העברית בירושלים : התהוותה ומצבה.

האוניברסיטה העברית בירושלים (1990-2019). תכניות לימודים : כללים ונהלים.

학술 연구 서비스의 한국적 운영 모델을 만들다: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강민기(Mingi Kang)

자료운영과 사서

국립중앙도서관

kmg72@korea.kr

1. 들어가며

사회와 기술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와 요구 사항이 달라지고 있고, 그에 맞춰 도서관 서비스도 변화해 왔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오랫동안 국가대표도서관의 학술연구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고민을 해왔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17년부터 추진한 본관 자료실 환경 개선 공사는 국립중앙도서관 이용 서비스를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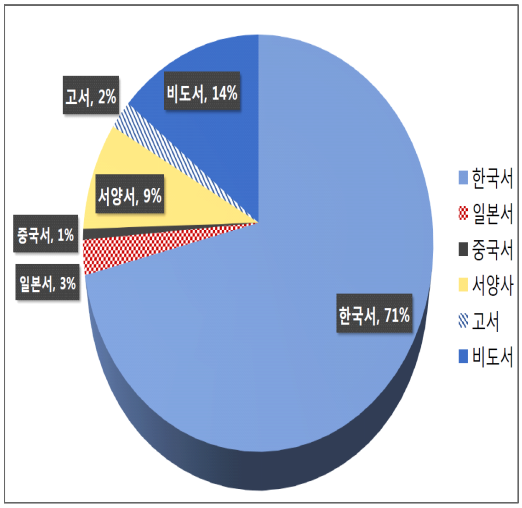
자료실 환경 개선 공사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층 연구정보실 신설이었다. 연구정보실은 새롭게 시작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RINK(Research Information Services)의 오프라인 플랫폼이다. 도서관에서는 학술연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관 자료 이용 서비스 개편에 맞춰 연구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여 그 역할을 새롭게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학술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인 연구정보서비스 개발 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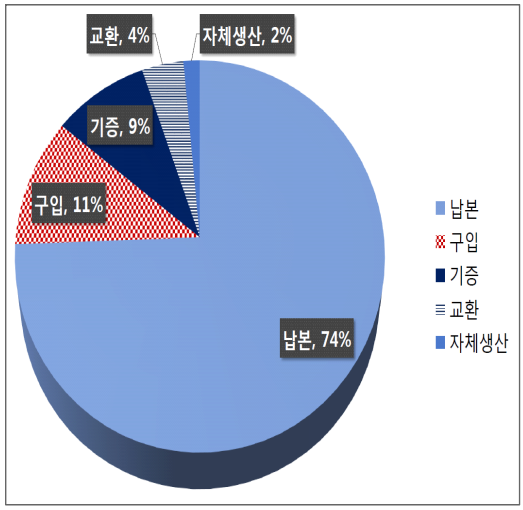
2. 연구정보서비스 개발

2.1 국가 장서

국가도서관의 지식문화재 및 연구정보재에 대한 수집·제공·보존 기능의 충실화는 국가의 연구경쟁력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단초 역할을 한다.[1]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최대 장서량인 11,788,597책/점을 소장하고 있으며[2], 전체의 70% 이상이 납본 제도에 의하여 수집한 한국서로 국내에서 발행되는 대부분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그림 2])



[그림 1] 자료별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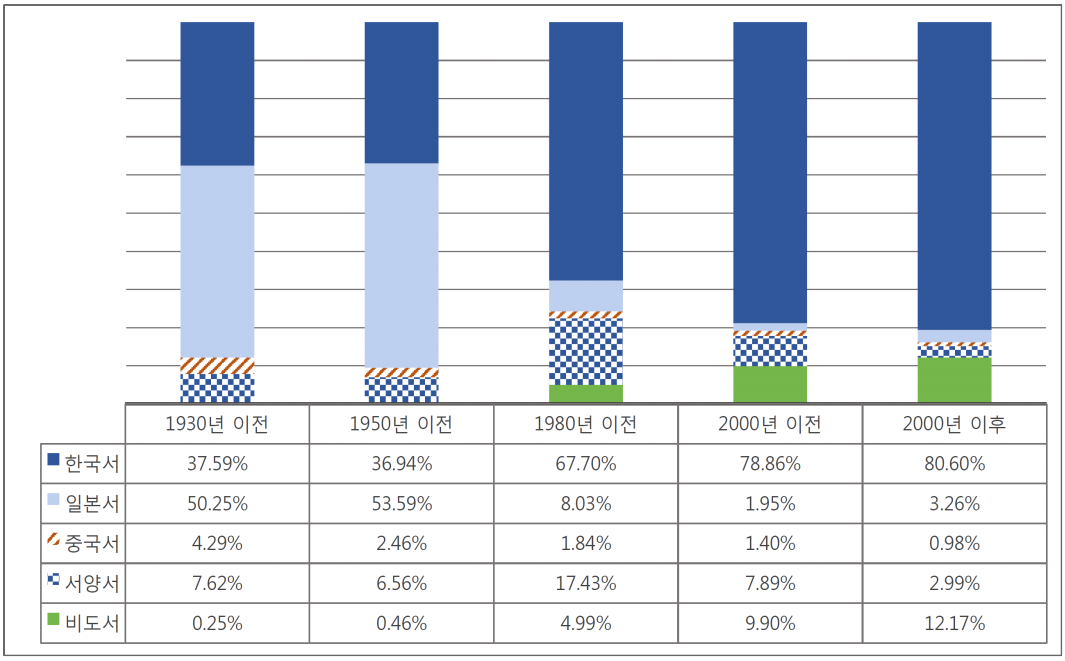
[그림 2] 수집 내역별 분포 현황

발행년도별 소장 현황을 보면, 1980년 이후 발행자료 60% 이상이 한국서인데 비하여 1950년 이전 발행 자료는 일본서의 비중이 50%가 넘는 것이 특징이다. 1950~1980년대 발행자료 중 서양서가 17%라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

---

1) 윤희윤, "주요 국가의 주제별 국가도서관 체계 및 격차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3호 (2009.12), p.p. 69-96

2) 2018년 도서관 현황·통계자료



	1930년 이전	1950년 이전	1980년 이전	2000년 이전	2000년 이후
한국서	37.59%	36.94%	67.70%	78.86%	80.60%
일본서	50.25%	53.59%	8.03%	1.95%	3.26%
중국서	4.29%	2.46%	1.84%	1.40%	0.98%
서양서	7.62%	6.56%	17.43%	7.89%	2.99%
비도서	0.25%	0.46%	4.99%	9.90%	12.17%

[그림 3] 발행년도별 분포 현황

또한, 1910년 이전 발행한 한국 관련 외국서를 포함한 1,821종의 귀중본은 한국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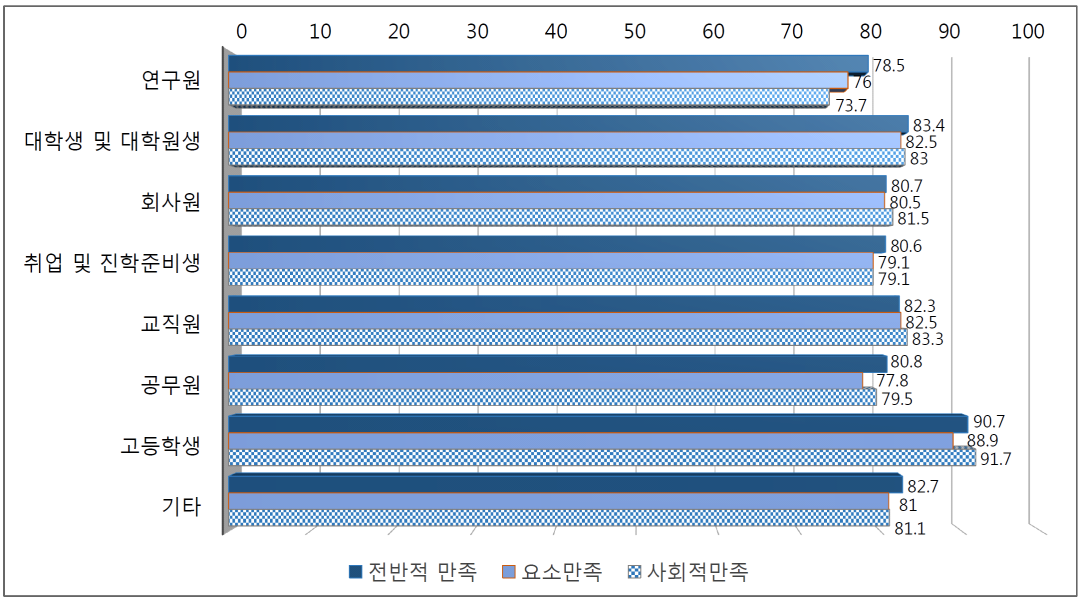
자료구분		자료수
고서	한국본	901종 2,850책
	중국본	49종 594책
	일본본	38종 115책
	소계	988종 3,559책
한국관련 외국자료 (1910년 이전)	동양서	335종 424책
	서양서	136종 173책
연속간행물(1950년 이전)		286종 1,129책
신문(1950년 이전)		75종 673책
비도서		1종 1점
총계		1,821종 5,958책 1점

[그림 4] 귀중 자료 보유 현황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지식자원을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이지만, 신간 자료의 신속한 비치, 공공도서관에서 구입하지 않는 자료 이용[3] 및 쾌적한 공간 제공 등의 공공 서비스 역할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다.

2.2 연구정보서비스 TF 구성 및 활동

2018년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는 일평균 2,452명[4]이며, 직업별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를 보면 연구원의 만족지수가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다.[5] 이는 연구자들이 국립중앙도서관 학술 연구 서비스 기능을 만족스럽게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도서관에 대한 충성도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그림 5] 직업별 만족지수

3)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각종 수험서와 기출 문제집, 여성 잡지 등의 희망 도서 신청을 제한하고 있음
4) 2018년 도서관 현황·통계자료
5) 2018년 국립중앙도서관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국립중앙도서관의 학술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국가도서관 장서에 걸맞는 서비스 제공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7년 9월에 연구정보서비스 TF(Task Forece Team)를 구성하고 학술 연구 서비스 강화를 위한 새로운 운영 모델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TF에서 첫 번째로 고민한 내용은 서비스 대상자들(Target Group)이었다. 모든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되, 자격이나 연구 분야에 대한 제한을 둘 것인지, 어떤 연구자들이 도서관 장서를 최대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대상 연구자들을 범주화(Categorizing)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고민한 내용은 유인(incentive)과 보상(merit)이었다. 기존의 도서관 이용과 다른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는 서비스일지,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 이용자들이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하여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불만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제별 연구자들을 선정하여 개인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문헌정보학, 역사학, 공학, 심리학, 경영학, 철학, 사회학, 교육학 분야의 현행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정보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 신청 자격 및 절차, 이용 자료 책수와 기간, 연구정보실의 시설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프로그램과 자격, 이용 자료는 적절하다고 답하였으며, 개인 연구 공간의 필요성과 개인 소지품의 허용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였다.

세 번째로 고민한 내용은 시스템 구현이었다. 연구자들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기본적인 절차들을 기존의 시스템에 포함시킬 것인지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시스템은 연구정보서비스의 이용[6], 도서관의 출입, 도서관 자료의 이용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다. 연구정보서비스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할 경우에는 서비스 범위와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비스 개발은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키되, 초기에는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능 개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TF팀에서는 크게 위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장·단점, 실현 가능성,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하여 회의를 하면서 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하고, 필요 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다. 회의는 거의 매일 최소 1시간씩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새로운 서비스에

6) 신청-접수-조회 등의 서비스와 관련된 기본 정보 이용

대한 서로의 생각과 아이디어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실현 가능성이나 필요성에 대하여 관련 데이터나 사례 등을 찾아보는 방식이었다.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점차적으로 구체화되면서, 세부 내용들이 논의되고 결정되어 계획(안)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약 50여 차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연구정보서비스 운영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3회에 걸쳐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일반 이용자들과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불만 제기 가능성과 신청 자격의 장벽이 높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대부분은 국가도서관의 학술 연구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연구정보서비스 규정(안)이 포함된 최종 계획(안)은 2018년 3월에 최종 보고되었다.

2.3 연구정보서비스 개발

연구정보서비스의 핵심은 프로그램 운영이다. 연구자들의 학술 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대상자들(Target Group)을 기반으로 하여 6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크게 과제 지원 부문과 연구자 지원 부문으로 구분하여 결과물 제출 없이 교차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개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국가연구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2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다.

프로그램	과제 지원 부문	연구자 지원 부문				
	1. 국가연구 과제	2. 박사학위 논문	3. 학술지 논문	4. 학술 단행본	5. 재외 연구자	6. 연구자료 조사
자 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과제 수행자 또는 수행팀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최근 5년 이내 KCI 및 SCI 혹은 그에 준하는 등재지에 1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등재한 자 또는 학술단행본 1권 이상 집필한 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최근 5년 이내 KCI 및 SCI 혹은 그에 준하는 등재지에 1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등재한 자 또는 학술단행본 1권 이상 집필한 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최근 5년 이내 KCI 및 SCI 혹은 그에 준하는 등재지에 1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등재한 자 또는 학술단행본 1권 이상 집필한 자
이용 기간	연구계약서상 연구기간	승인 후 6개월				승인 후 3주
서비스 연장	6개월 연장 가능	동일 과제로 1회 가능				연장 불가

[그림 6] 연구정보서비스 프로그램

과제 지원 부문은 팀별 연구가 많은 국가연구과제가 대상이며,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팀이 대상이다. 과제 발주 기관과의 연구계약서 또는 협약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자격 확인 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연구자 지원 부문은 박사학위논문, 학술지논문, 학술단행본, 재외연구자, 연구자료조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자격은 석사학위 이상이며, 최근 5년 이내 연구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학술단행본 프로그램은 서비스 시작 당시에는 다른 프로그램과 동일한 자격으로 운영을 하다가, 신청자들 대부분의 자격에 맞추어 2018년 하반기에 박사학위 이상으로 학위 자격을 변경하였다.

학술지 논문과 박사학위논문 프로그램은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이나 박사학위를 준비 중인 신진 연구자(Junior Researcher)들이 대상이나, 학술지 논문을 준비 중인 중견 연구자들도 포함된다.

중견 연구자(Senior Researcher)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 프로그램은 학술단행본 프로그램이다. 신청자들 대부분이 박사 학위 소지자이고, 학술 연구서 출판은 특정 주제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거나 현직 또는 퇴직 교수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

재외 연구자 프로그램은 한국학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연구자, 해외에서 유학 중이거나 외국 연구 기관에 소속된 내국인들이 대상이다. 도서관 소장 한국학 관련 장서를 최대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내에 기반이 없는 연구자들이 국립중앙도서관을 연구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자료 조사 프로그램은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할 계획은 있으나,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연구자가 단기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3주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결과물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서비스 연장은 되지 않는다.

연구정보서비스는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1회 연장을 하면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연구정보서비스 이용 기간이 만료되면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는데, 의무사항은 아니다. 단, 새로운 과제로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이전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며, 결과물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다. 학술 연구가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도서관 자료 또는 공간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점유하는 이용자들과 구분하기 위한 장치이다.

연구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용 기간의 제한과 결과물 제출을 불편해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반 이용자들이 연구정보서비스를 특정 계층에 대한 서비스 특혜라고 느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서비스 운영 취지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2.4 연구정보실 설치

연구정보실은 567㎡ 면적에 1인 지정 연구석을 포함한 연구석 70석, 원문 자료 및 검색 PC 이용석 7석, 복사기 및 프린터 2대, 70명이 수용 가능한 세미나실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2018년 추진된 도서관 환경 개선 공사는 서비스 개편에 따른 본관 3~4층 자료실 재구성이 주된 내용이며, 가장 크게 달라진 공간은 3층 연구정보실 신설이었다. 연구정보실은 연구정보서비스 이용을 위한 오프라인 플랫폼이 되는 곳이며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 공간과는 다른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TF에서는 연구자들이 국립중앙도서관에 관심을 가지는 요소로 장서와 공간을 꼽았고, 그 둘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첫 번째로 나온 내용은 1인 지정 연구석이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개인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대학도서관 1인 캐럴과 외국 국립도서관의 개인 캐럴 및 서가 제공 등을 운영 모델로 참고하였다.

[사진 1] 연구정보실 1인 지정 연구석

두 번째는 개인 소지품의 허용 여부였다. 개인 자료를 포함한 개인 가방의 반입을 허용하는 부분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본 이용 원칙과 상이한 내용이라 결정이 쉽지 않은 사항이었다. 그러나 도서관에서 학술 연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개인 소지품을 허용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연구정보실 내에 개인 소지품 보관함 설치가 결정되었다.

세 번째는 출입 방법이었다. 개방형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담당 직원이 안내를 하는 방법과 출입증으로 출입이 가능한 폐쇄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장·단점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출입 게이트를 설치한 폐쇄형으로 결정을 하였다. 연구정보실 출입을 위하여 별도의 이용증을 만들지 않고 국립중앙도서관 정기이용증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담당 부서와 협의 후 게이트를 설치하고 출입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사진 2] 개인소지품 보관함

[사진 3] 연구정보실 출입게이트

네 번째는 자료 이용 제공 방법이었다. 도서관 자료는 자료실내 비치 자료와 서고에 배가된 신청 자료로 구분되는데, 당일 신청/당일 반납이 기본 이용 규칙이다. 1일 이용 책수 제한은 없지만, 1회에 5책씩만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5책을 반납해야 5책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과 매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연구자들은 같은 자료를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용 자료와 기간을 20책, 최대 45일로 확대하고, 신청한 자료는 연구정보실에서 관리하면서 대출과 반납 처리를 하기로 하였다. 당일 신청-당일 반납이라는 이용 원칙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사진 4] 자료 대출 반납 및 참고 상담

다섯 번째는 세미나실 설치였다. 연구정보실을 단순히 개인 연구 공간으로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 이외에 공동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자들 간의 자유로운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들 공감하였다. 대학도서관과 연구도서관의 Study Room 또는 Faculty Lounge를 운영 모델로 하였고, 향후 콜로키움(Colloquium)이나 소규모 학술대회 개최를 고려한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무선 협업 솔루션[7] 장비를 도입하고 80인치의 대형 화면으로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사진 5] 세미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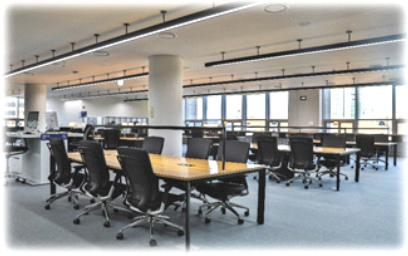
7) Wireless Collaboration Device : 양방향통신 무선 블루투스를 통한 협업 회의 시스템

여섯 번째로 고민한 부분은 연구석이었다. 기존에 자료실에서 이용했던 일률적인 4인용 열람석보다는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자인의 연구석을 제작하고 배치하기로 하였다.

1인용 캐럴

4인용 연구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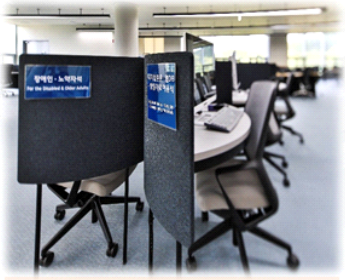
일자형 Bar 테이블



6인용 연구석

[사진 6] 이용자석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이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인 복사기, 프린터, 디지털 자료 이용 PC, 자료 검색용 PC를 연구정보실 내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원문 자료 이용석

↑ 자료 검색용 PC 이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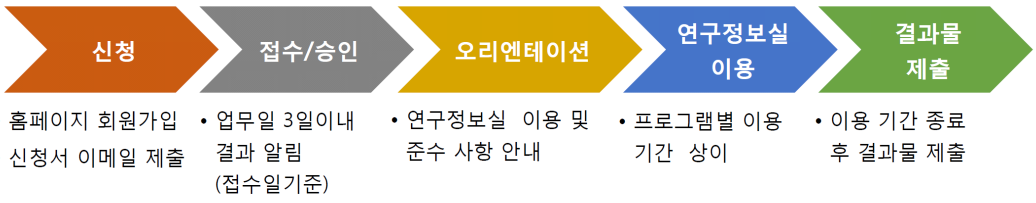
복사기 및 프린터 →

[사진 7] 부대시설

3. 연구정보서비스 운영

3.1 서비스 이용

연구정보서비스는 크게 신청-접수-승인-이용 단계로 처리되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서비스 신청서를 포함한 프로그램별 제출 서류들을 작성한 후 메일로 신청한다.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신청·예약 → 연구정보서비스 → 신청서 다운로드 → rink@korea.kr 로 송부

[그림 7] 연구정보서비스 신청 및 처리 절차

3.1.1 서비스 신청

연구정보서비스 신청서는 신청 프로그램, 이용자 정보, 연구정보로 나뉘어져 있다. 신청 프로그램은 해당 연구 과제 프로그램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석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고, 이용자 정보에는 연락처와 연구자 등록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ID를 기재한다. 연구정보는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한 논문명과 최종 학력, 최근 5년 이내 연구 실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제출서류들과 함께 메일로 신청을 하면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접수 및 승인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을 수 있다. 연구정보서비스 신청서류[8]는 [그림 8]과 같고, 해당 서류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8) 신청서류는 연구정보서비스 규정의 별지 서식에 포함되어 있다.

공통 서류	▶연구정보서비스신청서 ▶도서관 활용 자료 목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구정보실 시설 및 장비사용 서약서
추가 서류	1. 국가연구과제: 연구계약서 또는 협약서 2. 박사학위논문, 3. 학술지논문, 4. 학술단행본, 6. 연구자료조사: 연구계획서 5. 재외연구자: 연구자 추천서

[그림 8] 연구정보서비스 신청 서류

3.1.2 서비스 접수 및 승인

해당 프로그램별 담당자들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을 위한 학력과 연구실적을 확인한다. 대부분의 학위논문과 단행본 연구실적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검색을 통한 확인이 가능하며, 학술지 연구실적은 KCI(Korean Citation Index), SCI(Science Citation Index)와 같은 인용색인을 활용한다. 필요시에는 서류의 보완 요청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도서관 자료 활용 목록과 연구기간이 포함된 연구계획서 보완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정보서비스 승인은 신청한 연구자의 메일로 회신을 하는 방식이며, 오리엔테이션 일정과 기본적인 도서관 이용 안내, 오리엔테이션 참석일 회신 요청 내용이 포함된다.

3.1.3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에 진행이 되고, 승인일로부터 2주 이내에 참석을 해야 한다. 2주 이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자 일정에 맞춰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기도 한다.

오리엔테이션은 기본적인 도서관 이용, 연구정보서비스 안내 및 연구자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연구자 이용증 발급, 개인 소지품 보관함 배정, 연구자 등록이 이루어진다.

3.1.4 서비스 이용과 결과물 제출

연구자 등록이 완료되면, 연구정보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배정받은 보관함에 개인 자료 및 소지품을 보관하고, 원하는 연구석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오리엔테이션 참석일로부터 6개월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은 연구계획서의 연구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다.

서비스 이용 기간이 만료되면 연구결과물을 제출해야 하지만 결과물 제출이 필수사항은 아니다. 단,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결과물이 확인되어야 한다. 연구결과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새롭게 신청한 경우에 승인이 되지 않는다. 제출 방법은 이메일 송부와 직접 제출 모두 가능하며, 제출 기간의 제한은 없다.

3.2 서비스 홍보

연구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이 결정됨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Target Group)별 홍보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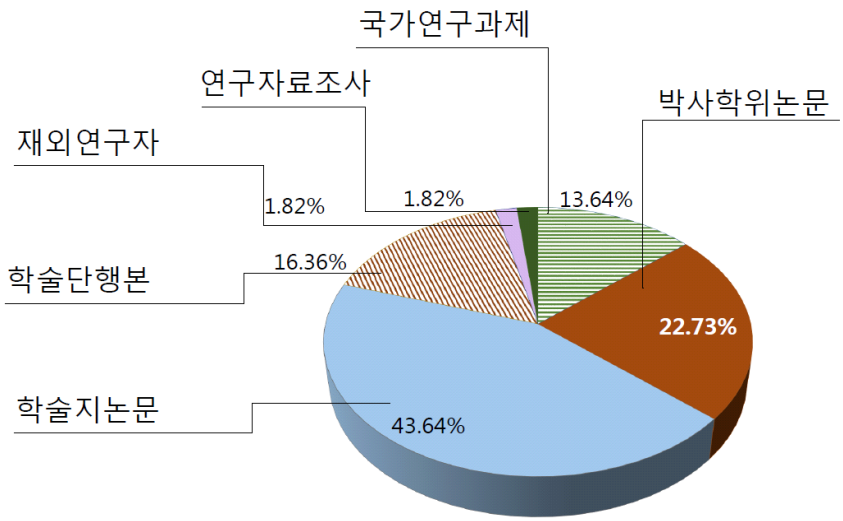
국가연구과제 프로그램은 정부 부처 및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을 대상으로 협조 요청을 하였다. 국가 R&D 통합 공고 사이트(https://www.ntis.go.kr/rndgate/eg/un/ra/mng.do)를 조사하여 부처별 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주최하는 학술연구지원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여 현장 홍보도 진행하였다.

학술지 및 박사 학위 논문 프로그램은 국내 학술지 발간 학회 및 대학 산하 연구소들을 조사하고, 각 기관 사무국에 웹사이트 화면에 홍보 배너 게시를 요청하였다. 또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안내 자료 메일 발송도 요청하였다. 그 외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 등 가능한 많은 현장을 방문하여 대면 홍보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재외 연구자 프로그램은 해외 한국학 사서가 있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학 연구자와 해외 유학생들에게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 서비스 안내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3.3 운영 현황

2018년 7월 24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신청 연구자는 총 121명이며, 2019년 4월 20일 기준으로 이용 중인 연구자는 64명이다. 한 프로그램의 이용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쿼터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별 이용 현황은 [그림 9]와 같다.



[그림 9] 운영 프로그램별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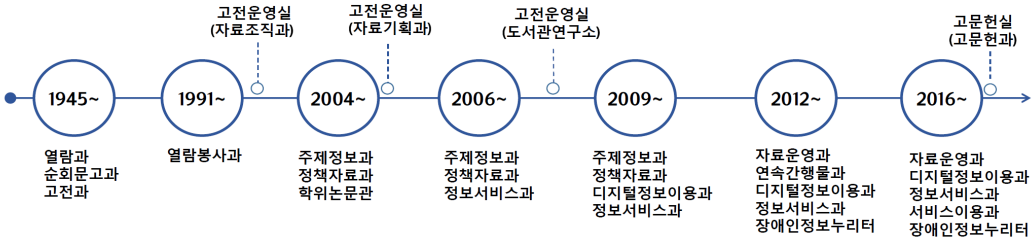
2019년 1월은 서비스가 시작된 지 6개월이 되는 시점이었고, 처음으로 연장 신청 안내가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서비스 연장을 신청하였다. 서비스 연장은 연구계획서의 연구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연구결과물이 완료된 연구자들은 서비스 종료가 된다. 그 외 월별 이용횟수가 미달인 연구자들은 서비스 이용 중지 상태로 변경된다. 연구정보서비스를 한번이라도 이용한 연구자들의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커뮤니티 운영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첫 번째 운영 모델인 연구자 라운지를 2019년 3월에 개최하였다. 참석한 연구자들이 연구정보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서로의 연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하반기에는 좀 더 많은 연구자들이 서로의 연구에 대하여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라운지로 새롭게 열 계획이다.

라운지 운영을 기반으로 한 연구자 커뮤니티 운영 계획은 2019년 하반기에 수립될 예정이다. 연구자 커뮤니티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이 계속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다른 연구자들과 교류할 수 있고,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연구에 대하여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학술 연구에서 도서관의 장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커뮤니티 활동이 새로운 연구자들을 도서관으로 유인할 수 있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들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 8] One-day Lounge 운영 모습

4. 나오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다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왔고, 서비스는 시대에 따라 열람 서비스, 주제 전문 서비스, 소장 자료 중심 서비스로의 변화를 거쳐왔다. 그 변천 과정은 [그림 10]에서 보는 것처럼 서비스 부서의 변천 과정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 중에도 학술 연구 서비스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림 10] 서비스 변천[9)]

9) 정보서비스과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서비스이용과는 국립세종도서관 소속 부서임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는 학술 연구 서비스를 위하여 온·오프라인 플랫폼이 통합 운영되는 새로운 운영 모델이며, 도서관의 이용 서비스와 다르게 제공되는 오프라인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정보서비스 규정도 새롭게 제정하였다. 기존의 온라인 중심 학술 연구 서비스와는 차별화되는 부분이며, 많은 연구자들에게 국립중앙도서관의 서비스 브랜드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가도서관의 학술 연구 서비스는 선진 도서관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참고하되 국내 실정에 맞고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 행태와 맞는 서비스 운영 모델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에 연구정보서비스 등록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평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의 의견과 현장 홍보 등을 통하여 수렴한 의견들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두 번째 단계로 국내외 도서관들의 운영 모델을 참고한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과 커뮤니티 운영 계획도 추진 중이다.

2019년 7월은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이 된다. 새롭게 시작한 연구정보서비스가 국립중앙도서관 이용 서비스 변화에 한 획을 그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후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새로운 운영 모델로 자리를 잡고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 연구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Number 20 (June 2019)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Libraries / 71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Sapienza University of Rome / 93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 109

The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Creating a Korean model for academic research services / 126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Libraries

Hyokyoung Yi

Korean Studies Librarian & Head of Public Services at the East Asia Library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1. Introduction to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Founded in 1861,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UW) is the preeminent public research university in the Pacific Northwest and considered one of the most innovative universities in the world. In their 2018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ARWU), Shanghai Ranking Consultancy placed UW at number 14.[1] UW educates more than 54,000 students annually across its three campuses in Seattle, Tacoma, and Bothell and at its world-class academic medical center. For over 150 years, UW has dedicated itself to guiding students through a challenging learning environment informed by cutting-edge scholarship. These students go on to become global citizens and future leaders, capable of tackling current issues with innovation and ingenuity.

Enveloped by the natural beauty of the Pacific Northwest, UW's main campus is located in Seattle, the major city of the State of Washington. Situated on Puget Sound,

1) Holtz, Jackson. "Rankings: UW is No.14 in the world, third among U.S. public universities, plus on Money and Washington Monthly best-of lists." *UW News,* 27 Aug. 2018, https://www.washington.edu/news/2018/08/27/rankings-uw-is-no-14-in-the-world-third-among-public-universities-plus-on-money-and-washington-monthly-best-of-lists/

Seattle is bounded on the west by the Pacific Ocean, on the north by Olympic National Park and the Olympic Peninsula, on the south by Mount Rainier, and on the east by the Cascade Range. Often called “the Emerald City,” Seattle enjoys the lush verdure of nature and features two major lakes, Lake Washington and Lake Union. As a seaport, Seattle is an important gateway for trade with Asia. It is home to Starbucks Coffee, and its metropolitan area hosts the headquarters of tech giants including Microsoft and Amazon, as well as major Boeing facilities. As the heart of this vibrant city, UW educates global citizens in support of their promising futures.

[Photo 1] University of Washington Quad Area, Photo by Mark Stone at University of Washington Photography

2. The Korean Studies Program at UW

Known internationally for its Schools of Medicine and Nursing and its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programs, UW also boasts a storied and

distinguished Korean Studies program.

The UW Korean Studies Program is one of the oldest programs of its kind in the United States, providing undergraduate and graduate training in Korean studies across a variety of disciplines. Established in 1944 by Harold Sunoo, Korean was included among other Far Eastern languages as part of the Army Specialized Training Program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during the final years of World War II.[2] After the Korean War, additional courses on Korea were offered. Doo Soo Suh and Fred Lukoff were hired to teach Korean language and history in the early years of the Korea Studies Program, while James B. Palais, a distinguished historian whose work focused on the Joseon dynasty, was brought onboard in 1968. Professor Palais taught Korean history courses and fostered numerous outstanding scholars throughout his tenure with the program, which ended with his retirement in 2001. Beginning in the late 1970s, the UW Korean Studies Program experienced something of a golden age that continued through the 80s and 90s, especially as Professor Palais taught jointly with Bruce Cumings, who is now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The UW Korean Studies Program continues to thrive, offering courses in Korean language, literature, history, social organization, and politics, as well as supporting teaching, research, and outreach related to Korea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3.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Libraries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Libraries is comprised of sixteen branches, including a satellite branch which serves Friday Harbor Laboratories in the San Juan Islands. UW Libraries identifies as “one library serving three campuses,” emphasizing the high standard of service it provides to the 5.6 million users that it welcomes annually across its

---

2) Kim, Soohee “The Korean Language Program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Celebrating its First Seventy Years” IN Wang, Hye-Sook. Rise of Korean Language Programs in U.S.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a Narrative History. Korea University Press, 2015.

many locations. It is home to the largest library collection in the Pacific Northwest, with over 9 million books and journals, as well as millions of microforms, thousands of maps, rare books, film, and audio and video recordings. The Libraries collections also include 1 million electronic books and 180,000 electronic journals.[3)]

Suzzallo Library is the central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in Seattle, and is perhaps the most recognizable building on campus. Opened in 1926, Suzzallo Library was named for the 15th president of the University, Henry G. Suzzallo. This Gothic-style building features a sandstone, terracotta, and brick exterior, a slate roof, and vibrantly colored leaded and stained glass windows with gilded details. One of the highlights of Suzzallo Library is the Reading Room, which measure 65 feet high, 52 feet wide, and 250 feet long.[4)] Some call it the "Harry Potter room" for its resemblance to the Hogwarts Great Hall as depicted in the Harry Potter films. The vaulted ceiling and oak bookcases which line the walls create a dignified atmosphere, while the ambient light and inviting desks encourage members of the UW community and visitors alike to engage in quiet reading and study. The Grand Staircase, which connects the first floor of the building to the Reading Room is a draw for visitors in and of itself, having been used as a backdrop for countless photoshoots due to its grandeur and beauty.

Allen Library, completed in 1990, is an addition to Suzzallo Library that provides shelving for over a million volumes, as well as well-lit spaces for group and individual study. Suzzallo-Allen Library is largest library in the UW Libraries system, housing over 2.5 million volumes, as well as Special Collections, the Research Commons, the Conservation Center, and offices for administrators and library staff.

---

3) "Libraries Fact Sheet 2019" University Libraries. University of Washington, 2019. http://www.lib.washington.edu/assessment/statistics/facts

4) "About Suzzallo and Allen Libraries" University Libraries, University of Washington, 2019 https://www.lib.washington.edu/suzzallo/visit/about

[Photo 2] Suzzallo Library on a rainy day, Photo by Katherine B. Turner/ UW Marketing

[Photo 3] Suzzallo Library Reading Room, Photo by 2017 Jonathan M. Steinberg Photography

Odegaard Undergraduate Library offers a range of services and spaces which support students, and is open continuously from noon Sunday through 8 p.m. Friday every week. It houses the Research and Writing Center, the Learning Commons, and two Active Learning Classrooms. Other large libraries include the East Asia, Foster Business, Engineering, and Health Sciences Libraries.

UW Libraries is the heart of research and scholarship on campus, supporting teaching and learning through a variety of programs. They range from library instruction to collaborative efforts with faculty and staff. Over 70 subject librarians are available to assist faculty and student research. Expanded programs in digital scholarship, scholarly publishing, Open Access and Open Textbooks, and research data management complement these efforts. In addition, the Libraries offer a Library Research Award for Undergraduates, a prestigious program which encourages student research.

Beyond the academic support that it provides, UW Libraries also acts as a hub for cultural engagement, enriching students, staff, and faculty as well as the community at large through cultural programs and events.

In 2018,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was incorporated into UW Libraries, creating further opportunities for the promotion of a shared mission and vision for the creation, dissemination, and preservation of knowledge. The strengthening of the partnership between these two units has already begun to engender a deeper sharing of expertise and increased innovation, especially for the development of new forms of scholarship with Open Access.

3.1 The East Asia Library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5)]

The East Asia Library (EAL) is located on the third floor of Gowen Hall, one of the buildings which overlook the Liberal Arts Quadrangle (popularly known as “the Quad”) on the central campus of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As one of the ten largest

5) Mostly from the page “About East Asia Library”, East Asia Library, University of Washington, 2019 http://www.lib.washington.edu/east-asia/about

collections among East Asia libraries in North America,[6] EAL supports the faculty and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 as well as the China, Japan, and Korea Programs of the Jackson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The origins of the East Asia Library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can be traced back to 1937 when the library received funding from the Rockefeller Foundation to purchase a small collection of Chinese literary works. By the 1940s, its holdings had increased to 20,800 volumes, including a gift of 2,000 volumes from Columbia University. Further purchases were made possible through additional grants from the Rockefeller Foundation. This modest collection, unnamed, uncatalogued, and untended was shelved in the "Oriental Seminar Room" in Suzzallo Library and was available to faculty and students only upon request.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Far Eastern Institute in 1946, the Oriental Seminar Room collection became the Far Eastern Library. Dr. Ruth Krader was appointed the first curator of the library in September 1947. In 1948, the library acquired the George Kerr collection, which formed the basis of its Japanese collection. The small number of Korean titles assembled during World War II for U.S. Army teaching purposes became the beginning of the Korean collection. In 1950, the Far Eastern Library moved to the basement of Thomson Hall. In 1951, a Rockefeller Foundation grant enabled the library to purchase Japanese materials related to China. The acquisition of the Joseph Rock and Herbert H. Gowen collections further enhanced the Library's holdings on China and Inner Asia.

The 1960s saw the addition of the Helmut Wilhelm collection of Chinese classics and the Robert Paine collection of Japanese art materials. In 1976, the library was renamed the East Asia Library and moved to its new home in Gowen Hall, where it remains now. The collection continued to grow rapidly throughout the 1980s. Automation was also introduced during this period. Strong growth took place in the first half of the 1990s, especially in the acquisition of electronic resources about East Asia, both online and on CD-ROM. EAL was the first institution outside of China to acquire the Twenty-Five

---

6)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Welcome to the CEAL Statistics Database, https://ceal.ku.edu/

Dynastic Histories database and the first academic library in North America to establish a direct connection to the NACSIS-IR service in Japan. In the mid-1990s, generous backing from the Korea Foundation allowed the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to be formed by six major Korean studies libraries in the US, including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Since then, with the Consortium's support, Korean collections have grown rapidly in many specialized subject areas.[7)]

At the start of the 2000s, the East Asia Library collection had begun to outgrow its space in Gowen, and the library gradually gained additional auxiliary stacks spaces in Gowen Hall, Smith Hall, and Kane Hall to house its collections. As of June 2018, the library has over 720,000 volumes of print publications on East Asia in Chinese, Japanese, Korean, Tibetan, Manchurian, Mongolian, and other languages. Together with digital materials, the collection currently comprises more than 800,000 volumes.[8)]

The East Asia Library's collections are composed primarily of materials in Chinese, Japanese, and Korean covering all areas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Most materials in English and other Western languages related to East Asia are kept in Suzzallo-Allen and other libraries on campus, depending on the subject. Materials on East Asian law are housed in the Gallagher Law Library.

Special Collection holdings in the East Asia Library amount to over 6000 titles in the Chinese, Japanese, and Korean, Chinese holdings include approximately 300 rare books published before 1796, the special Joseph F. Rock collection of rare local gazetteers of southwest China, and a large collection of Chinese Republican Era publications. Japanese holdings include pre-Meiji publications such as the Bukan collection, the Paine collection of Japanese fine arts, and Japanese military maps. Korean holdings include the Korean "Liberation Space" collection (books published between 1945 and 1950), the James B. Palais collection, and the recently acquired gift collection of Korean *manhwa* (graphic novels), just to name a few.

---

7)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Annual Meeting Minutes, https://kccna.libguides.com/home

8)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Welcome to the CEAL Statistics Database,* https://ceal.ku.edu/

[Photo 4] East Asia Library Reading Room, Photo by 2019 Taewoong Kang, University of Washington

3.2 History of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East Asia Library

Around the time of the opening of the Korean language program in 1944, UW began collecting books donated by students from Korea. Ms. Yoon-whan Choe, the first Korean Studies librarian, was hired in 1969 to develop the Korean collection of what was then known as the Far Eastern Library. Over her 32 years of service, she laid the groundwork for what was to become a nationally acclaimed Korean collection.[9)]

In the 1980s, the East Asia Library completed its automated library system creating a searchable, online database of the library's holdings for users.

---

9) "Saram i isso to arumdaun tosogwan: Wosington Taehakkyko Hangukhak tosogwan 사람이 있어 더 아름다운 도서관: 워싱턴대학교 한국학도서관"[People making UW Libraries more beautiful], *Chulp'an chonol 출판저널,* no.444 (January 2013), pp.34-41

In the 1990s, UW joined five other universities to form the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with support from a grant by the Korea Foundation. As a result, the Korean collection began to grow rapidly. UW has received about US$20,000 for the purchase of Korean collection every year since.[10] As of 2019, the Consortium has expanded its membership to include 14 academic institutions, and continues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Korean collections overseas, fostering Korean studies worldwide. The cooperative collection development in assigned subject areas by the Consortium's member libraries is highly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nnovative strategic initiatives among academic libraries. The specialized subject areas that UW has developed over its 25 years of membership in the Consortium include women's studies, modern poetry, the Gyeongsang-do Province area, tourism, and juvenile literature. The women's studies collection has been broadened to not only include men's studies, but also materials related to sexual minorities, family, and gender studies. The focus in the Gyeongsang-do Province area materials has been on the Dok-do Islands, where a territorial dispute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s ongoing.

In the 2000s, two major gifts were received: the personal collection of James B. Palais and the Mandang Lee Hye-gu collection of Korean music-related materials. Although for many years UW's Korean collection was the second largest of any academic library in the North America, as of 2019 UW ceded this place of honor to another institution due to the decreased collection budget, something over which I, as the current Korean studies librarian responsible for the collection, feel much regret.[11]

As with any other library, UW has been systematically collecting electronic materials such as Korean e-journals, eBooks and databases in addition to print materials. While the demand for electronic resources has surged, costs have been increasing exponentially. Insufficient budget to meet this demand is the biggest issue facing libraries at present. Although the Libraries apply for every possible funding source both inside and outside the University, funding the deficit is not a realistic goal. The only possible way to keep

10) USD amounts vary for some years.

11)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Welcome to the CEAL Statistics Database,* https://ceal.ku.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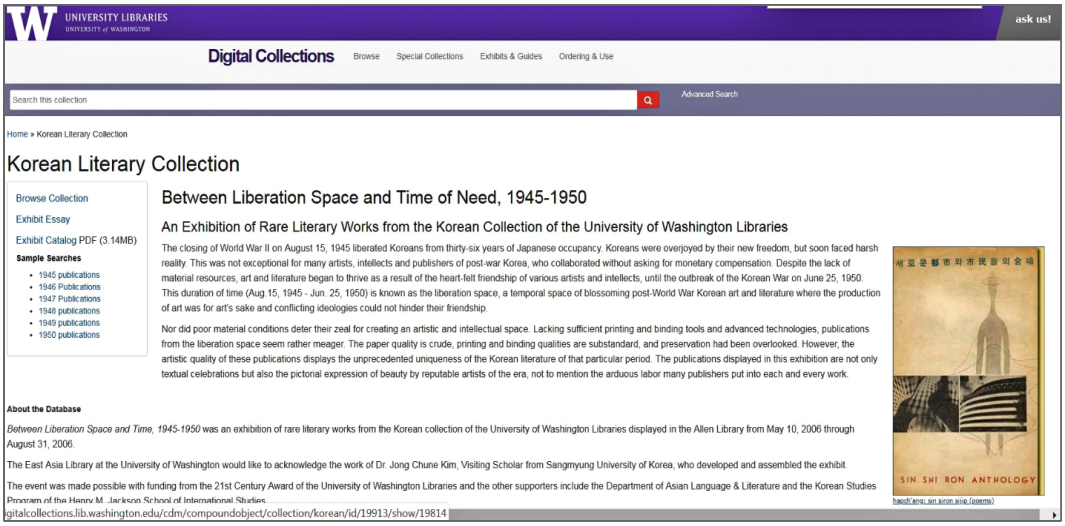
library budgets sustainable is through fundamental structural change via Open Access, making this an urgent task for all libraries.

3.3 Korean Special Collections

3.3.1 Liberation Space Collection

Made up of books published in the period from just before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to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Liberation Space collection (1945-1950) is the most valuable of the collections which comprise UW Libraries' Korean Special Collections. The earliest volume in the collection is *Hae wa tal: Chosŏn tonghwajip*, a children's book published in October 1945 by Kyerim Insŏgwan, while the latest is *Tajŏng pulsim* a text written by Park Chong-hwa and published by Eulyoo. Publishing on June 10, 1950. The collection consists of 104 distinguished titles from Korean modern literature, including poetry, novels, essays, literary history and criticism, readings, and children's books, among many other genres. Considering Korea's turbulent history during this period, the older materials are in relatively good condition. Although the quality of the paper is poor and most of the books are small and coarse, the collection's meaning and historic value remain intact. These are works in which Korean literary intellectuals freely expressed themselves in their native language, fully embracing the joy and other emotions resulting from liberation from Japanese occupation.

The Liberation Space collection was first discovered in 2005 by Professor Jong Chune Kim, a rare book bibliographer who came to the East Asia Library on a sabbatical research leave from the Information School at Sangmyung University. With his help, an exhibition entitled "Between Liberation Space and Time of Need: 1945-1950" was held in the lobby of Suzzallo Allen in 2006. Through this exhibition, the Korean Liberation Space collection was promoted widely outside of the campus. All of the materials in this collection have been digitized into eBooks to make them available to students and scholars while protecting them from further deterioration.



[Picture 1] http://content.lib.washington.edu/koreanwe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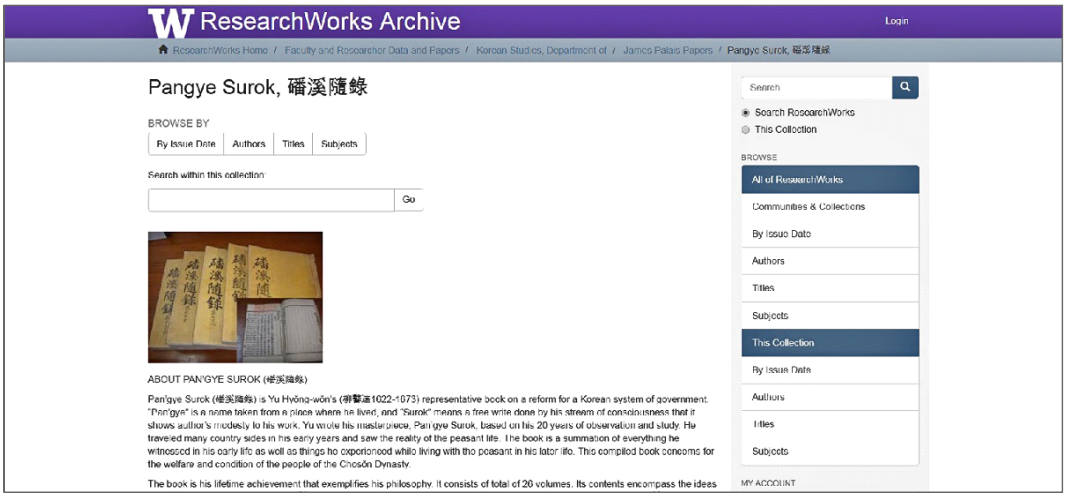
3.3.2 James B. Palais Paper Collection

The James B. Palais collection includes the late professor's personal books and papers. During his lifetime, Professor Palais collected over 10,000 volumes of books and journals on Korea and East Asia. After his death, the entirety of his personal collection was donated to the East Asia Library. The library undertook the process of making these important scholarly resources open to users. A majority of the materials were in English and Korean, but there were a number of Chinese and Japanese materials as well. A total of over 1,000 unique titles were added to the East Asia Library's holdings. Duplicates were shared with Stanford University Library, as well as with Sungkyunkwan University Library where Professor Palais served the last years of his career as the Director of the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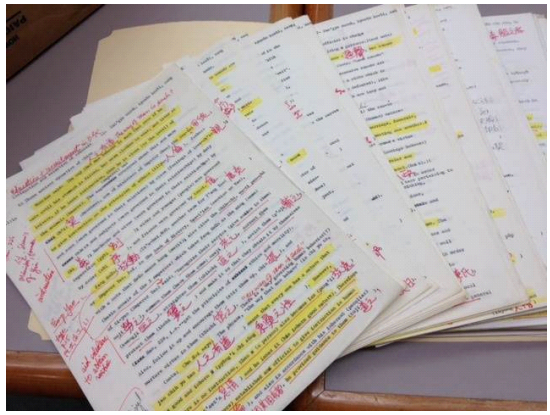
In addition to his book collection, Professor Palais kept a paper collection with a variety of archival documents. The paper collection was processed at the container level and is currently housed in UW Libraries' central Special Collections in Suzzallo-Allen. Among these papers are more than 2,000 manuscript pages of the English translation of *Pan'gye surok* by the Joseon dynasty scholar Yu Hyŏng-won, whom Palais studied for his entire

life. The manuscripts were scanned digitally and are available for ac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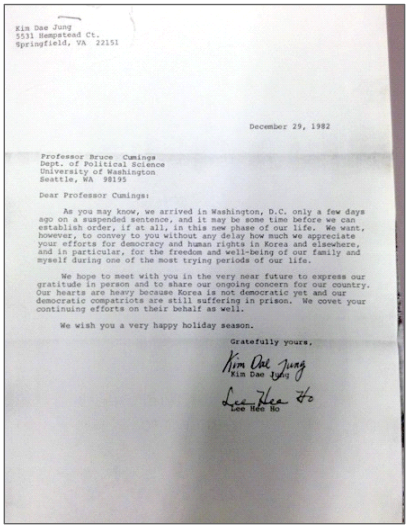
Other documents in the collection showcase Professor Palais' efforts to promote the human rights movement in Korea. It is especially worth noting the correspondence exchanged in 1983 between Palais and former president Kim Dae Jung during Kim's exile in the US. While in Washington DC, Kim first sent a letter to Bruce Cumings, who taught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then to Professor Palais. In a 1982 letter, Kim addressed his asylum and the undemocratic dictatorship and human rights issues that Korea was experiencing. In the following year, Kim wrote a letter thanking Professor Palais for his invitation to give a lecture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which was held between April 29 and 30, 1983. Kim also appealed to Professor Palais, asking for help in urging the US government to exercise its influence over the Korean dictatorship, mentioning th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as well as former president Kim Young Sam's hunger strike.



[Picture 2] https://digital.lib.washington.edu/researchworks/handle/1773/23883



[Photo 5] Professor Palais' Manuscripts for the English Translation of 〈Pangye surok〉



Kim Dae Jung
5531 Hempstead Ct.
Springfield, VA 22151

December 29, 1982

Professor Bruce Cumings
Dept.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WA 98195

Dear Professor Cumings:

As you may know, we arrived in Washington, D.C. only a few days ago on a suspended sentence, and it may be some time before we can establish order, if at all, in this new phase of our life. We want, however, to convey to you without any delay how much we appreciate your efforts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Korea and elsewhere, and in particular, for the freedom and well-being of our family and myself during one of the most trying periods of our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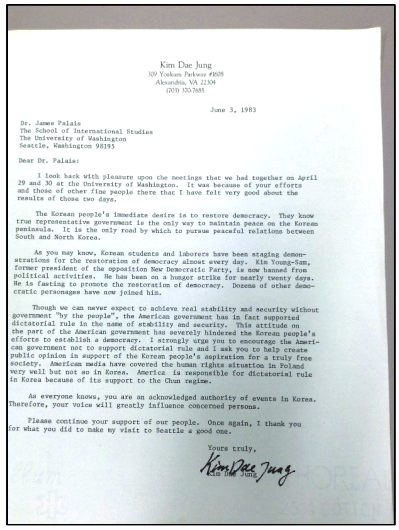
We hope to meet with you in the very near future to express our gratitude in person and to share our ongoing concern for our country. Our hearts are heavy because Korea is not democratic yet and our democratic compatriots are still suffering in prison. We covet your continuing efforts on their behalf as well.

We wish you a very happy holiday season.

Gratefully yours,

Kim Dae Jung

Lee Hee Ho



Kim Dae Jung
339 Yoakum Parkway #1608
Alexandria, VA 22304
(703) 370-7685

June 3, 1983

Dr. James Palais
Th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Washington 98195

Dear Dr. Palais:

I look back with pleasure upon the meetings that we had together on April 29 and 30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It was because of your efforts and those of other fine people there that I have felt very good about the results of those two days.

The Korean people's immediate desire is to restore democracy. They know true representative government is the only way to maintai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the only road by which to pursue peaceful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you may know, Korean students and laborers have been staging demonstrations for the restoration of democracy almost every day. Kim Young-Sam, former president of the opposition New Democratic Party, is now banned from political activities. He has been on a hunger strike for nearly twenty days. He is fasting to promote the restoration of democracy. Dozens of other democratic personages have now joined him.

Though we can never expect to achieve real stability and security without government "by the people", the American government has in fact supported dictatorial rule in the name of stability and security. This attitude on the part of the American government has severely hindered the Korean people's efforts to establish a democracy. I strongly urge you to encourage the American government not to support dictatorial rule and I ask you to help create public opinion in support of the Korean people's aspiration for a truly free society. American media have covered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Poland very well but not so in Korea. America is responsible for dictatorial rule in Korea because of its support to the Chun regime.

As everyone knows, you are an acknowledged authority of events in Korea. Therefore, your voice will greatly influence concerned persons.

Please continue your support of our people. Once again, I thank you for what you did to make my visit to Seattle a good one.

Yours truly,

Kim Dae Jung

[Photo 6] Kim Dae Jung's 1982 letter to Bruice Cumings (left)
[Photo 7] Kim Dae Jung's 1983 letter to James Palais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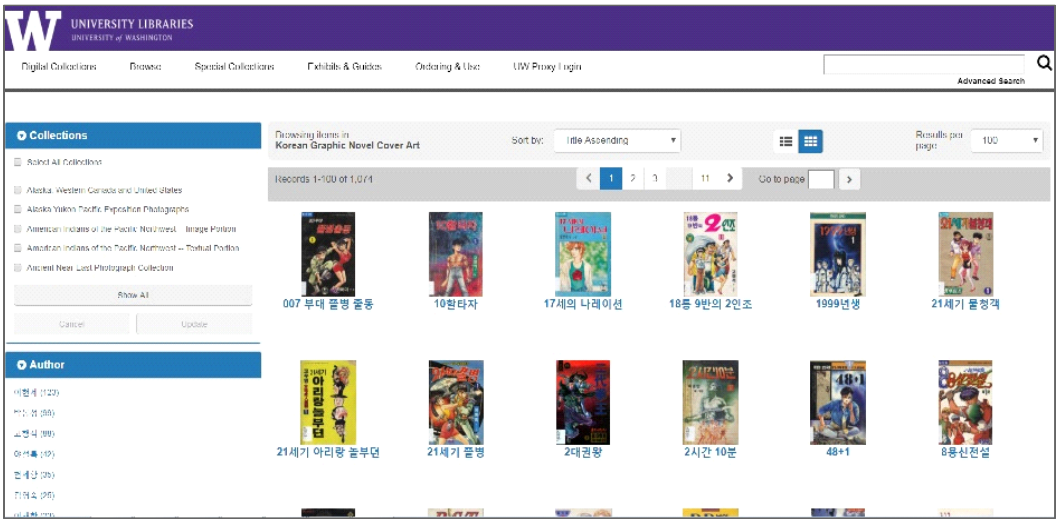
3.3.3 Korean Graphic Novels Collection

Another valuable collection of books held by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is the Korean graphic novels collection. More than 15,000 books were donated by a Washington resident who operated an antique shop near Olympia. Graphic novels were actively

published from the 1980s to the early 2000s in Korea, and the collection consists of titles from throughout this era, including work by famous cartoonists such as Hŏ Yŏng-man,Yi Hyŏn-se, Pak Bong-sŏng, Han Sŭng-won, Hwang Mi-na, and Yi Sang-mu.

Academic libraries have historically been biased against graphic novels; it was therefore a challenge for the East Asia Library to accept such a large number of books in this format at the beginning of the gifting process. Nowadays, however, graphic novels are valued as an important resource for the study of popular culture. Considering that the publication of graphic novels in a paper format has decreased sharply since the introduction of webtoons (cartoons published online) in the early 2000s, the collection of Korean graphic novels is more worthwhile than ever to preserve the publication history of the form.

This collection has been completely cataloged for wider use and discovery of each title. It is also possible to browse the collection by over 1,000 cover images.



[Picture 3] https://cdm16786.contentdm.oclc.org/digital/collection/p16786coll5

3.4 Outreach Activities for the Korean Collection

3.4.1 Book Exhibition Program

The East Asia Library has been carrying out various activities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the precious Korean materials held by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In order to raise awareness of the materials, a major book exhibition was held in 2006 featuring modern Korean literary works published between the time of liberation from Japanese occupation and the Korea War. Such efforts provided an opportunity to promote the collection to faculty and students, as well as to the Korean community in the Seattle metropolitan area.

Some well-known titles displayed in the exhibition included *Hae wa tal: Chosŏn tonghwajip*, *Haebang kinyŏm sijip*, Kim Ki-rim's *Pada wa nabi*, Yi Tae-jun's *Sanghŏ munhak tokpon*, O Chang-hwan's *Sŏngbyŏk*, An Hoe-nam's *Pul*, Kim Tong-ni's *Munyŏ do*, Im Hak-su's *Palto p'ungmul sijip*, Chŏng Pi-sŏk's *Chesinje*, Kim Tong-in's *Palkarak i talmatta*, Yŏm Sang-sŏp's *Haebang munhak sŏnjip*, and Kim Kyŏng-nin's *Saeroun tosi wa simindŭl ŭi hapch'ang*.

After being housed in the library stacks for over half a century, these books finally saw the light of day. The exhibition catalog was published in English, helping more people to better understand the Korean materials. Additionally, the books were digitized as eBooks, providing full-text access to anyone who wishes to study Korean literature at UW or any other institution.

Due mainly to the availability of the digitized copies of these texts, the first academic conference on Korean literature from the Liberation Space was hosted by the Korean Studies program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in 2008. The 2006 exhibition was revived for attendees of the conference, with 104 unique books displayed to scholars, some of whom came from as far as South Korea. The exhibition became a special event that facilitated research interest in Korean literature from the Liberation Space peri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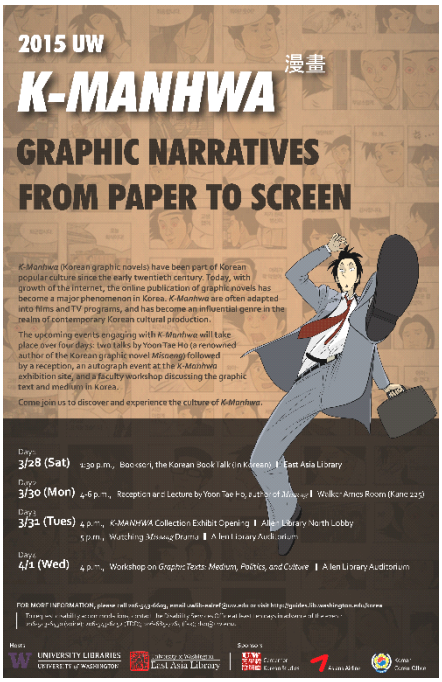
[Picture 4] 2006 Exhibition Catalog of the Korean Liberation Space Collection (cover front and back)

3.4.2 Booksori Book Talk Program

Since June 2013, the East Asia Library has been hosting a book talk program called Booksori in an effort to raise awareness and appreciation of high quality books from Korea. Booksori invites speakers one Saturday afternoon every month to give a lecture on a selected Korean book based on their knowledge and background. The monthly book talk program has received a great response from the Korean community in Seattle. As a result, the program has not missed a single month since its launch.

In 2015, Mr. Yoon Tae-ho, the Korean cartoonist of *Misaeng* was invited to give a Booksori talk. In addition, he was the main speaker for the four-day long K-Manhwa Festival. The festival offered various programs such as an exhibition of an old comic room reproduction and a scholarly workshop led by a faculty member.

In July 2017, Booksori hosted the Korean novelist Kim Takhwan as a special guest speaker in celebration of the 50th Booksori event. Novelist Kim Yeonsu, author of *Sawŏl ŭi mi, ch'irwŏl ŭi sol*, gave a talk in August 2018 which proved to be a highlight of the program. Booksori has not only invited famous writers from Korea, but also local Korean Americans, UW faculty, visiting scholars from Korea, and future leaders of the next generation from various parts of Seattle. By providing a venue for discussion on various topics related to Korea, Booksori has firmly established itself as one of the major Korean cultural events in the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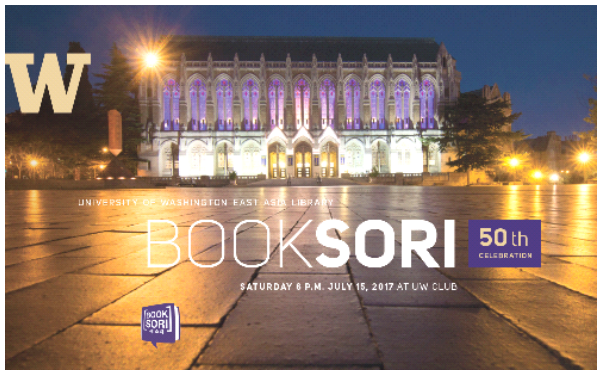
[Picture 5] 2015 K-Manhwa Festival Poster

[Photo 8] Exhibition of a Comic Room Reproduction

[Photo 9] Cartoonist visiting UW Comic Room

[Photo 10] Hyokyoung Yi, the writer with UW Comic Room exhibition student team

[Picture 6] The 50th Booksori Poster



[Picture 7] The 50th Booksori program cover page

3.4.3 Korean Cataloging Fundraising Program

When I first arrived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in 2002, there were stacks of old Korean books that were not fully cataloged piled up in one corner of the library stacks, crying out for help. Processing these books had been put off for decades due to a lack of staffing. More than 5,000 Korean books had been only briefly described with very basic bibliographical information, creating many challenges for users who wished to properly access and borrow them.

By the end of 2015, the East Asia Library was able to launch a massive cataloging project of these unprocessed materials. This was mainly possible due to the contributions of our own Korean cataloging librarian, Ms. Heija Ryoo, who privately donated half of the project expenses. Her donation served as a foundation for the Korean cataloging project fund. Fundraising for this project kicked off in 2016 and finished in less than two years thanks to active participation from the Korean community in Seattle. The community-wide fundraising campaign also accomplished a great deal in terms of outreach relating to the University of Washington's Korean collection. Thanks to these concerted efforts, the cataloging project was completed in the summer of 2018.

Above all, the most significant outcome of the cataloging project was the number of Korean books that were newly discovered after many decades. Of the 5,000 books that were cataloged, about 2,000 were found to be unique holdings in OCLC, meaning that these titles could be introduced to the world for the first time. About 550 titles were published between 1900 and 1950, and among these, around 200 Korean modern literary works were deemed to be the most valuable titles in the collection. In terms of subject area, the books which were cataloged were mostly literature-related materials, with the remainder pertaining to history, philosophy, and other topics.

Worthy of note were the many translated foreign works. Examples include *Wŏlnam manguksa*, 1907 and *Amerik'a hyŏngmyŏng*, 1914 by Hawaii Kŭngminbo, Hong Nan-pa's translated work *Ch'ŏt sarang* from the Russia novel by Ivan Turgenev, *Pŭlgŭn sil* from the original work of Arthur Conan Doyle, *Pairon sijip* by the British poet Lord Byron, novelist Pak Tae-won's translation of *Suhojŏn*, *Kit'anjari* by Kim Ok from the Bengali poet Tagore, and *Yŏgŏl Chyan Takk'ŭ* = Jeane D. Arc published by Hansŏng Tosŏ Chusik Hoesa.

In addition to the aforementioned works, there are many more notable titles. Yi in-jik's *Unsegye 1908*, one of the exemplary New Novels, Chŏng Chi-yong's first poetry book *Chŏng Chi-yong sijip*, 1935, Choe Nam-sŏn's *Simun tokpon*, Im Hwa's edited volume *Hyŏndae Chosŏn siin sŏnjip*, Hyŏn Chin-gŏn's *Chŏkto*, Han Sŏr-ya's *Hwanghon* & *Han*

Sŏr-ya tanp'yŏnsŏn, Yi T'ae-jun's *Sŏganmun kanghwa*, Kim T'ag-un's *Kim T'ag-un yadamjip*, An Hoe-nam's *T'angnyu rŭl hech'igo*, Kim Tong-in's *Agi ne*, Kim Sang-dŏk's *Anhae ŭi kyŏlsim*, Kim Nae-sŏng's *Taep'ung* were all cataloged as part of the project, as well as many more titles published in the 1930s and 40s.

These precious newly discovered books are currently housed in a Special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s East Asia Library so that they can be preserved for use by future generations.

4. Future Vision and Plan

In the near future, we plan to publish an annotated book on Korean Special Collections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s East Asia Library in order to further publicize the collection to a broader audience. As a record of the titles once held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this publication will serve as a snapshot of the Korean Special Collections. This book about books will hopefully live on long after the physical copies themselves are gone due to the limited lifespan of paper materials.

Working closely with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e would like to conduct a survey of rare, pre-1900 Korean publications held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Many of these materials have yet to be identified or evaluated. Last year at the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an Workshop hel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uch a plan was briefly discussed. It is hoped that scholars dispatch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could carry out a rare book project sometime in the next few years.

While continuing to depend on the 75 years of work that have gone into building the Korean collection, increasing demands for digital scholarship will undoubtedly have an impact on the collection's future. Libraries will have to prepare to meet digital data needs from scholars in the field. Books and journals are still in demand, but acquiring born-digital materials and research data generated in a digital format will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pay close attention to new media materials which are not within traditional collection criteria. Although the boundaries of what libraries should collect has become increasingly obscure and vast, research libraries must continue to serve the researchers with the same goal of assisting their teaching and learning for the overall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Sapienza University of Rome

Fabio Stassi
Director of Oriental Studies Library
The Sapienza University of Rome

Antonella Fallerini
Korean Studies Librarian
The Sapienza University of Rome

1. "SAPIENZA" UNIVERSITY OF ROME

With approximately 112,000 students and over 8,000 employees, including faculty, staff, and technicians, Sapienza is one of the Europe's largest universities. Reforms enacted at the end of the 1990s increased its number of degree programs and improved its infrastructure. In 2010, the university adopted a new statute based on rationalization and meritocratic principles. The Faculties, today numbering 11, were called upon to coordinate and supervise academic life, while the 59 Departments became responsible for all didactic and research activities.

The publication QS Ranking by Subject 2019, released February 27, 2019, rated Sapienza first in the disciplinary category "Classics & Ancient History." La Sapienza is the only Italian university to have an absolute record in this ranking. The University is also ranked 11th in Archeology, 34th in Physics & Astronomy, and 43rd in Library & Information Management.

Overall, Sapienza is placed in the international top 100 in 21 subjects, up from 16 subjects in 2018. Along with the four top-50 global subject rankings, 17 fall in the top

100, including for the first time Engineering - Chemical; Geography; Medicine; Statistics and Operational Research; Anatomy and Physiology; Anthropology; Computer Science and Information Systems; Development Studies; Engineering - Civil & Structural; Engineering - Mechanical and Aeronautical and Manufacturing; Engineering - Electrical and Electronic; History; Law; Mathematics; Modern Languages; Pharmacy and Pharmacology; and Theology, Divinity, and Religious Studies.

The 55 libraries of Sapienza constitute a cooperative system that offers information and document exchange services. The collections consist of approximately 2,600,000 old and modern books, periodicals, databases, electronic and multimedia resources. These are coordinated by the Sapienza Library System (SBS).

2. BRIEF HISTORICAL NOTES

2.1 "Sapienza" University of R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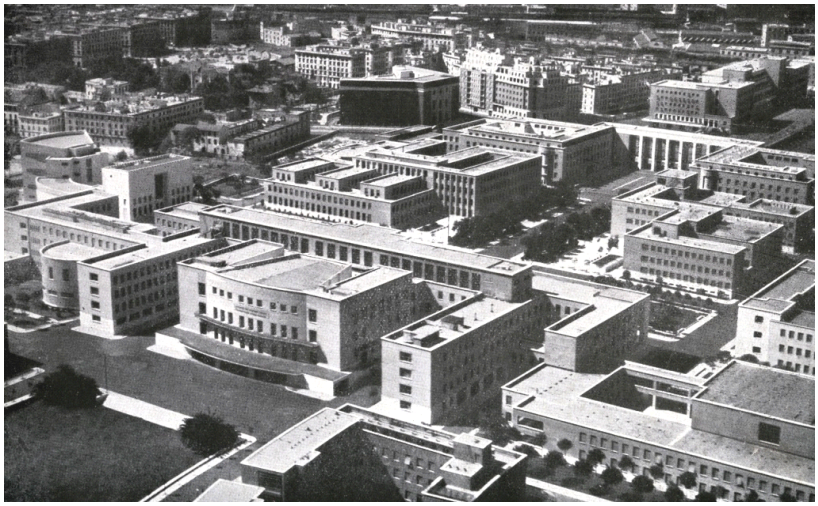
In 1303, Pope Boniface VIII issued the *In suprema praeminentia dignitatis* Bull founding the *Studium Urbis*, Rome's first university. The university was built outside the Vatican walls in order to minimize the clergy's influence and establish a stronger relation between the City of Rome and the many scholars that arrived at the new university from around the world.

The *Studium Urbis* gradually became increasingly prestigious. It began to receive a permanent subsidy from the City of Rome in 1363, and soon grew too large for its original site in the Trastevere area. In 1431, Pope Eugene IV reorganized the university and purchased a series of buildings in the *Rione Sant'Eustachio*, an area between Piazza Navona and the Pantheon in what is today downtown Rome.

In 1660, the *Studium Urbis* relocated to a new building on the Corso Rinascimento and came to be known as Sapienza based on the engraving over its main gate: *Initium Sapientiae timor Domini*.

[Photo 1] Sant'Ivo alla Sapienza

In 1667, Pope Alexander VII founded the Alessandrina Library, which remains within the university area but depends on the Ministry of Cultural Heritage. In the years following the First World War, social conflict drove Italy into a Fascist dictatorship. In 1931, the Fascist regime, which viewed the university and other schools as a prime tool for propaganda, called upon the heads of each faculty to take an oath of allegiance to *Il Duce.* Any who refused would lose their job. Nationwide, only twelve Italian professors out of 1200 had the courage to stand up against the dictatorship. There were four Sapienza professors among them: Ernesto Buonaiuti, History of Christianity; Giorgio Levi della Vida, one of the Oriental School's professors; Vito Volterra, Mathematics and Physics; and Gaetano De Sanctis, Ancient History. A few other professors requested early retirement to avoid clashing with the regime. In the same years a new university campus was constructed, the so-called *Città universitaria* (University City). This new campus, designed by Marcello Piacentini (1881-1960) and inaugurated in 1935, is still the headquarters of Sapienza.



[Photo 2] The University City

In the last decades of the 20th century, some departments remained located outside the campus, sometimes in historical buildings and sometimes in restored buildings.

This is the case for our department, the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which is sited in a renovated former post office warehouse with a total area of 26,500 square meters, today known as “Marco Polo.”

[Photo 3] The Oriental Studies Library

2.2 The Oriental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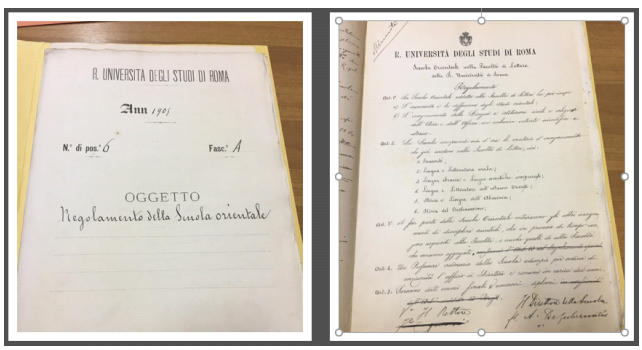
One of the most ancient Italian universities, Sapienza University of Rome maintains a long tradition of teaching oriental languages.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greater importance was given to the Semitic languages, especially Hebrew, Arabic, and Syriac, along with the teaching of Greek and Latin. The first evidence of the teaching of Far Eastern languages can be found only in 1879 with the establishment of a professorship assigned to Carlo Valenziani (1879-1896), an expert in Japanese. His successor, Lodovico Nocentini, one of the founding members of the Oriental School, specialized in Chinese.

The beginning of the 19th century marks a turning point in the development of Oriental studies in Italy. The Oriental School was founded in Rome in 1903 by a group of specialized scholars: Angelo De Gubernatis (1840-1913), a professor of Sanskrit, Celestino Schiaparelli (1841-1919), a professor of Arabic, Ignazio Guidi (1844-1935), a professor of Hebrew and Semitic languages, Lodovico Nocentini (1849-1910), a professor of Chinese, and Baldassare Labanca (1829-1913), a professor of History of Christianity.

According to the School's regulations, the teaching subjects were:

1. Sanskrit
2. Arabic language and literature
3. Hebrew language and comparative Semitic languages
4. Far Eastern languages and literatures
5. History and languages of Abyssinia
6. History of Christianity

The first director of the Oriental School was Angelo De Gubernatis.



[Photo 4] Regulations of the Oriental School

One of the main tasks of the Oriental School was the management of its library. At first its collections were mostly composed of works concerning Arabic language and literature and the history of Islamic institutions. From the time of its foundation onwards, the collections of professors at the school were often donated to the Library, or sometimes purchased from the heirs. These private collections constitute the initial nucleus of the Library collection.

The other fundamental task of the Oriental School was the publication of its magazine, the Rivista degli Studi Orientali, founded in 1907 and still active today (most recent number XCI 2018).

In 1960 the disciplines at the school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each constituting an institute: the Institute of the Ancient Near East, Institute of Islamic Studies, and Institute of India and East Asia Studies. The school at that time was tasked with coordinating the three institutes and remained as the editor of the Journal and the unifying element for the Library.

The three institutes were rejoined in 1982 as the Department of Oriental Studies, which in 2001 became the Faculty of Oriental Studies. This change constituted a response to the widespread demand for learning about "the East," manifested in those years through a progressive and stable increase in the number of enrolments in the degree courses offered: Oriental Languages and Civilizations, for both three-year and master's degree courses. The faculty grouped 40 disciplines into five distinct areas: linguistic, philological,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artistic, philosophical-religious and historical. Each of these were in turn subdivid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geographical-cultural areas: Ancient Near East, Islam, South and South- Oriental Asia, and Far East. In 2010, the faculty was again made a department, the Italian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which remains today.

2.3 The Department Library

The Library of the Department of the Italian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is now located on the second floor of the "Marco Polo" building. It includes more than 130,000 volumes

in over 30 oriental languages, both extinct and current, ranging from Arabic to Persian, Hebrew, Syriac, Sanskrit, Tamil, Urdu, Chinese, Japanese, Korean, Ethiopian, Mongolian, Turkish, Tigrinya, Coptic, Armenian, Georgian, Hindi, Bengali, Tibetan, and Vietnamese. It has also some manuscripts, rare and ancient texts, mainly in Arabic, Chinese, and Japanese (from the 16th to the 19th century) and maps of Asia, including some Chinese-Korean bound maps of the 15th century known world.

[Photo 5] Korean Maps from the 15th century

Among its rare books, the Library holds a medical treatise by Avicenna printed in 1593, a Hebrew Bible in four volumes printed in Venice by the publisher Bragadin in 1618, various stories from China (from 1590, 1670 and 1777) and a precious copy of the Koran of St. Petersburg in an edition printed specifically for Catherine II of Rus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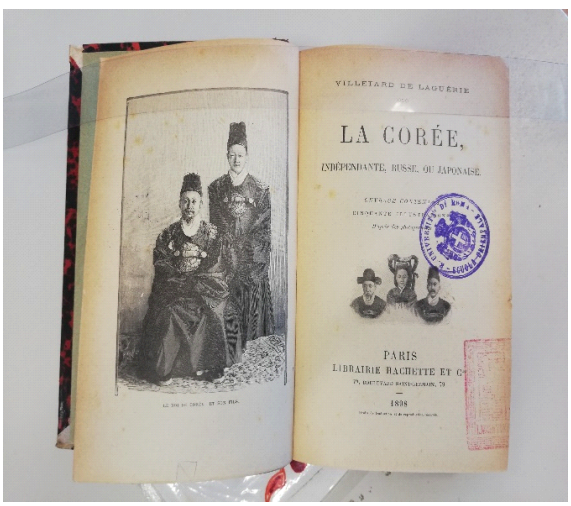
The Library collection is highly eclectic and diversified and ranges from the Ancient Near East and Egyptology to East Asia, with a considerable specialization in Arabic and Islamic studies and in Chinese, especially after the acquisition of the private collection of the important Italian sinologist Giuliano Bertuccioli (1923-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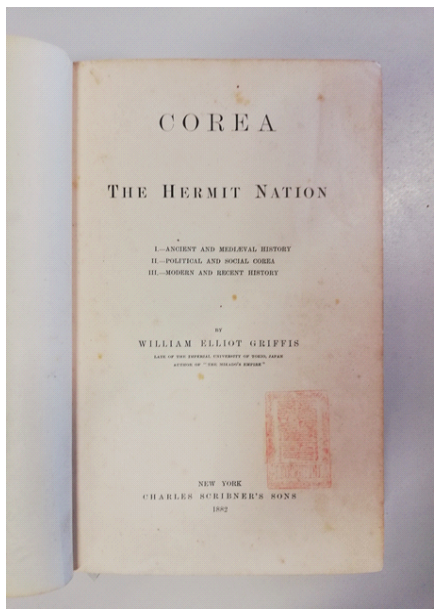
There are also other important private collections, among which we should mention

those of Ignazio and Michelangelo Guidi, Celestino Schiaparelli, Giulio Cesare Teloni, Luciano Petech, and Paolo Daffinà.

Its historical heritage means the library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important in Sapienza, and it constitutes a reference for orientalists all over the world.

In terms of Korean Studies, the most ancient books in the Korean section apart from the cited maps belonged to Lodovico Nocentini, who worked in Shanghai as an interpreter from 1883 to 1888. He purchased a large number of books on the Far East, especially China, but also Japan and Korea. Nocentini's bookplate remains visible on these volumes bought by the Oriental School in the 1920s.





[Photo 6] Two books with Nocentini's red bookplate

Today, books about Korea can be found in two different places inside the library: in the COR (abbreviation of the Italian word *Coreano*, i.e. Korean) section and in the WOK section, which features a dedicated room inside the Library, the "Korean Room", which will be discussed in greater det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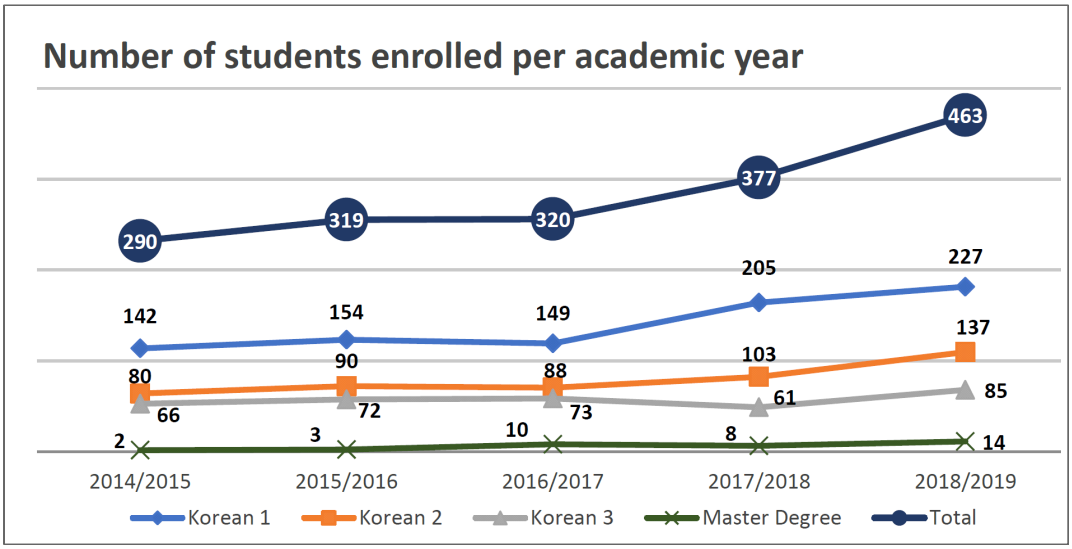
3. KOREAN STUDIES

3.1 The courses

The Chair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was established in 2001 at the time of the creation of the Faculty of Oriental Studies in an effort to expand the training on offer. The first Korean language course was then offered to the students of the Faculty.

Today, two department members (one professor and one researcher) and two language lecturers offer an average of seven courses per year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Political and Social History of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 History of the Korean Civilization), in both three-year and Master's degree courses.

The number of students enrolled in Korean language courses has been growing significantly in the last five academic years, as seen in the following figure:



[Graph 1] Trend of the number of students enrolled in Korean language courses by academic year

For students enrolled in the master degree course, there is an opportunity to achieve a double degree through an agreement with Seoul's Hanyang University, with the second year at the MA level spent attending Hanyang University.

3.2 The Korean collection

The Library's Korean collection has been growing exponentially with a change in the Library staff and a subsequent boost to cataloguing through the electronic catalog (which is connected with the Italian national catalog SBN) and the continuous supply of books provided by the Korea Foundation. The Library joined the Korean Studies Materials Distribution Program in 2010, and every year since has received selected materials in Korean and Western languages, particularly in English.

In 2018 the Department was selected for the 2018 WOK support program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s part of the 2017 Window on Korea (WOK) Overseas Installation Funding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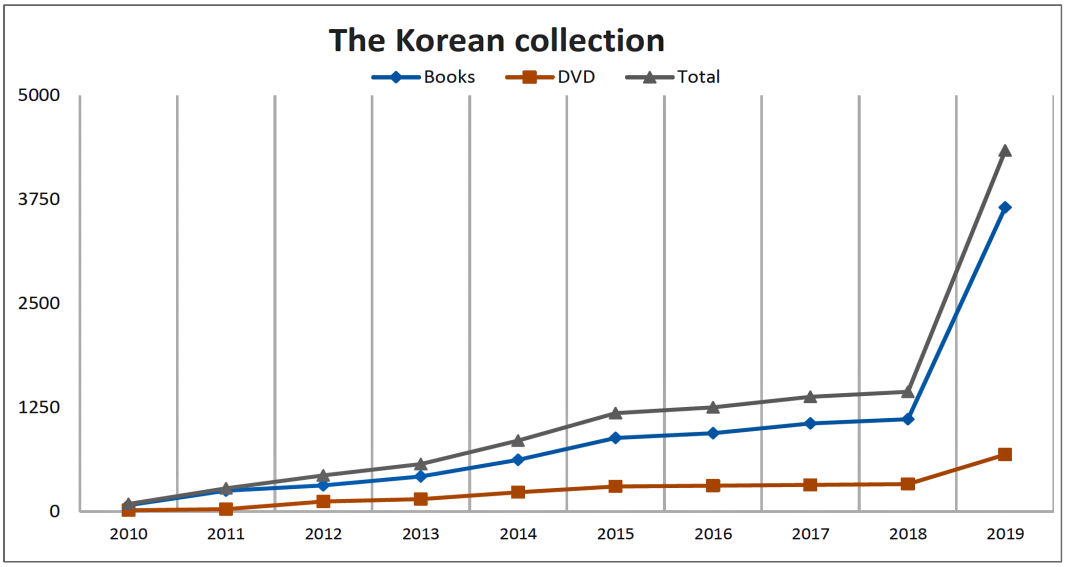
The program provided the Library with books and DVDs, as well as with shelves and furniture, to create a Korean room inside the Library. It was inaugurated in the presence of the Korean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Do Jonghwan.

In August 2018, the Library received 89 boxes containing 2,485 books in Korean and non-Korean languages along with 354 DVDs to enrich the existing collection of 330 items of Korean films and documentaries (mostly provided from KOF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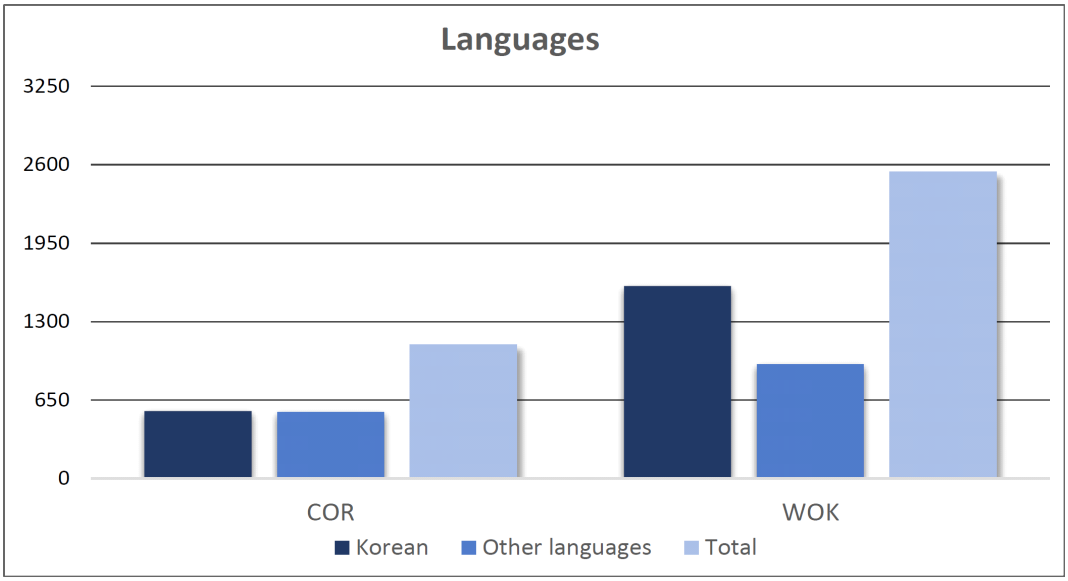
Presently, all the books have been catalogued by the Library staff, meaning the bibliographic records are available both in the national and Sapienza OPACs.

[Photo 7] and [Photo 8] Korean Room

The figure below shows the increase of books and non-book materials in the Library of the Department Italian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from 2010 to today:



[Graph 2] Trend of the number of books in the Library of Oriental Studies. Please note the WOK increase in 2019



[Graph 3] Language distribution (Korean and other languages) in the two sections of Korean books in the Library

4. WOK

The Korean Room applies an open-shelf concept, so a letter between A and H has been added to the shelf mark "WOK" for each topic according to the following scheme:

A: Korean language (grammars, handbooks, and textbooks)

B: Literature, with subdivisions

B 1: Korean literature, in Korean

B 2: Korean literature, in other languages

C: Sciences

D: History and geography (including politics and economics), with subdivisions

D 1: History and geography, in Korean

D 2: History and geography, in other languages

E: Philosophy and religion, with subdivisions

E 1: Philosophy and religion, in Korean

E 2: Philosophy and religion, in other languages

F: Culture and society (including music, theatre, and cinema), with subdivisions

F 1: Culture and society, in Korean

F 2: Culture and society, in other languages

G: Arts, with subdivisions

G 1: Arts, in Korean

G 2: Arts, in other languages

H: Children's books.

Books in Korean donated by the Bologna Children's Book Fair have been collected in this section as well. In 2018 the Book Fair partnered with MBC (Munhwa Broadcasting Corp of Daegu) to set up an exhibition in South Korea featuring works by 77 illustrators of children's books. After the fair the Korean books were sent to our library to join the WOK books in the same section.

There is also a dedicated bookcase for DVDs and CDs.

We have ordered about 200 items through the 2019 Korean Studies Materials Distribution Program, this time mainly focused on music CDs (K-pop), movies, children's books, and young adult titles.

5. The DREAM Project

In Italy, bibliographic description elements in non-Latin scripts cannot be inserted because the national catalogue has no codification system to support these scripts.

In February 2019 our department received € 26,000 in financing from "Sapienza" University of Rome in addition to financing for a research position (12 months) for the DREAM project (Data Recording Entry Alternative Multi-script). This project was conceived by professors and librarians from the department with the collaboration of a number of different academic units within Sapienza (i.e. Sapienza Library System and Departments), providing synergy in terms of academic and technical skills between the teaching and technical staff of the university.

The DREAM project aims to create a system for cataloguing and researching bibliographic resources in non-Latin scripts (Arabic, Chinese, Hebrew, Hindi, Japanese, Korean, Persian, Russian, and Sanskrit). It stems from the need to bring Italy in line with what has been taking place in other European countries for decades, to allow Italian and foreign researchers to carry out their research more effectively, and to increase the international visibility of an inestimable heritage that can only be glimpsed from transliterations not always regulated by standardized criteria.

The project envisions the creation of a research tool (meta-opac) for non-Latin scripts to which, over time, several national institutions could adhere. This new cataloguing system will be able to manage, thanks to its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e descriptions of any national or international institution sharing similar requirements and needs. Another major goal of the project will be to update Sapienza's online catalogue.

The project has remarkable potential since it aspires to the eventual migration of these data in their original script into the national SBN (National Bibliographic System) collective catalogue. The results of the project will be shared as open-access data.

When the library staff has catalogued the Korean books from WOK (September 2018-March 2019), it has already been including in the local catalog the titles and names of the authors in original script in order to apply them for the project. These are now searchable in the Sapienza OPAC.

Speech by the Director of Oriental Studies Library for the inauguration of the Korean Room

October 16, 2018

Dear guests and representative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University of Rome,
Once, during a trip to Lampedusa, the island at the very tip of Italy, I asked few children what a book represented to them.
The first one replied that, for him, a book is like a teapot.

I told him that this was a very Asian answer and it really struck me.
He came up with this idea because his parents are volunteers and welcomed women and children from Africa with a cup of hot tea in the harbor.
A book offers comfort for him, something warm.
The second child told me that for him a book is like an island.
I asked him why, and he replied that it is because if you see it from the side (and he showed me), it's a cliff!
And this is true. A book can be an island, like Sicily or Lampedusa, or a peninsula, like Korea.
But the third child gave me yet another answer.
I don't know exactly what a book is, he said, but I know it opens like a hug.
If you think about it, it this makes sense! To read a book you have to open it, like a hug.

Here, the agreement betwee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our Library of the Department of Oriental Studies of the Sapienza University of Rome, which we are celebrating today, represents a small but significant hug between our countries.
It is a very important cultural exchange, one which allows students and researchers to get further in touch with Korean language, literature, philosophy, religion, art and society.
Therefore, I thank all those who have made the creation of this Korean Study Room possible: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 and Tourism, Do Jonghwan,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Library of Seoul,
the director of the Korean Institute of Rome,
the dean of the Faculty, Prof. Stefano Asperti, and the Director of the department, Prof. Alessandra Brezzi,
Prof. Antonetta Bruno for proposing this project, and her linguistic collaborator Kim Oen Joung , who has put considerable effort into developing this project, for the collaboration and for teaching us the letters of the Korean alphabet.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thank all the staff of my library, who have worked hard over these past two months to catalogue, tidy, and place all the books in this room in the Catalogue of the National Library System, which we hope to complete soon.

A warm thank you goes also to our colleagues with the University Library System, who have collaborated in the transfer of the news of the MARC files and who continue to work together with us on many projects (such as the inclusion of the titles in the original languages), for their patience and professionalism.

A final "thank you" goes out to all the students, those to whom our work is mainly directed.

Every time a library is born, or a study room like this is inaugurated, is like the opening of a tiny turtle egg. A small piece was added to a larger map like the ones we placed on the tables yesterday. A map that I hope will encompass a place of peace and study where we all want to live, one of the few places that can restore the citizenship and identity that we all share, that of members of humanity.

Thank you all and study well!

[Photo 9] Inauguration of the Korean Room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Hanoch Roniger

Asian Studies Subject Specialist Librarian & Technical Services Librarian
Bloomfield Library for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hanochr@savion.huji.ac.il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Korean collection of the Bloomfield Library in the context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at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The Korean collection is part of a broader attempt to provide meaningful resources for the faculty and students of the Hebrew University, particularly those who are part of the Department of Asian Studies at the Faculty of Humanities.

It starts with an overview of the Hebrew University and its development of Asian Studies, followed by a description of the state of Korean Studies. Next, it analyses the structure of the Bloomfield Library for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its collection of resources on Asia in general and Korea in particular. As part of this review, the paper covers the cooperation between the Department of Asian Studies, the Korea Foundation and recentl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e paper concludes by indicating prospective line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1.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1.1 Overview

Established in 1918 and opening its doors in 1925,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HUJI) has become a leading institution of academic higher learning in Israel, and one of the 100 top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Shanghai academic ranking (number 95 as of 2018).

It has three campuses in Jerusalem: Mt. Scopus, Givat Ram, and Ein Karem (the last is affiliated with Hadassah Hospital), and one campus in Rehovot. Currently, HUJI comprises seven faculties, 14 schools, over 200 majors and programs, 973 researchers, and 23,500 students.

As an institution aimed at achieving excellence in research and teaching, its faculty has been the recipient of prestigious awards, including 8 Nobel Prizes, 14 Wolf Prizes, 46 EMET Prizes, 100 Rothschild Prizes, 294 Israel Prizes, a Holberg Prize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 Fields Medal in Mathematics, a Turing Award in Computer Science, and a Canada Gairdner International Award.

Also, as part of its dedication to global outreach, HUJI participates in over 200 student exchange programs with 95 academic institutions in 24 countries, maintains over 300 academic agreements with institutions in 44 countries, and currently hosts hundreds of postdoctoral researchers from 26 countries along with two thousand students from 90 countries who attend the Rothberg International School.

1.2 Asian Studies at the Hebrew University

The Institute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was established in 1926 as one of the earliest institutes of the Hebrew University. While research and teaching on the classical Islamic world and classical Arabic were emphasized at first, but the focus expanded over time to

include other Asian civilizations and languages. Research into East Asian Studies developed in tandem with contemporary Middle Eastern Studies, Indian Studies, Armenian Studies, and African Studies.

East Asian studies was first offered at the University beginning in the late 1950s,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Chinese history and civilization. Professor Harold Zvi Schiffrin, who led these Chinese courses, had managed by 1968 to create the Department of Chinese and Japanese Studies with the late Avraham (Albert) Altman, who came from the U.S. to lead Japanese studies at the department. This department later changed its name and expanded its mission, becoming first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and then, in 2011, the Department of Asian Studies. As part of this broader mission, the Hebrew University integrated Korean Studies as an important component of research on Asia and of the curriculum of Asian Studies.

1.3 Korean studies at the Hebrew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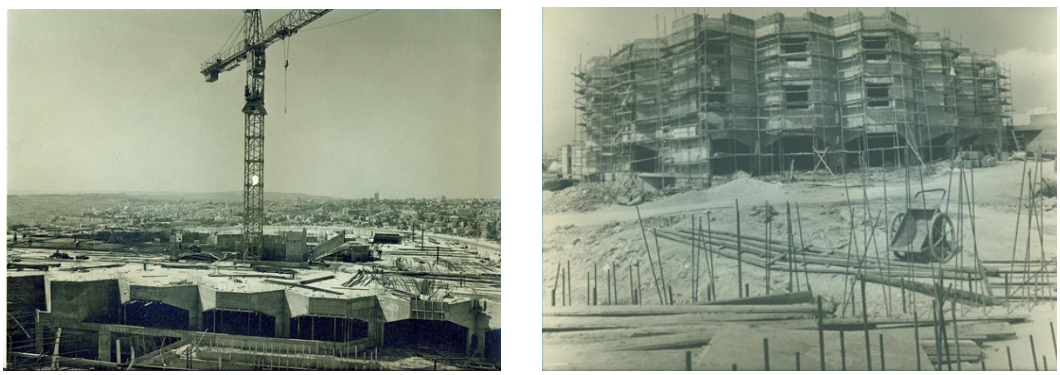
Korean Studies were established at the Hebrew University in 1992 with support from the Korea Foundation. At first, the Department offered a seminar and two beginner Korean language courses as electives starting in the sophomore year of undergraduate studies. In 2008, the Department of Asian Studies created a Korean Section as an undergraduate minor. Since 2016, the department has offered the Korean Section as an undergraduate major as well.

In 2019 Dr. Rhee Jooyeon, a specialist in Korean literature from the colonial period, was granted tenure, becoming the first Korean Studies scholar to reach this standing in Jerusalem. This indicates the institutional commitment to continuing the expansion of Korean Studies at the Hebrew University.

2. The Bloomfield Library for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Overview

The Bloomfield Library for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s part of a broader network of HUJI libraries. It was established in 1981 with the merging of 24 departmental libraries from the Edmond J. Safra Campus (Givat Ram) into a single building on the Mount Scopus Campus in Jerusal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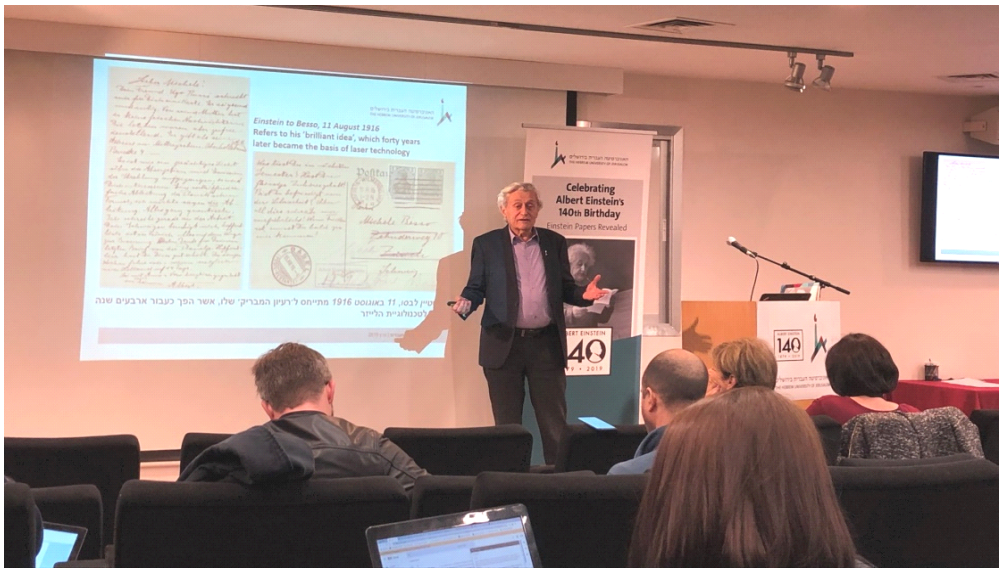


[Photo 1] The construction of the library building at Mount Scopus

During this same period, in preparation for the merging of the collections of the various libraries and creating a single unified catalog of the collections of all the libraries, the Hebrew University developed a library management program known as ALEPH. This was later sold and eventually became the core of the Ex-Libris Company, which developed the 'Alma' unified library system used by the libraries of the Hebrew University and more than 1,000 other institutions worldwide (Ex-Libris Group, 2018).

In 2002 the Library Authority was created to manage the bulk of the Hebrew University libraries across its four campuses. In addition to the Bloomfield Library for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Mount Scopus Campus libraries include the Education and Social Work Library, the Law Library, and the Archaeology Library. 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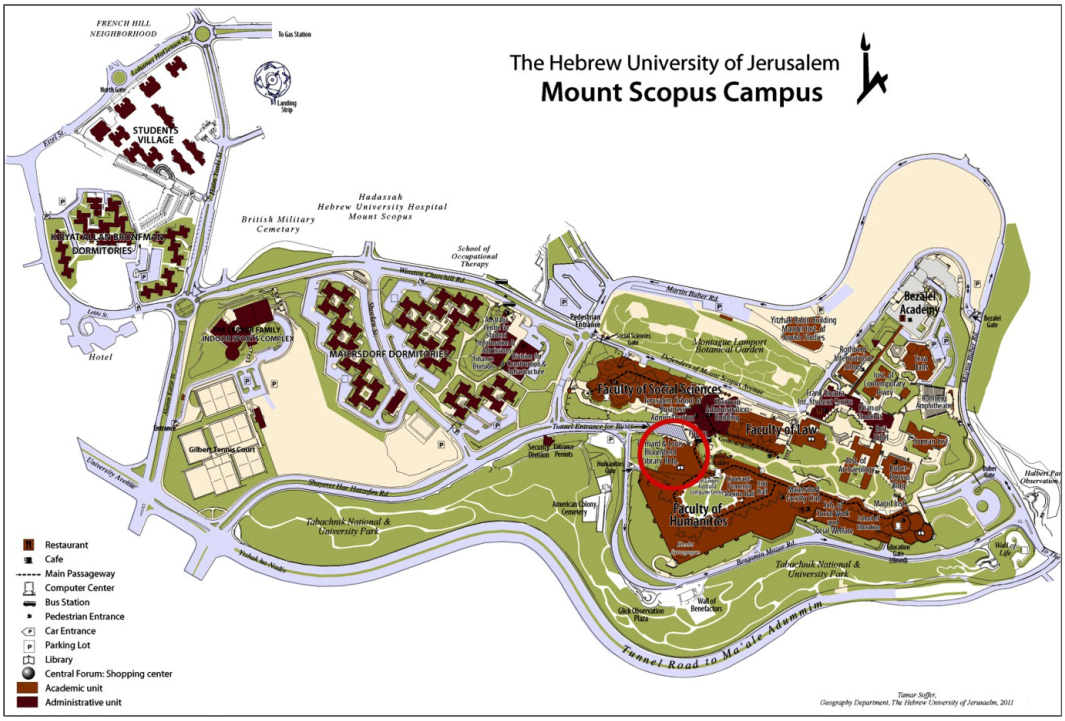
the Edmond J. Safra Campus, it oversees the Harman Science Library, the Mathematics and Computer Science Library, and the Albert Einstein Archives. The Muriel and Philip Berman Medical Library operates on the Ein Kerem Campus. The Rehovot Campus holds the Library of Agriculture, Food, and the Environment.



[Photo 2] Professor Hanoch Gutfreund, the Academic Director of the Albert Einstein Archives, presenting new materials at a press conference commemorating Albert Einstein's 140th birthday. March 6, 2019 (photo by Chaya Becker)

In addition, there are several other libraries on the Mount Scopus Campus which are not under the Library Authority but share a unified online catalog. Among these are the Learning Center for the Blind Library, the Younes & Soraya Nazarian Pre-Academic Library of the Ima Foundation, the Rothberg International School Library, and the Roberta and Stanley Bogen Library and Documentation Center of the Harry S. Truman Research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Peace. The Mount Scopus Campus also houses three archives: The Central Archive of the Hebrew University; the Steven Spielberg Jewish Film Archive; and the Israel Goor Theatre Archives and Museum.

The Bloomfield Library for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s located at the heart of the campus between the Humanities Faculty and the Social Sciences Faculty.



[Picture 1] Map of the Mount Scopus Campus. The Bloomfield Library is encircled in red

The building was designed by architect Yaakov Rechter. The library occupies a space of 15,000 square meters spread across five floors. The entrance (third) floor of the Library includes a lobby with an open space, the Circulation Desk, the Reference Desk, the Reserves collections, the Periodicals Reading Room, and formal and informal individual and group learning areas. The first floor contains the library's storage areas. The second floor includes the open-stacks collections on social sciences and the Media Department. The fourth and fifth floors house the open-stacks collections in the humanities. The library also manages the Map Library, which is currently physically located in the Social Sciences Faculty but is in the process of being integrated into the main library building. The Library offers learning rooms for the use of faculty and students interested in holding private study and discussion groups.

[Photo 3] The lobby of the Bloomfield Library, located at the entrance (third) floor

The library provides services to lecturers, researchers and students in the fields of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It is open to the entire HUJI community as well as to foreign visitors and readers. In addition, anyone who passes through the gates of the University may enter the library and consult its open-stacks resources. Among its patrons are members of the prospering community of several hundred Korean residents of Jerusalem who also make use of the library. More than 5,000 patrons visit the library on a daily basis. The Circulation Desk processes approximately 550 loans and 450 returns every day.

In accordance with Israeli law, the library is focused on accessibility. It offers devices such as headphones, keyboards with large keys, a selection of mice and other accessories that enabl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o access the library's resources. Likewise, the workstations in the Periodicals Department are equipped with wide-screen monitors suitable for the visually impaired. Thanks to generous donations, the Library has installed worksta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two floors. These workstations are equipped with adjustable desks that provide electronically adjustable heights suitable for wheelchair users and people with back problems and PCs with large monitors that enable the continuous display of magnified material without excess scrolling for use by patrons with visual impairments.

Most of the library's materials may be borrowed. Each patron can borrow up to one hundred books at any given time. Furthermore, learning aids such as laptop computers, cellular modems, electronic dictionaries, keyboards in different languages, and mice can all be borrowed. The Library also holds a Reserve Collection of printed and electronic materials including books, articles, music, and movies. Following its service-oriented philosophy, the library provides interlibrary loans and exchanges resources with other colleges and universities and sends materials to international entities through the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Since November 2018, the library has operated a pilot program providing interlibrary loans free of charge.

The Reference Department at the library provides individual and group training by expert librarians with professional knowledge in different languages via frontal training, email, and phone. An online training course on library resources is provided through the MOODLE learning management system environment. This course is mandatory for all students enrolled in a bachelor's degree program in the faculties of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2.2 Collections

The library collections consist of about 600,000 print books, 350,000 e-books (this number includes electronic packages such as the Ebsco Ebook Collection, APA PsycBooks, De Gruyter, Brill and Cognet as well as individual titles from other electronic collections and free titles in all subjects); around 120,000 print and electronic journals (including individual subscriptions, packages, aggregators, databases, and free e-journals); 9,200 DVDs and videocassettes, as well as many more online movies from various databases; approximately 35,000 sound recordings and music compact discs; 230 general and subject specific databases and e-journals packages; roughly 5,900 M.A. theses (print and electronic) submitted to the relevant departments of Hebrew University; around 4,400 Ph.D. theses (print and electronic) submitted to the relevant departments of Hebrew University; over 70,000 maps; and about 200 Kits for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On average, approximately 10,000 to 15,000 titles are added annually to the Library catalog. This number includes new acquisitions, gifts, and donations. Along with the process of new additions, the library routine includes weeding, which is essential to maintaining a quality collection. Subscriptions are also acquired in cooperation with other libraries of the Hebrew University, as well as through 'Malmad,' the Israeli national consortium. Subscriptions to new databases are approved only after being evaluated by librarians and faculty members during a requested trial period.

Collection development is a joint effort by librarians and faculty members. Communication between the Library and the faculty is maintained by subject-specialist librarians. The Library houses books in more than a hundred languages, most notably in Hebrew, English, Arabic, French, German, Spanish, Italian, and Russian. In addition, the collection of East Asian-language materials is rapidly developing across all subject areas and disciplines. There are subject specialists for each area of study covered by the library. Requests for orders (for curriculum and research purposes) are classified into 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importance. Title selections are made from required reading lists, faculty members' recommendations, publishers' catalogs, professional publications, and online resources (Alshech, 2018).

The Bloomfield library also holds several special collections: Abraham Kahana's personal library of Judaica books; the Montefiore Book Collection; the Wallega-Mulder Canter Book Collection; the Uveeler collection of Judaica artifacts; the rare books collection; the Asian languages collection; and the manga collection.

[Photo 4] The Uveeler collection of Judaica artifacts at the Bloomfield Library

2.3 Asian collections at the Library

There are two collections in the Library that contain materials pertaining to Asian Studies. One is the general collection, which includes about 36,500 titles related to Asian Studies in Western languages. The second is a unique collection of printed works in Asian languages that was created by Professor Yuri Pines in 2007. The purpose of this collection is to integrate monographs and serials written in Asian languages that could be of use to the more advanced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Asian Studies. At present, this collection includes approximately 10,250 monographs, some covering multiple volumes; 67 periodicals; and about 300 titles in the manga collection. In addition, the Library has access to over 12,000 electronic resources related to Asian Studies.

[Photo 5] The Asian languages collection at the Bloomfield Library

2.4 Cataloging practices

The catalog is managed using the Alma unified library system. It is cataloged according to the MARC cataloging standard and classified based on the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Schedule. The catalog is multilingual: each record is cataloged in Hebrew, Arabic, English, or Russian depending on the script of the material, including the original script of the material and its transliteration. Including in our catalogs not just transliterations but also the original scripts is an important endeavor given that the Bloomfield Library contains resources in over one hundred languages.

3. Cooperation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library, faculty and external agencies is essential for developing the Asian collection and promoting Asian Studies at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In recent years, we have strived to develop such connections in a way that will contribute to identifying new sources and titles and materials needed for research, teaching, and organizing events. As part of this vision, we have developed initiatives geared at promoting awareness of Korean society and culture among both the students and the general population visiting the Mount Scopus Campus of the Hebrew University.

3.1 Cooperation with the Department of Asian Studies

The development of our collection is being furthered in close connection with the requests and needs of the faculty, with whom we maintain a steady interaction. Another important domain is collaborating in the organization of multiple events devoted to the culture, society, and history of Korea. Among these, in recent years we have hosted a Korean calligraphy exhibition, an exhibit of drawings by North Korean refugees, and a workshop on tasting Korean *Soju* and beer.

[Photo 6] Korean calligraphy exhibition of calligrapher "Bada" Han Dong-jo, 2016 (photos by Jey Rosman-Kim)

[Photo 7] Exhibition of paintings by North Korean refugees, 2017

3.2 Cooperation with the Korea Foundation

Since 1993, the Korea Foundation has provided the Hebrew University with a grant for developing Korean Studies courses. This grant was important in establishing Korean Studies and reflected the growing interest in Korea among Israeli students and the general public. In addition, the library has received several donations of materials about Korea from the foundation over the years, consisting of several hundred titles.

3.3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n 2016 we joined an initiativ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known as Window on Korea (WOK). The project, which was supported within the WOK framework, enabled the construction of a Korean space in our library and the addition of many important materials on Korea to our library collections. The construction of the Korean space was completed in 2018 and the Library hosted the opening ceremony in May of that year, featuring the attendance of Director General Kim Sang Ug and Librarian Kim Hyerin from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Photo 8] Address by Director General Kim Sang Ug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t the opening ceremony for WOK at the Bloomfield Library
(photo by Kumdanje)

[Photo 9] Plaque unveiling. Left to right: His Excellency Ambassador Choi Yong-hwan of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State of Israel; Prof. Asher Cohen, President of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Director General Kim Sang Ug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photo by Kumdanje)

The ceremony was accompanied by a Korean thespian troupe who came to perform several dances at the library in celebration of the opening of WOK at the Hebrew University.

[Photo 10] Part of the dance performance celebrating the opening of WOK (photo by Kumdanje)

The WOK project has exponentially boosted the Library's range and volume of materials relating to Korea. Before the WOK project, the collection relating to Korea at the library contained approximately 300 monographic titles, 50 non-book materials, and 22 serial publications. After receiving two sets of WOK materials and actively expanding our collection through purchases and the processing of donations and estates of faculty members who had sadly passed away, the collection now contains approximately 4,000 monographic titles, 180 non-book materials, and 70 serial publications relating to Korea.

[Photo 11] The Korean corner sponsor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s part of the WOK initiative

4. Prospective

Since its early steps toward developing its Korean collections, the Bloomfield Library for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has become an important anchor for the promotion of Korean culture, society, language, and history, assisting our faculty in this task and adding important materials for its continued growth and enrichment. The Library aspires to continue developing its materials and information sources on Korean society, history, and culture, across all the subjects in which the library specializes, providing access to library materials in various formats while following copyright laws. As in other areas of study and research, we aim to create an advanced working environment, keep abreast of new technologies, and provide wide access through the creation of sufficient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spanning computer equipment, communications, and access to information. Overall, our goal is to provide reliable, professional, and satisfying service to patrons while maintaining fruitful partnerships with other libraries, academic institutions, and foundations in Israel and abroad. Cooperation with Korea is a key to our prospective success.

Bibliography

Alshech, Naomi (2018). *2018 Report to Malmad*.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Bloomfield Library (2016). *2016 library newsletter*. https://mslib.huji.ac.il/sites/default/files/mslib/files/newsletter_2016pdf.pdf

Bloomfield Library (2017). *2017 library newsletter*. https://mslib.huji.ac.il/sites/default/files/mslib/files/newsletter-_2017.pdf

Bloomfield Library (2019). *Special collections.* https://openscholar.huji.ac.il/library/מיוחדים-אוספים

British Friends of the Hebrew University (2018). *Future.* https://www.bfhu.org/wp-content/uploads/2018/10/Future-2018-19-Website-version5.pdf

Ex-Libris group (2018). *Our story.* https://www.exlibrisgroup.com/about-us/our-story-about-ex-libris/

Korea Foundation (1994). *Correspondence with the Hebrew University.* retrieved from the Central Archive of the Hebrew University.

Korea Foundation (1997). *Correspondence with the Hebrew University.* retrieved from the Central Archive of the Hebrew University.

האוניברסיטה העברית בירושלים (1939). האוניברסיטה העברית בירושלים : התהוותה ומצבה.

האוניברסיטה העברית בירושלים (1990-2019). תכניות לימודים : כללים ונהלים.

The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Creating a Korean model for academic research services

Mingi Kang

Librarian
Collection Management and Service Division
National Library of Korea
kmg72@korea.kr

1. Introduction

The needs of library users have been shifting along with the rapid transformations taking place in technology and in society, a process that must be reflected in the services that libraries offer. Keeping pace with this trend,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has been striving to fulfil its role as the country's premier academic research library. A renovation project for the collections space that began in 2017 has created an opportunity to take the NLK's user services in an innovative dir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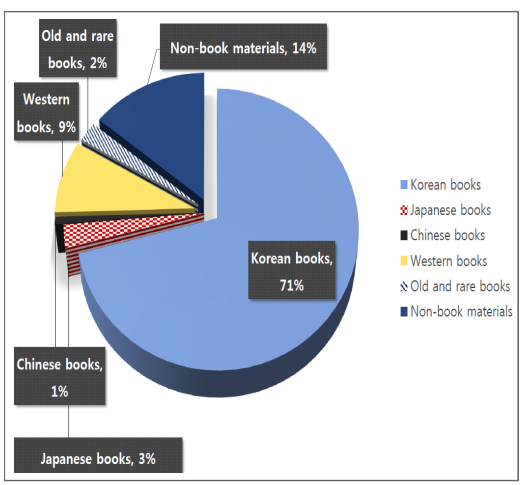
The creation of the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room on the third floor of the library complex is one of the major changes stemming from this project. This room provides an offline platform for RINK((Research Information services, National Library of Korea), the NLK's recently introduce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As part of the efforts to enhance its academic research services, the NLK was determined to develop researcher-oriented services while updating its user services.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development and content of the library's RINK as an element in its endeavors to buttress its overall academic research ser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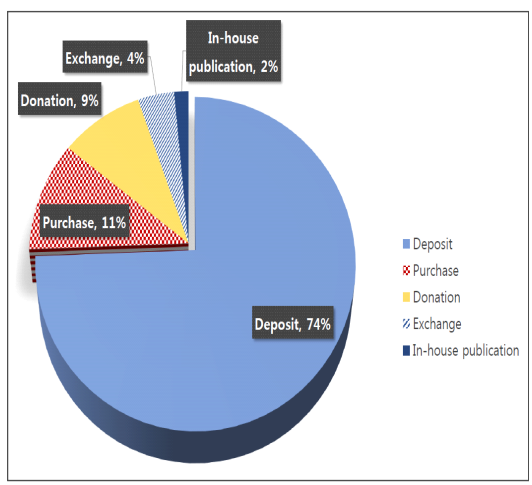
2. Development of RINK

2.1 Creation of the RINK Task Force and its activities

The national library's acquisition, provision, and preservation of materials related to knowledge, culture, research, and information provides a cornerstone for the country's research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1] The NLK houses a total of 11,788,597 items, the largest collection in all South Korea.[2] Over 70% of these are in Korean language since the NLK, as the national deposit library, receives a copy of most of the publications produced in South Korea.



[Figure 1] Composition of materials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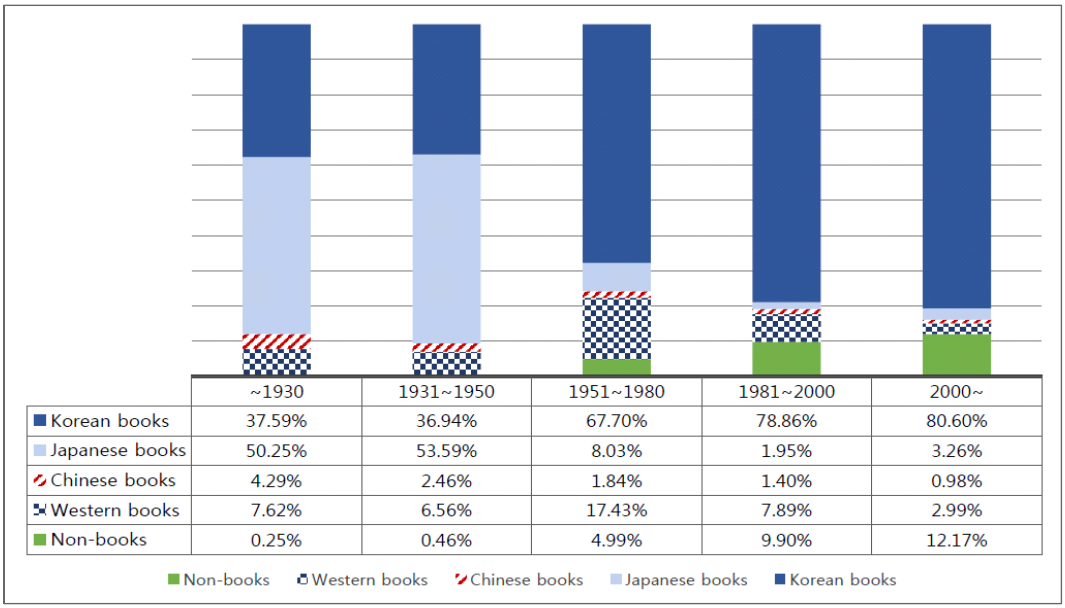


[Figure 2] Composition of sources

1) Yoon Hee-yun, An analysis of subject-based library systems and differences among countries, Th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Issue 3, Volume 40, pp. 69-96, December 2019.

2) The 2018 Library Status and Statistics.

Regarding the collection status by publication year, while Korean books account for over 60% of books published after 1980, Japanese books account for over 50% of those published before 1950. It is also notable that western books take up about 17% of books published in 1950s-1980s (Figure 3).



	~1930	1931~1950	1951~1980	1981~2000	2000~
Korean books	37.59%	36.94%	67.70%	78.86%	80.60%
Japanese books	50.25%	53.59%	8.03%	1.95%	3.26%
Chinese books	4.29%	2.46%	1.84%	1.40%	0.98%
Western books	7.62%	6.56%	17.43%	7.89%	2.99%
Non-books	0.25%	0.46%	4.99%	9.90%	12.17%

[Figure 3] Status by Publication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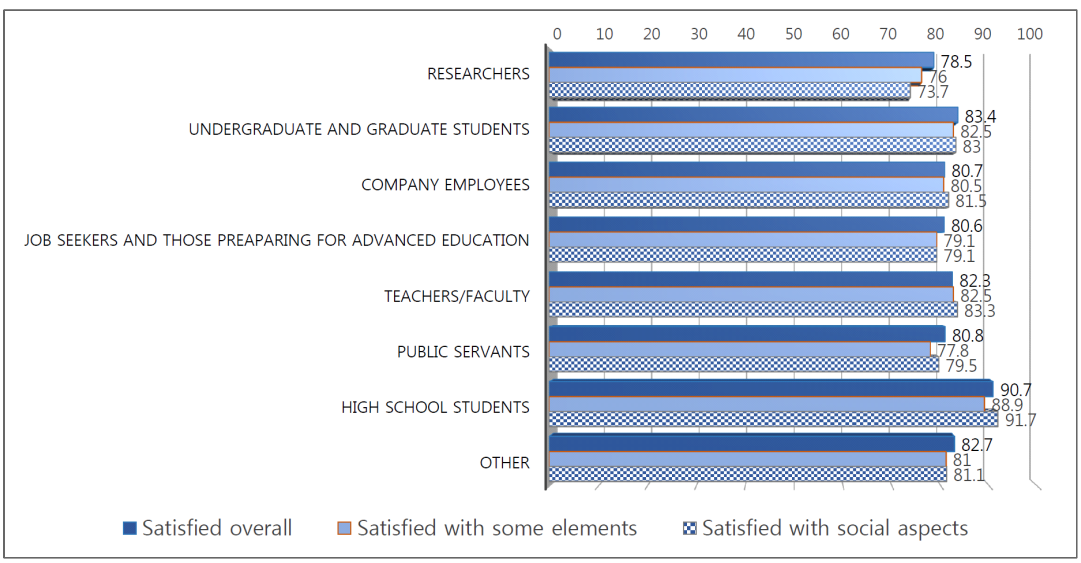
Notably, the 1,821 titles published before 1910, including books on Korea in foreign languages, are of great value to Korean Studies researchers.

Category		Total
Old and rare books	Korean	901 titles 2,850 books
	Chinese	49 titles 594 books
	Japanese	38 titles 115 books
	Sub-total	988 titles 3,559 books
Foreign books on Korea (published before 1910)	Asian books	335 titles 424 books
	Western books	136 titles 173 books
Serials(before 1950)		286 titles 1,129 books
Newspapers(before 1950)		75 titles 673 books
Non-book materials		1 title 1 item
Total		1,821 titles 5,958 books 1 items

[Figure 4] Statistics on old and rare books

Along with its basic functions as the country's National library providing researchers with access to a vast volume of knowledge resources, the library manages a constant demand for public services such as timely access to materials, supply of materials not offered by public libraries,[3] and provision of a pleasant environment.

In 2018, the NLK saw an average of 2,452 visitors per day.[4] In terms of user satisfaction by profession, researchers were less satisfied compared to those in other professions.[5] This indicates that the NLK's academic research services are less than satisfactory to many researchers, leading to concern that this could erode trust and loyalty toward NLK services.



[Figure 5] Satisfaction by profession

As part of efforts to enhance its academic research services to match the scale and quality of its collections, the NLK established the RINK Task Force in September 2017 to develop a new model for the operation of academic research services.

---

3) Most public libraries limit the purchase of materials related to exam preparation and women's magazines.

4) 2018 Library Status and Statistics.

5) The Report on the 2018 National Library of Korea User Satisfaction Survey.

The first item on their agenda was the issue of target groups: whether services should be differentiated by the qualifications and area of interest of researchers, and which types of researchers use the library's collections most. After this, the target groups were categorized.

The second area of concern was the provision of incentives and rewards. The team discussed how to distinguish academic research services from the library's general services and how to craft services that researchers would find useful to their needs. It also discussed how to create services that are specialized but would not estrange general users.

In order to identify the sources of the dissatisfaction revealed in the user satisfaction surve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researchers in different subject areas, including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history, engineering, psychology, business management, philosophy, the social sciences, and education. Interview questions were focused on the library's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programs, qualifications and procedures for requesting the services, limits for borrowing books and loan period, and the facilities in the existing research information room. Most researchers considered the programs, qualifications, and loan policies as appropriate. Interviewee suggestions included providing private study areas and allowing personal items to be brought in.

The third area of discussion was related to system implementation – that is, whether basic procedures such as requesting and using services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existing system or if a separate system is required. The system is closely related to the use of research information services,[6] access to the library, and use of library materials. If a new system tailored to research information services were developed, the range and content of the services would first need to be clearly defined, not to mention securing the required budget. Taking these factors into account, it was concluded that service development should be incorporated into in the library's mid- to long-term plan, but the initial period should be keyed on the development of the essential functions for providing basic services.

---

6) The use of basic information related to services such as submission, receipt, and retrieval.

Focusing on these three issues, hour-long meetings were held almost daily to discus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plausibility, challenges, and solutions involved and to develop the details of services in consultation with related divisions of the library. In the beginning, we brainstormed ideas and researched relevant data and case studies on plausibility and needs. With the content of services taking shape over time, discussions about the detail took place and were included in the overall work plan.

Through some 50 meetings spanning the six months from September 2017 through February 2018, a tentative plan for research information services was created. Next, three explanatory meetings were held for library staff in order to gather opinions. Although there was some concern about the potential for resistance among general users to privileged services being provided to researchers and the relatively high barriers to using the services, most staff agreed on the need for strengthening the library's academic research services. The final proposal for the services, which included the proposed regulations on academic research services, was submitted in March 2018.

2.2 Development of academic research services

Program operation was considered an essential part of the provision of academic research services, and a total of six programs were developed based on unique target groups.

Academic research services largely consist of two areas: project support and researcher support. Applicants are allowed to apply for both since researchers may be simultaneously conducting both personal research and government-funded projects.

Programs	Support for Projects	Support for Researchers				
	1. National R&D	2. A Doctoral Thesis	3. A Journal Article	4. Academic Books	5. Overseas Researcher	6. Research Materials Serarch
Qualification	A person or team member who performs national R & D projects using library	A person who has a master's degree and registered one or more academic papers in KCI and SCI or equivalent journal within the last 5 years or has written more than one academic book		A person who holds doctoral degree and has registered one or more academic papers in KCI and SCI or equivalent journal within the last 5 years or has written more than one academic books	A person who has a master's degree	A person who has a master's degree and registered one or more academic papers in KCI and SCI or equivalent journal within the last 5 years or has written more than one academic books
Use Period	1 year from service start date	6 months from service start date				3 weeks from service start date
Submission of Research Results	Extend for up to 6 months	Extend for up to 6 months to the same subject title				Can not be extended

[Figure 6]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Programs

Project support is designed to assist researchers or research teams engaged in projects hosted by government organizations. With the submission of a research contract signed by the hosting organization, service can be approved without any other proof of qualification.

Researcher support is divided into several categories: doctoral thesis, journal article, academic book, overseas researcher, and research materials search. Applicants should hold at least a master's degree and have published an academic paper or book within the previous five years. The qualifications for the academic book support program initially equaled that of other programs, but were changed in the second half of 2018 to a minimum of holding a doctorate degree in reflection of characteristics of typical applicants to that program.

While the journal article and doctoral thesis programs are customized to suit more junior researchers who are working on journal articles or doctoral theses, senior researchers who are writing on journal articles can also apply.

The main target for the academic book program is senior researchers. Most applicants in this program hold doctorates and are current or retired professors with a long career of research into a specific area.

The overseas researcher program is designed to assist non-Korean researchers who are interested in Korean studies or Koreans studying abroad or working for international

research organizations. The goal of this program is to assist overseas researchers with accessing the library's Korean studies collections and with relying on the NLK as a focal point in their research.

The research materials search program provides short-term support service for researchers who intend to use library materials in their research but have yet to determine a theme. This service can be provided for a three-week period. Users are not required to submit any eventual results, but this service may not be extended.

Once approved, most applicants are allowed to use the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for six months and then apply for an additional six-month extension if needed. However, use of the service is measured monthly and those who fail to reach a minimum amount are denied access in the following month.

Once the service period has ended, users must submit the results of their research, but the submission does not need to coincide with the termination of the service period. Those who wish to apply for the service for a subsequent project, however, may do so only after submitting the results from their previous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requirement is to discourage the use of library materials and services for reasons other than academic research.

The limited service period and the requirement to demonstrate research outcomes may cause some inconvenience to researchers. However, given that general users may view this service a special privilege, such restrictions are justified.

2.3 Installation of the RINK room

The RINK room occupies 567㎡ and is equipped with 70 seats including carrels, seven terminals for online text search, two multifunction photocopier-printers and a seminar room with a seating capacity of 70.

The focus of the library renovation project conducted between 2017 and 2018 was the reorganization of the collections space on the third and fourth floors of the main building.

Among the most visible changes was the installation of the RINK room on the third floor. The RINK room, which provides an offline platform for access to the library's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was established in response to the call for a space set apart from other library service areas.

The TF decided to construct a platform optimized for researchers' to make efficient use of both collections and space.

The first consideration was carrels. Since researchers generally prefer a private work space, carrels and bookshelves used in other academic and national libraries at home and abroad were surveyed.

[Photo 1] Carrels in the RINK room

The second concern was whether or not to allow users to bring in personal items. This was a difficult decision since it contradicts the NLK's basic rules on library use. However, personal items were considered to be essential for efficient research at the library so it was decided to install storage cabinets for personal items within the RINK room.

The third issue was the method for entrance. After comparing the positives and negatives of two different methods -an open format in which librarians may assist as necessary and a closed format in which a special pass is provided to users- the library chose the latter. In cooperation with the relevant divisions, an entrance gate and system was installed to enable the use of a regular library card rather than a separate pass.

[Photo 2] Storage cabinets for personal items

[Photo 3] The entrance gate to the RINK room

The fourth issue was related to the provision of materials. Library materials are fundamentally comprised of those on display in resource rooms and those in stacks that are available upon request. To use the latter, a user has to request and return on the same day. Although there was no limit to the number of books a user can use in a day, a user can request up to 5 books only at a time, after returning borrowed books and have to make request every day.

Considering that researchers often need to use materials over a period of time, the circulation policy has been changed to allow users to borrow up to 20 books for a period of up to 45 days. The circulation and return of these materials is managed in the RINK room.

[Photo 4] Circulation and reference services

The fifth issue was the installation of a seminar room. A consensus had been reached regarding the need for a space for networking and community activities among researchers. Following the model of study rooms and faculty lounges in academic libraries, this room was designed to be suited for small-scale colloquiums as well. It is equipped with a wireless collaboration device[7] and a digital information display (DID) system with an 80-inch screen.

[Photo 5] The seminar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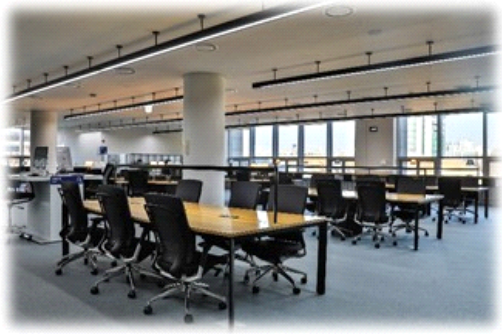
The sixth issue was research desks. As opposed to carrels in ordinary reading rooms, these were designed to come in a range of types to allow researchers to choose based on their preferred activities.

Personal carrels

Four-person research desks

7) Wireless collaboration device: a collaborative conferencing system using two-way wireless Bluetooth communication.

Bench-style desks



Six-person research desks

[Photo 6] Research desks

Lastly, fundamental equipment for supporting research activities were installed, such as photocopiers, printers, and computer terminals for digital materials and online search.

Terminals for digital materials

↑ Terminals for online 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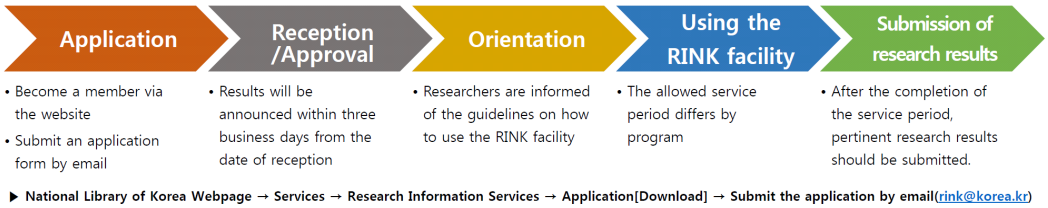
Photocopiers and printers→

[Photo 7] Other facilities

3. Operation of the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3.1 How to use the service

The RINK is provided through the following process: application, reception, approval, and use. Researchers can apply for the service by electronically submitting the application form and other required documents.



[Figure 7] How to use the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3.1.1 Service application

The RINK application form requires applicants to note the type of program to which they wish to apply, their user information, and the research that they intend to undertake. As part of the program type section, the applicant can select a preferred type of research desk along with the specific service. The user information section asks applicants to provide contact details and an NLK user ID. The research information section collects information on the applicant's thesis title, final degree, and papers and/or books published within the past five years. After the submission of the application form and other required documents by email, results are announced within three business days. [Figure 8] shows the type of documents that need to be submitted.[8] The application form can be downloaded on the NLK website.

comm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s Application - Library Materials List -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e Agreement - Facilities and Equipment Use Pledge
Additional	**Program 1. National R & D** - Agreement or Contract **Program 2. A Doctoral thesis, 3. A Journal Article, 4. A Academic Book, 6. Research Materials Search** - Research Proposal **Program 5. Overseas Researcher** - Recommendation Letter

[Figure 8] Required documents for applying for the RNK

8) The application form is included in the Appendix of the Regulations on the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3.1.2 Receipt and approval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m, the person in charge of each program reviews the applicant's qualifications, including academic degree and publications. An NLK online search is used to confirm the applicant's thesis papers and academic publications. Journal articles are checked through citation indexes including KCI (Korean Citation Index) and SCI (Science Citation Index). When necessary, the applicant may be asked to submit additional documents. This often happens for the list of library materials to be borrowed and the research plan. The applicant will be notified of the result of the review by email. In the case of an approval, the email will include orientation information, basic guidelines on how to use the library, and a request to schedule an orientation.

3.1.3 Orientation

Orientations are held every Tuesday and Thursday and each applicant is expected to attend a session within two weeks of the date of approval. A separate orientation can be arranged if an applicant is unable to attend any of the prearranged sessions.

The orientation is focused on basic information on using the library, the RINK, and the rules by which researchers are expected to abide. At the end of the orientation, researchers are registered in the system, user passes are issued, and a storage cabinet for personal items is assigned.

3.1.4 Using the RINK and submission of research results

Once registered with the RINK, a researcher can begin using the service, including the assigned storage cabinet and research desk. In most cases, the duration of this service is six months from the date of orientation and can be extended one time. The total length of the service may not exceed the length of the research period provided in the research plan.

Once the service period has expired, researchers are asked to submit the results of their research. This is not mandatory, but it must be completed if they wish to use the service

again in the future. New applications for service will not be approved without a confirmation of the results of the previous research.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bmitted either in person or through email. There is no deadline for submission.

3.2 Service promotion

Once the details of the service were defined, it was promoted to target grou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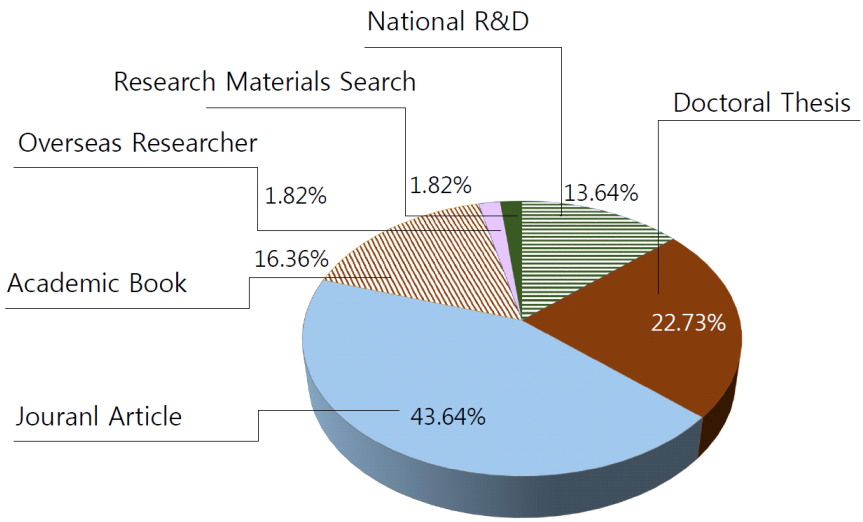
The National R&D program was announced to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state-funded research institutes. The National R&D Project portal site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mng.do) was used to send emails to relevant government officials. On-site promotion was also conducted at the explanatory forum for an academic research support project hos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For the Doctoral Thesis and Journal Article program, we asked academic societies that publish academic journals in Korean and university-affiliated research institutes to display a promotional banner for the program on their websites and to send emails about this service to their members. Furthermore, efforts were made to visit academic conferences and spread awareness of the service.

The Overseas Researcher program was publicized by contacting overseas libraries that maintain Korean Studies librarians and asking them to inform any Korean Studies researchers and Korean students at their universities about the program.

3.3 Current status of the service

Since its launch on July 24, 2018, a total of 121 researchers have applied for the service. Sixty-four researchers are using the service as of April 20, 2019. We have introduced a quota to prevent the users of one specific program from exceeding 50% of the total occupancy. Figure 9 shows the proportions of users of each program.



[Figure 9] The status of us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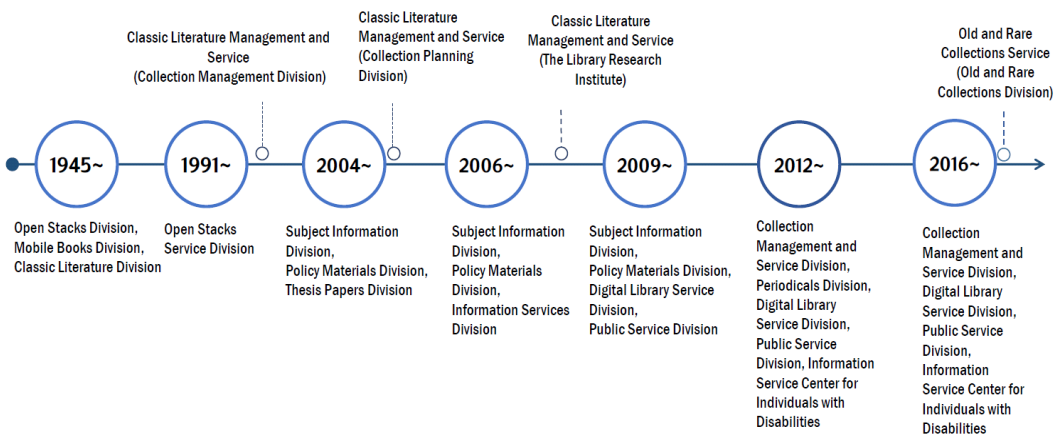
We received our first request for an extension in January 2019, about six months after the service was initiated. Most researchers so far have applied for a service extension. Since the duration of the service may exceed the research period defined in the research plan, however, researchers who have completed the corresponding research will not be approved for an extension. For those who fail to reach the minimum monthly usage quota, service will be suspended. Following a discussion on the need for community-building among RINK users, the Researchers' Lounge was held in March 2019. Participants reported that it provided a chance to exchange information about the service and their research activities. Reflecting the positive feedback, we are planning to host another event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that will allow more researchers to gather to network and share information on their research.

A plan for the operation of a lounge-style research community is scheduled to be completed later in 2019. The purpose of this community is to promote the use of library collections in academic research and to provide a space in which researchers using the library service can interact and cooperate with other researchers. We are also reviewing other ways to support the community so that it attracts additional researchers to the library.

[Photo 8] One-day Lounge

4. Conclusion

Striving to provide a level of services equivalent to its status as the country's central librar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has expanded the focus of its services from open stacks to subject specialization and then to collections. As shown in Figure 10, this has been accompanied by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divisions. Out of this evolution has emerged a need for specialized academic research services.



[Figure 10] Evolution of the NLK's services[9)]

9) The Public Service Division is under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the Information Service Center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under the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and the Public Service Division under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The NLK's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offers a new service model based on an integrated on- and offline platform. The NLK has established regulations on its research information services in order to introduce a distinctive offline platform compared to general library services and existing online-focused academic research services. This novel service has become an opportunity to promote the NLK's service brands among a broader community of researchers.

While learning from other leading libraries around the world, the NLK's academic research services will be further improved by adapting itself to its Korean context and the needs of Korean researchers.

We are currently conducting discussions on how to improve services based on feedback from both researchers who use our service and those encountered at on-site promotion activities, as well as from the findings of a survey conducted in April 2019 of researchers enrolled in the RINK. As the second step in expanding our services, we are working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researchers' network and community based on similar models being operated by other libraries both at home and abroad.

July 2019 will mark the service's one-year anniversary. It is hoped that the new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will serve as a guiding light in the NLK's service innovation, as well as an effective operational model for future academic research information services.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보고서
제 20 호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인쇄
2019년 6월 28일 발행

발행처 : 국립중앙도서관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전화 : (02)590-6327
팩스 : (02)590-6329
인 쇄 : (주)계문사(02-725-5216)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Number 20 (June 2019)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 Banpodaero, Seocho-gu,
Seoul, Korea
Tel: 82-2-590-6327
Fax: 82-2-590-6329
www.nl.go.kr

비 매 품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